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제주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남원읍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권 미 소

2021년 8월



제주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남원읍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배영환

권미소

이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6월

권미소의 문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이진호 

위 원 이상신 

위 원 최대희 

위 원 신우봉 

위 원 배영환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1년 6월

- 차례 -

1. 서론	1
1.1. 연구 목적	1
1.2. 연구사 검토	2
1.3. 조사 지점 및 체보자 선정	6
1.4. 자료 및 연구 방법	13
1.5. 논의의 구성	14
2. 음운 체계	16
2.1. 자음 체계	16
2.2. 모음 체계	22
2.2.1. 단모음 체계	23
2.2.2. 이중모음 체계	27
3. 어간의 기저형	33
3.1. 체언 어간의 기저형	35
3.1.1. 자음·자음군으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36
3.1.2.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48
3.2. 용언 어간의 기저형	54
3.2.1. 단수 기저형	54
3.2.1.1. 자음·자음군으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55
3.2.1.2.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66
3.2.2. 복수 기저형	74

4. 음운 현상	82
4.1. 자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	82
4.1.1. 평파열음화	82
4.1.2. 경음화	84
4.1.2.1.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	85
4.1.2.3. 용언 어간말 ‘ㄴ, ㅁ’ 뒤 경음화	87
4.1.3. 비음화	91
4.1.4. 연구개음화	94
4.1.5. 자음군 단순화	96
4.1.6. 유음 탈락	99
4.1.7. 후음 탈락	100
4.1.8. 중복 자음 탈락	101
4.1.9. 유기음화	104
4.2. 모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	106
4.2.1. 원순모음화	106
4.2.2. 전설고모음화	108
4.2.3. 반모음화	110
4.2.3.1. ‘y’ 반모음화	111
4.2.3.2. ‘w’ 반모음화	113
4.2.4. ‘ㅏ’ 탈락	117
4.2.5. ‘ㅡ’ 탈락	118
4.2.5.1. 어간말 ‘ㅡ’ 탈락	118
4.2.5.2. 매개모음 조사·어미 ‘ㅡ’ 탈락	120
4.2.6. ‘ㅓ’ 탈락	123
4.2.7. 반모음 탈락	125
4.2.8. 반모음 첨가	126

5. 결론	129
<참고 문헌>	132
<Abstract>	142
<부록>	145

1. 서론

1.1. 연구 목적

이 글은 제주방언¹⁾의 공시 음운론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제주 방언 화자의 말을 통해 제주방언 자음과 모음의 체계를 정리하고,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저형으로부터 표면형이 도출되기까지의 음운 과정을 규명 하려고 하는 것이다.

방언에서 공시적인 언어 체계를 수립하는 일은 하나의 언어를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변형 생성 문법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방언의 일반 언어학적인 연구는 최명옥(1980, 1982) 이후로 줄곧 시도되었다. 약 40년 동안 각 방언(또는 지역어)를 하나의 독립된 언어로 보고 해당 방언의 공시적인 음운 현상과 통시적인 음운 변화의 관계를 이해하려는(최명옥, 1990:673) 연구 결과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양적인 면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까지 각 방언 음운론의 연구는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 곽충구(1994), 배주채(1994), 김옥화(2001), 유필재(2001), 김봉국(2002a), 한성우(2003), 임석규(2007), 이금화(2007), 이상신(2008), 최창원(2015), 최소연(2020)²⁾ 등의 논고를 통해 평북·함북 방언에서부터 서남 방언의 각 도서 지역까지 면밀히 고찰되는 연구 성과가 방언 내지 지역어의 독립된 언어 체계를 밝혀 내는 연구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그러나 많은 방언 음운론의 연구 결과 가운데 제주방언을 대상으로 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일

1) 제주 사회에서는 ‘제주어, 제죽말, 제주도 방언, 제주방언, 제주 지역어’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나 ‘제주어’는 요즘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민간기관, 개인, 나아가서 정책명, 사업명 등 너나 할 것 없이 사용하는 용어이나 이 글에서는 한국어의 하위 개념으로서 방언을 뜻하는 일반화된 명칭인 ‘제주방언’을 쓰기로 한다.

2) 박사 논문을 중심으로 몇몇을 나열한 것일 뿐 이외에도 각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성과는 매우 진척된 편이다. 또한 방언 간의 음운론적 대비·대조 연구도 지속되어 석사 논문은 차치하고라도 정인호(2004), 이혁화(2005), 하신영(2010), 김경표(2013), 이진숙(2013) 등의 연구 성과를 볼 수 있다.

반 언어학적 연구 방법론에 입각, 공시론적 연구를 표명하여 제주방언의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에 대해 규칙화한 논의는 김광웅(1989), 모음 체계와 그에 관련된 음운 현상을 정밀히 기술한 논의인 정승철(1988) 정도에 그친다. 김광웅(1989)는 제주방언의 주요 음운 현상에 대해 논의하며 음운 규칙을 설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논의의 흐름이 초기 생성음운론 연구 방법을 취하다 보니 음운 현상의 규칙화에만 집중되었다. 정승철(1988)의 연구는 제주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가운데 가장 손꼽히는 논의로 생성 문법의 언어 변화 이론을 따라 제주방언의 모음 체계와 그에 따른 음운 현상들을 정밀하게 기술하면서 제주방언 모음 체계의 내적 구조를 고찰하였다. 다만 이 외에 제주방언의 형태소 경계에서 나타나는 음운론적 현상들에 대해서만 면밀하게 관찰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하위 방언 연구가 어느 정도 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는 시점이지만 제주방언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는 최근, 특히 2010년 이후로 뚜렷한 성과물이 없는 실정이다. 다른 방언에 눈을 돌려보면 방언에 나타나는 개별 음운 현상 각각에 대해서도 연구자마다 시각을 달리한 심도 있는 논의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제주방언의 음운론적 연구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방언의 연구가 국어와의 공통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하고 방언에 나타나는 공시적인 언어 현상이 국어의 일반 현상을 찾아내는 데에 유용하다면 공시적인 관점에서의 제주방언의 특수성과 일반성의 공백을 메울 연구가 시급하다.

1.2. 연구사 검토

제주방언은 국어사 연구를 위해서도 매우 가치가 높은 방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제주방언의 음운·형태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 방언 토박이 연구자는 물론 국어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로부터의 많은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아왔다. 최초의 제주방언 연구인 小倉進平(1913) 이후 다른 방언과 마찬가지로 이 방언의 음운·형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제주방언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현평효(1979, 1987)³⁾, 강정희(1992), 오창명(2000) 등에서 한 차례 정리된 바 있으

며 가장 최근에는 제주방언의 음운론적 연구에 대한 연구사 정리가 고동호(2014), 정승철(2014), 오창명(2018) 등에 의해 진행되기도 하였다.

다만 이 글은 제주방언의 음운론적인 연구를 목표에 두고 있으므로 제주방언의 음운론적인 연구만을 집약적으로 정리한 고동호(2014), 정승철(2014), 오창명(2018)에 기대어 이 글의 논의 전개와 관련 있는 연구 논저에 한해서만 공시적인 관점과 통시적인 관점으로 나눠 연구사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공시적인 관점에서 이 방언의 음운을 연구한 자료로는 小倉進平(1913)이 있다. 小倉進平(1913)는 제주방언에 ‘·’가 존재한다는 최초의 보고이며 이후 小倉進平(1931)에서는 제주방언에서 나타나는 ‘·’를 관찰하여 ‘ㄴ’과 ‘ㄷ’의 중간음으로 규정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는 다른 방언에서는 ‘ㄴ’로 변하기도 하고, ‘ㄷ’로 변하기도 하나 이것은 ‘·’가 가진 중간음적인 특질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승녕(1957)은 논문의 제목에서처럼 ‘제주방언의 형태론 체계’를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기술하려 하였다. 이승녕(1957)에서는 제주방언의 ‘·’를 포함한 단모음을 10모음 체계로 설정하고, ‘ㄱ,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이 체계 안에서는 ‘·’만 아니라 ‘ㄱ’이 단모음으로 실현되었다는 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승녕(1957)은 ‘·’음이 제1음절에서만 유지되고 제2음절에서는 대부분 동요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술하였다.

이승녕(1957)의 연구는 이후 제주방언 음운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로 꼽히는 현평효(1964a, 1970)으로 이어졌다. 현평효(1964a)는 제주방언의 단모음을 설정한 공시론적인 연구이다. 현평효(1964a)는 연구자 자신이 이 방언의 토박이 화자라는 장점을 활용해 제주방언에서 나타나는 단모음의 최소 대립쌍(minimal pair)⁴⁾을 직접 현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방언의 단모음 분석을 시도하였다. 현평효(1964a)는 제주방언의 단모음을 전설모음 /i/, /e/, /ɛ/, 중설모음 /u/, /ə/, /a/, 후설모음 /u/, /o/, /ɐ/의 9모음 체계로 설정하였는데 이것은 이승녕(1957)의 연구에서

3) 현평효(1987)에 따르면 1911년부터 1986년까지 약 76년 동안 제주방언에 대해 연구하여 발표한 논저를 취합해 보면 172편이나 된다고 하였다. 이때까지 연구는 형태·통사 분야의 연구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적잖은 논저의 수는 곧 제주방언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4) 현평효(1964a)에서는 ‘minimal pair’를 최소 대립어라 하였으나 이 글의 논의에서는 용어를 통일시켜 ‘최소 대립쌍’으로 제시한다.

설정되었던 단모음 ‘꺄’가 제외된 것이었다. 현평효(1964a)는 다시 현평효(1970)으로 이어져 제주방언의 단모음 체계가 세대층에 따라 어떤 상위가 있는지를 고찰하고 상위 체계를 가지게 된 변화 과정 및 그 원인들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평효(1982)에서는 제주방언의 19개 자음 체계에 후두유성음 ‘ㅇ[h]’를 추가한 20개 자음 체계를 제시하였다. 현평효(1982) 이후 이 방언에서 ‘ㅇ[h]’은 하나의 독립된 음소로 설정되었다.

강영봉(1983)은 현평효(1982)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현지조사 과정을 거쳐 후두유성음 ‘ㅇ[h]’이 15, 16세기 상태로 제주방언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 음성적 환경이 ‘ㄱ’과 모음 사이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다. ‘ㅇ[h]’은 유성음 사이에서 실현되지 않고 생략되는 ‘h’와 같은 후음계열의 음이며 중세국어의 ‘ㄱㅎ’에서의 ‘-ㅇ-’와 같은 적극적인 직능을 가진 것이라고 하여 제주방언에 존재하는 후두유성음의 ‘ㅇ[h]’ 특징을 고찰한 연구이다.

정승철(1988)은 제주방언의 음운 체계와 그와 관련된 음운 현상인 모음 탈락, 반모음화, 치찰음 아래에서의 전설모음화, 순음 아래에서의 원순모음화 등을 다루며 제주방언의 모음 체계의 내적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들과 차별된다. 이 글의 마지막 장에서는 움라우트 현상을 통하여 앞선 단계의 모음 체계를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김광웅(1989)은 생성음운론적 시각에서 제주방언의 구체적인 음운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음운 규칙을 설정하였다. 다만, 김광웅(1989)의 연구는 이 방언에서 실현되는 표면형을 바탕으로 기저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중부방언형을 고려하여 제주방언을 고찰한 연구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통시적인 관점에서 제주방언의 음성·음운을 연구한 자료로는 이기문(1977a)가 있다. 이기문(1977a)는 중세 국어의 ‘여덥(八)’과 제주방언 ‘으덥’이 대응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15세기 이전에 중부 방언의 어두에서 ‘*으>여’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밝혀내었다.⁵⁾ 또한 중세 한국어의 ‘견디-(忍)’에 이 방언의 ‘즌디-’의 대응은 *즌디->즌디-의 변화 즉 어두 자음의 구개음화와 ‘y’ 탈락, 제2음절의 ‘*·>ㅡ’ 변화가 일어난 결과로 보았다는 점 등을 주목할 수 있다.

5) 이기문(1993)은 이기문(1977a)의 연구를 요약·정리하여 제주방언의 국어사 연구를 검토하였다.

홍성해(1987)은 제주방언의 자음 음운 현상에 관한 연구로 중화, 구개음화, 경음화, 유기음화 현상에 대한 논의이다. 그 가운데 특히 ㄱ, ㄷ, ㅎ의 구개음화와 어두 경음화와 어중 경음화의 음운 현상 기술에서 알 수 있듯 조사 자료와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통시적인 관점에서 제주방언의 자음에서 나타난 음운 현상을 살폈다. 단, 홍성해(1987)의 자료는 형태소 내부, 형태소 경계, 단어 경계의 뚜렷한 구분 없이 나열하여 규칙을 설정하는 데에만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며 김광웅(1984, 1986)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고동호(1991)은 제주방언에서 구개음화와 관련된 어휘들에 포함된 이중모음들이 구개음화를 전후로 할 때 어떤 음운 변화들을 경험했는지를 살펴보는 통시적인 연구이고, 고동호(1997)은 제주방언이 경험한 모음 조화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검토한 성과이다. 이 논의에서는 형태소 내부의 모음 조화를 모음의 유형별에 따라, 형태소 경계에서의 모음 조화를 파생과 활용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정승철(1991)은 형태소 경계에서 나타나는 음소 연쇄의 잉여성과 복합어나 단어 경계에서 나타나는 선행어기 말자음의 복사현상을 다룬 것인데 음절이라는 단위에 의하여 음운 현상을 기술할 때 포착하기 어려운 제주방언의 ‘y’계 이중모음의 출현 제약과 복합어 경계에서의 복사 규칙을 살펴본 논의로 매우 의의가 있다.

정승철(1995)는 제주방언에서 나타나는 여러 음운변화를 음소의 분포와 관련지어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통시적인 연구이다. 생성 문법의 언어 변화 이론에 의해 제주방언의 자음과 모음의 변화를 고찰하였는데 이를 위해 문헌어와 다른 방언과의 비교를 통한 비교 방법, 현대 제주방언에 나타나는 교체 현상을 통해 이전 시기의 형태를 재구하고자 하였다. 정승철(1995)의 연구는 생성 문법의 언어 변화 이론을 따라 이 방언에서 일어난 자음과 모음의 변화를 정밀하게 기술하고자 한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승철(2000)은 제주방언의 공시론·통시론적 음운론을 기술한 연구이다. 정승철(2000)의 논의에서는 공시적인 관점에서 제주방언에서 용언 어간말 비음 뒤의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점, 전설고모음화가 나타나는 점 등을 보임으로써 제주방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정승철(2000)에서 제주방언의 공시·통시 음운론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다루고 있으나 정승철(2000) 이후 보다 세세한 이 방언의 공시적 음운 과정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다.

이와 같이 각 개별의 연구 업적은 의미 있는 것들이기는 하나 연구사 검토로도 제주방언의 음운론적 연구가 모음 연구에 편중되어 왔고, 통시론적 연구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음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자음에 대한 연구는 이 방언의 자음 체계가 중앙어나 다른 방언과 크게 다르지 않는 데에서 연유하기도 하나, 강영봉(1983)의 논의나 정승철(1991, 2003), 고동호(1995a, 1996) 등에서 나아가 제주방언 자음 관련 연구에서도 현대 국어의 입장에서 다른 방언과의 비교 고찰 등을 통해 좀 더 세밀하게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자음의 각각의 개별적인 음운 현상에서도 당연 제주방언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방언에 관한 음운론적 연구는 특정 연구자인 현평효, 김광웅, 정승철, 고동호 외에 새로운 연구자의 시각에서 논의의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공시음운론은 늘 그 방언의 현재를 말하고자 한다. 방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풍부한 자료 수집과 그 자료에 대한 정밀한 관찰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이 연구가 제주방언의 현재를 기록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되기를 바란다.

1.3. 조사 지점 및 제보자 선정

이 글에서는 일반 언어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 제주의 남원읍 지역의 언어를 대상으로 남원읍 지역에서 발화되는 80대 이상의 토박이 노년층의 음성을 직접 채록하여 정리해 보이도록 한다.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이 글의 조사 지점은 서귀포시 남원읍 지역이다. 제주도는 행정구역상 2개의 행정 시, 7개 읍, 4개 면이 있는데 남원읍은 7개 읍 가운데 하나이다. 이 지역의 언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남원읍 지역은 1416년(태종 16년)에 제주목·대정현·정의현이 설치될 때 정의현에 속했던 곳이다. 방언의 조사 지점을 선정할 때는 조사 지점의 역사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사 지점은 전통성과 역사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 마을의 규모도 커야 함은 당연한 것인데(이승재, 2004:51) 조사 지점으로 삼은 남원읍은 조선시대부터 정의현에 소속되어 그 역사와 전통이 매우 깊은 지역이며 제주의 읍면별 면적을 비교했을 때는 가장 넓은 면적(188.45km²)을 차지하는 곳이다.

둘째, 남원읍은 1989년~1993년 남조로⁶⁾가 개통되기 전까지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물론 가까운 이웃마을에 다니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곳이었다.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길은 5·16 도로와 1100도로밖에 없었다. 남원읍에서 제주시, 서귀포시로의 접근성은 매우 떨어졌던 것이다. 남원읍에서 제주시에 가려면 최소 5시간이 걸렸고, 남원읍에서 제주시로 가는 버스편은 하루에 3대가 전부였다고 한다.⁷⁾ 남원읍 지역이 시내로부터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도로가 개통된 1990년도 이후부터 도로 사정이 나아지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로의 이동은 자유로워졌지만 이것은 전 시기 이 지역에서 도시와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도로 개통이 늦어진 점은 오랫동안 생활했던 지역민의 언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잘 보존되었을 것이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 즉 언어 변화에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발달된 도시와의 접촉도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남원읍의 위치적 특성은 제주방언 연구의 조사 지점으로 매우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제주방언은 지역차보다는 세대차가 큰 언어이다. 시내를 중심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는 젊은 세대가 거주하는 데 비해 시외 지역으로 갈수록 노년층이 많이 밀집해 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원읍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서귀포시나 조천읍, 표선면에 비해서도 외지 인구의 유입 등이 적은 곳⁸⁾이다. 남원읍 내 노인 인구의 비중은 무려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여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⁹⁾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남원읍 지역은 방언 연구의 제보자인 노년층의 언어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표준어의 영향을 덜 받았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지역이므로 제주방언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 지점을 남원읍으로 선정하였다. 이 글은 ‘제주방언의

6)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서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까지 연결되는 32.1km의 도로를 말한다. 남원의 머리글자인 ‘남’자와 조천의 머리글자 ‘조’자를 따서 남조로라고 한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626940&cid=51955&categoryId=55546>) 자료를 옮겼다. 2021년 4월 30일 검색 기준.

7) 제주일보, 2005. 2. 26. 기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021년 2월 14일 검색 기준.

8) 1946년 도제가 실시되면서 남제주군이 설치된 이후 남제주군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81년 서귀포시가 분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부터 남제주군의 인구는 점차 감소한다. 이것은 도시화된 서귀포시 지역이 분리됨으로써 도시보다는 농촌적 특성이 강한 지역으로 변모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남제주군, 2006:271).

9) 2021년 1월말 기준으로 남원읍 주민 등록 현황을 보면 남원읍 전체의 인구수는 18,756명(남 9,689명, 여 9,067명)이고, 그 가운데 노인 인구수는 4,580명(남 1,967명, 여 2,613명)이었다. 서귀포시 남원읍 누리집 2021년 2월 14일 게시글 기준.

음운론적 연구’이며 ‘남원읍 지역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달았다.

한편, 한 언어의 분화체로 단순히 어떤 지역에서 쓰이는 말을 지역어, 해당 언어에서 어느 정도의 방언권이 상정되었을 때는 방언이라 정의한다. 이에 따라 대개 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한국어를 다룬다는 의미로 ‘○○ 지역어 또는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나 ‘○○ 방언의 음운론’이라는 제목의 연구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주방언의 경우 방언 분화에 따른 방언 구획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다른 논의들과 동일하게 제주의 남원읍 지역의 언어만을 지역어로 사용해도 될지는 아직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¹⁰⁾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제주방언 화자의 언어를 대상으로 하되 연구의 조사 지점을 단지 남원읍 지역에 한정된 것을 부각시켜 행정 구분의 용어인 읍 지역을 살려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에서 이 글의 조사 지점을 지도에서 보이고 남원읍 지역¹¹⁾에 대해 간략히 개괄한다.



〈그림 1〉 조사 지점을 나타낸 지도

10) 김순자(2011)에서처럼 제주방언에서 사용되는 어휘의 특수성 때문에 어휘 분화에 따른 방언권 구획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제주방언의 동·서 지역의 차이를 보일 때 적어도 국어의 다른 방언의 하위 구획처럼 단모음 체계가 바뀌는, 이를테면 한 세대 안에서 9모음 체계와 8모음 체계로 다르게 존재한다거나 한 세대 내의 방언의 자음의 개수가 달라지는 등의 음운 체계의 변화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하위 방언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역사적으로 음운, 문법, 어휘의 분화 양상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어휘의 분화에 따른 방언 구획만으로는 제주 방언의 소방언권을 세우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한 예로 전남 방언의 경우 단모음의 수에 따라 동과 서로 양분된다. 동부 전남 방언은 10모음 체계인 데에 비해 서부 전남 방언은 9모음 체계로, ‘e’와 ‘ɛ’의 대립 유무에 의해(이상신, 2008:17) 모음 체계가 달리 나타나는 것이다. 또, 김미진(2015)에서 제주도 전 지역(우도를 제외하고) 24명의 피조사자의 음성 파일을 전사한 자료를 싣고 있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도 지역에 따른 음운차는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2020:13-37)과 제주특별자치도(2008), 서귀포시 남원읍 사무소 누리집(<https://www.seogwipo.go.kr/local/namwon>)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조사 지점인 남원읍은 1946년 제주도제가 실시되고 도내에 남·북제주군이 설치되면서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면이 되었다가 1980년 남원면이 남원읍으로 승격되어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이 된 후,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남제주군이 서귀포시에 통합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이 되었다. 현재 9개의 법정리, 17개의 행정리¹²⁾, 48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도서로 무인도인 지귀도가 있다.

남원읍의 전체 면적은 189.09km²로, 서귀포시 3읍 2면 12동 중에서 가장 넓으며 제주도 전체 면적의 10.2%, 서귀포시 전체 면적의 21.7%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1월말 기준, 행정리별 인구 현황¹³⁾을 보면 총 18,75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남성이 9,689명, 여성이 9,067명으로 남성의 수가 약 3% 정도 더 많다. 남원1리에 4,526명이 거주하고 있고, 다음으로 위미2리에 2,255명, 위미1리에 1,879명이 살고 있다. 이 세 마을에 남원읍 인구의 약 46%가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 내의 노인인구의 비중은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인구에서 20% 이상이 노인 인구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 만큼 남원읍의 대부분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원읍의 지형적 특징은 지표면에서부터 높이 솟아오른 오름 지형, 하천 지형 및 해안 지형에서 찾을 수 있다. 남원읍에 위치한 오름은 총 29개이다.

남원읍은 임야가 103.486km²로 전체 면적의 54.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과수원이 43.905km²로 23.21%, 전(田)이 11.069km², 목장용 토지가 8,969km²로 구성되어 있다. 남원읍은 서귀포시 대표 작물인 감귤 재배 면적이 약 25%이며 이에 따른 생산량이 서귀포시 내 최대이다. 과거 의귀리를 중심으로 수백 필씩 조정에 현마할 정도로 활발했던 축산업은 감귤 산업의 발전으로 현재는 침체된 상태이다. 남원읍 내 어업 가구는 제주도 전체 기준의 약 6%이며, 서귀포시 기준으로 볼 때는 약 13%에 달한다. 행정리별 어업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어업 가구, 어업 인구, 해녀 수 규모가 가장 큰 지역에 속한다. 이는 국가어항인 위미항이 남원읍에 위치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2) 남원읍에 소속된 17개 마을 중 하례2리, 신례1리, 한남리, 남원2리, 의귀리, 수망리, 신흥2리 등 7개 마을이 중산간 마을의 성격을 띠며, 하례1리, 신례2리, 위미1리, 위미2리, 위미3리, 남원1리, 태흥1리, 태흥2리, 태흥3리, 신흥1리 등 10개 마을이 해안마을의 성격을 띠고 있다.

13) 서귀포시 남원읍 누리집(<https://www.seogwipo.go.kr/local/namwon>)에 공시된 자료를 옮겼다. 2021년 3월 24일 검색 기준.

이제 다음으로 제보자 선정과 조사 기간 등의 정보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보자이다. 어떤 제보자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연구의 성패가 좌우되기도, 연구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므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제보자는 반드시 이 방언의 전형적인 사용자여야 한다.

제보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최대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1) 제보자는 3대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2) 타지에 오래 살지 않아야 한다.
- 3) 농업과 같은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한다.
- 4) 신체가 건강하고 목소리가 맑아야 한다.
- 5) 치아가 골라 발음이 비교적 정확해야 하며 언어 감각이 있어야 한다.
- 6) 가급적이면 80세 이상의 토박이 노년층이어야 한다.

한편 이 연구의 주 제보자는 모두 여성¹⁴⁾이지만 모든 제보자를 여성만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보조 제보자를 남성으로 두어 성별이 달라 발생하는 방언의 차이를 고려하는 등의 장치를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남원읍 지역의 화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¹⁵⁾의 제보자를 섭외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4) 김미진(2015:1)에 따르면 제주도는 예로부터 해양 조난 사고, 6·25 전쟁, 4·3 등으로 인해 남성보다 여성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성 인구 비율은 남성의 경제활동 영역에 여성의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고 하였다. 제보자로 남성이 적당한지 여성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河野六郎(1945)와 박경래(1984), 이승재(2004)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河野六郎(1945:79, 119)는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여성이 방언 연구의 제보자로 더 좋다고 하였고, 박경래(1984)에서는 움라우트에 대해 노년층의 여성 제보자가 남성 제보자보다 더 보수적이므로 여성 제보자가 방언의 고형을 더욱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승재(2004:54)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같은 군내 출신이고 지역적 대표성을 갖추었다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좋은 제보자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15) 신우봉(2015)은 제주 방언의 음성학적 연구를 통해 제주 방언의 하위 구획 설정의 가능성을 동·서의 방언 구획보다는 중산간 지역·해안 지역의 방언 구획이 더욱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것은 정승철(1995)의 논의를 이은 것으로 보이는데 신우봉(2015:201)에서는 제주 방언 단모음 실현 실험에서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에서의 음운·음성학적인 차원에서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제주 사람들이 말하는 ‘동쪽의 말과 서쪽의 말이 다르다는 것’은 실험 결과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신우봉(2015)은 제주 방언 내에서 중산간 지역과 해안 지역에서 단모음 실현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본 바 70대 화자의 경우에도 남녀 모두 중산간 지역에 사는 화자의 단모음의 실현 양상이 해안 지역에 사는 화자들에 비해서 보수형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외지인과의 접촉 빈도 차이 및 그로 인한 표준어의 간섭 차이 때문으로 해석되며 더 나아가 제주 방언의 하위 구획이 ‘중산간 지역 대 해안 지역’으로 나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다만 이 글에서는 중산간 지역과 해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제보자의 말, 음운 체계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제보자 정보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이름	출생년도	성별	조사 지점 · 거주지	학력	직업(생업)
주 제보자	현○○	1937년생	여	남원읍 의귀리 (중산간 마을)	초등학교 졸	농업
특징	<p>남원읍 수망리에서 3대 이상 살다 의귀리로 시집옴. 일제 강점기에 겪었던 일, 제주 4.3의 일을 마치 어제처럼 생생히 기억할 정도로 기억력이 매우 뛰어나.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학교에 출석하는 일이 적었으나 졸업장은 받았으므로 공식적인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임. 1960년대 중반 남원읍에 처음 굴나무가 들어왔을 때부터 굴 농사를 지음. 보리, 조, 피, 산디, 고구마 등 해보지 않은 농사일이 없으며 현재도 쉬지 않고 굴밭을 관리함.</p> <p>목소리가 아주 크고 발음이 아주 또렷함. 매우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음. 보조 제보자 양○○(남편)과의 사이가 좋아 평소 대화가 많음. 매번 단번에 질문의 요지를 이해해 관련된 이야기를 막힘 없이 구술함. 한 가지 질문과 관련해서 기본 10분 이상의 구술이 가능함. 표현하는 어휘 등이 매우 다양하여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하는 데에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줌.</p>					
주 제보자	오○○	1932년생	여	남원읍 태흥3리 (해안 마을)	무학	현재 무직
특징	<p>3대째 신흥리에서 살았으나 태흥3리로 시집을 온 후 줄곧 이곳에 살고 있음. 해보지 않은 농사가 없을 정도로 농업을 주업으로 삼아 살아옴. 현재 따로 밭을 돌보지는 않으나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노인 일자리 창출에 참여, 집 가까이에 있는 운동장에서 ‘검질(잡초)’을 맴. 제보자의 집은 같은 연배의 할머니들이 늘 찾아오는 사랑방 같은 곳임.</p> <p>연세에 비해 신체가 매우 건강함. 기억력이 아주 뛰어나고 말을 막힘 없이 쏟아내는 편임. 발음이 아주 정확하고,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해 구술함.</p>					
주 제보자	정○○	1934년생	여	남원읍 남원1리 (해안 마을)	무학	농업

특징	<p>증조부부터 4대째 남원1리에 거주함. 초등학교를 2학년 때까지 다니기는 했으나 한글을 몰랐음. 이후 나이가 들어 야학소에서 자음, 모음만 학습한 후 스스로 글자 읽기를 터득했다고 함.</p> <p>음성이 매우 뚜렷하고 목소리가 큼. 기억력 또한 무척 좋으며 귀가 밝고 언어적 감각이 뛰어남. 발음이 분명함. 활용형이 불가능한 형태를 우회적으로라도 질문하면 단번에 알아차린 후 그 말은 절대 쓰지 않는다며 ‘요새말’과 ‘제주방언’을 구분시켜주려 함.</p>					
보조 제보자	양○○	1935년생	남	남원읍 의귀리 (중산간 마을)	고등학교 졸	농업
특징	<p>4대째 의귀리에 거주함. 남원읍 지역의 내력을 잘 알고 있음. 예의, 형식을 매우 중시하는 편.</p> <p>처음에는 표준어형을 많이 사용했으나 이후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제주방언을 구사함. 주 제보자 현○○(아내)와의 대화에서는 제주방언형을 자연스럽게 사용함. 목소리는 좀 작으나 발음은 아주 분명함. 귀가 밝은 편임.</p>					

〈표 1〉 남원읍 지역의 제보자 정보

제보자의 말은 SONY PCM-A10를 활용하여 녹음하였고, 녹음된 음성 자료는 제보자의 언어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게 음성 전사하여 정렬하고, 엑셀로 다시 체언의 곡용형, 용언의 활용형을 정리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제보자 조사는 총 2차에 걸쳐 제보자의 집에서 진행하였다. 조사 기간 및 조사 장소를 밝히면 아래와 같다.

〈조사 기간 및 조사 장소〉

- 조사 기간: 1차 2020. 6. 12.-2020. 7. 3.
보충 조사 2021. 1. 25.-1. 29.
- 조사 장소: 남원읍 의귀리, 태흥3리, 남원1리 제보자의 집

1.4. 자료 및 연구 방법

제주방언의 음운론적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조사 항목을 설정하여 조사하고,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연구자가 조사를 통해서 얻은 음성 자료이고, 둘째는 음성 확인이 가능한 자료와 활자화된 제주방언 자료 등이다. 첫째 자료는 제보자마다 10시간 이상의 구술 발화를 수집한 것이다. 첫째 자료를 주 자료로 삼되 미처 확인하지 못한 형태들과 교차 확인이 필요한 것 가운데 둘째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보충하여 사용하며 그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보조 자료에 활용된 자료를 간단하게 보이면 다음과 같다.

〈보조 자료 목록〉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한국방언자료집 IX: 제주도 편』
- 국립국어원(2004-2013),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4-2016), 『제주어 구술 채록 조사 보고서(1-36)』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2020),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VII(남원읍 편)』
- 현평효 외(2009), 『개정 증보 제주어 사전』, 제주특별자치도.

이 글은 방언의 일반 언어학적 연구 방법¹⁶⁾ 가운데 구체 음운론(자연 생성 음운이론)에 기대어 진행한다. 이 연구 방법은 최명옥(1978) 이후부터 지역어를 대상으로 그 지역어의 음소 체계를 설정하고 어간의 기저형과 어미의 기저형이 통합될 때 형태소 경계에서 나타나는 음운 과정과 음운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기저형으로부터 표면형에 이르는 음운 과정을 설명하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구체 음운론의 관점에서는 표면형으로 실현되지 않는 추상적인 음소를 기저형으로 설정하면 안 된다. 즉 추상 음운론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음소를 설정하여 음운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을 지양하는 것이다. 추상 음운론에서는 현대 국어에 존

16) 일반언어학적 방법은 방언을 하나의 언어로 보고 그 방언 자체의 내적 구조와 논리를 중시하는 연구 방법이다(최명옥, 1990:668).

재하지 않는 ‘빙’으로 ‘ㅂ’ 불규칙을 설명하려 하지만 구체 음운론에서는 이러한 설명 방법을 지양한다.

한편 기저형을 설정하는 것은 음운 현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데 이 글에서 제주방언의 기저형을 설정할 때는 이형태의 교체가 공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질 것이다. 기저형을 설정할 때 공시적인 음운 과정으로 이형태를 설명하지 못하면 추상적인 기저형을 설정할 수밖에 없고 외재적 규칙순 등을 두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추상적인 기저형 설정을 막기 위해 이 글에서는 단수 기저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수 기저형을 두고 그 이형태 교체를 설명하는데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에는 화자의 어휘부에서 처리할 문제로 보려 한다.

이 글은 공시적인 관점에서 제주방언을 해석하지만 부분적으로 통시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 내용을 가능한 한 각주로 달아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방언은 늘 현재 진행형이므로 공시적인 기술이 필수적이지만 한편으로 방언은 또 오랜 역사적 변화의 현재형이기도 하므로 방언에 대한 설명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방언의 모습이 온전히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성우, 2009:375).

조사된 자료의 방언형 전사는 한글 전사를 원칙으로 한다. 녹음한 자료 중 자연스러움이 적고, 표준어형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사용하지 않으려 하였다. 한글 전사를 할 때는 해당 어형에 적용된 모든 음운 규칙을 반영하여 표기하려 하였으며 혹 한글로 전사할 수 없는 경우나 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음성 기호(IPA)를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1.5. 논의의 구성

이 글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한다. 1장은 서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연구사 검토, 조사 지점 및 제보자 선정, 연구 방법 등을 서술함으로써 이 연구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핀다.

2장에서는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제주방언의 음소 체계를 제시한다. 제주방언에 존재하는 자음, 모음, 반모음의 목록을 확인하는데 이들 가운데 반드시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시하고 덧붙여 설명하고자 한다.

3장은 기저형 설정에 관한 것이다. 공시음운론적 연구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저형 설정이라 할 수 있다. 기저형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도출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곡용형과 활용형을 보인 후, 표면형을 통해 도출된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하려 한다. 단수 기저형 설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복수 기저형을 설정하여 제시한다. 기저형 설정 기준과 조건은 최명옥(2008b)과 이진호(2015)를 따를 것이다.

4장은 제주방언에 나타난 공시적인 음운 현상에 대한 부분이다. 3장의 내용을 토대로 형태소 경계에서 나타나는 자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과 모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을 관찰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마지막 5장은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2장부터 4장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글의 마지막에는 직접 조사한 용언의 활용 양상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여 〈부록〉으로 실는다.

참고로 이 글에서 사용하는 기호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 []: ① 한자음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② 음성형 표시 ③ 자질명 표시
- (): ① 한자음이 일치할 경우 ② 자유 변이 중 열세형
- / /: 기저형 표시
- ~: 수의적인 교체 또는 자유 교체(공존형), 어미 두음의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선택되는 기저형 표시
- ∞: 쌍형 어간
- >: 통시적인 변화, 변화의 방향
- →: 공시적인 변동, 교체의 방향
- *: 재구형 또는 비적격형

이 외의 기호나 약호는 〈범례〉를 따른다.

2. 음운 체계

음운론적인 논의의 출발은 먼저 음운론의 기본적인 단위인 음소 목록을 확인한 후 그 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있다(배주채, 1998:19). 제주방언의 공시 음운론적 연구를 진행하는 이 글에서도 제일 먼저 제주방언에 존재하는 음운을 확인하고 이것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선행하여 이후 3장의 기저형 설정, 4장의 음운 현상 기술에 바탕을 다지고자 한다. 이에 2장에서는 제주방언의 자음, 모음, 반모음, 이중모음의 목록을 확정하고 그 체계를 제시한다.

2.1. 자음 체계

제주방언에 존재하는 자음은 다음과 같은 최소 대립쌍(minimal pair)·최소 대립군(minimal set)¹⁷⁾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1) ㄱ. ㅂ:ㅃ:ㅍ:ㅌ-불[火]:뿔[角]:풀[膠]:물[水]
- ㄴ. ㄷ:ㅌ:ㄹ-달[月]:딸[女]:날[刀]
- ㄷ. ㄷ:ㅌ-돌[石]:тол[海藻]
- ㄹ. ㅅ:ㅆ-슬[膚]:쌀[米], 사-[買, 立]:싸-¹⁸⁾[點燈, 汐, 低]
- ㄴ. ㅅ:ㅆ-지-[負]:찌-[插]:치-[蒸, 打]
- ㅂ. ㄱ:ㅋ:ㅋ-굴[蠣]:꿀[密]:쿨[草]¹⁹⁾, 가-[去]:까-[穀, 剝]:카-[燒]

17) 이진호(2010a)에 따르면 최소 대립쌍은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개로 이루어진 단어 묶음을 가리키며, 초성의 차이에 따라 단어를 모두 묶는 개념으로 최소 대립군(minimal set)이 있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복으로 확인한 자료를 따로 구분해 들씩 묶지 않고 최대 4개까지 묶어 제시하며 최소 대립쌍과 최소 대립군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한편, 음운론의 관점에서 최소 대립쌍을 설정할 때에는 최소 대립쌍을 이루는 두 단어의 음운이 수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양적 대등성과 두 소리의 성질이 비슷해야 한다는 질적 대등성의 두 가지를 고려해야만 한다(이진호, 2010:124-128)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제주 방언의 최소 대립쌍과 최소 대립군을 제시한다.

18) 제주방언의 ‘싸-’는 매우 많은 쌍형 어간을 가지는데 ‘싸-[汐], 싸-[點燈]’의 경우 15세기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혜-’가 모두 이 방언에서는 ‘싸-’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 ‘풀[草]’도 공존한다. ‘쿨[草]’은 이른바 ‘ㅂ>ㄱ’의 변화를 보여주는 예로 원순모음화 이후 ‘ㅍ>ㅋ’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ㅍ>ㅋ’의 변화가 ‘ㄷ>ㄱ’의 원순모음화보다 먼저 일어났다면 ‘쿨’로 실현될

- ㅅ. ㅅ:ㅎ-상(床):항(缸), 쉬-[休]:휘-[泳]
- ㅇ. ㄹ:ㄹ-말[言]:날[日], 딸[女]-땀[汗], 발[足]:밤[夜]
- ㅈ. ㄴ:ㅇ[ŋ]-반(半):방(房), 산(山):상(床)

(1)은 제주방언에서 같은 조음 위치 또는 조음 방식을 갖는 자음에 대해 어두에서의 대립을 보이는 예를 최대한 제시한 것이다. 다만 ‘ㅇ’의 경우에는 초성에 올 수 없는 자음이므로 종성에서의 대립을 확인하였다. (1)에서 제시한 자음들이 음소로서 변별적 기능을 함을 최소 대립쌍을 통해 확인하였다. 제주방언의 자음은 장애음 15개(ㅂ, ㅃ, ㅍ, ㄷ, ㅌ, ㅊ, ㅅ, ㅆ, ㅈ, ㅉ, ㅊ, ㅋ, ㆁ), 공명음 4개(ㄴ, ㄹ, ㅁ, ㅇ)를 포함해서 모두 19개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이들 19개 자음 외에 ‘ㅎ’을 이 방언의 음소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고자 한다.

‘ㅎ’은 현대 국어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표면에 그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인 음소로 여기기도 한다. 다만 이 ‘ㅎ’을 강릉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이익섭(1972:102)²⁰ 이후부터 기저형에 설정하여 하나의 음소로 보는 견해가 이어져 최명옥(1980, 1982), 김봉국(2002a), 임석규(2007), 이진숙(2013), 최창원(2015) 등의 논의에서는 각 지역어의 음소로서 ‘ㅎ’을 인정하였다. 최명옥(2008b:44)는 활용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할 때에 분석된 어간이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한 것은 모음으로 끝나고,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한 것은 유기음으로 끝나면 이 경우 유기음으로 끝나는 이형태를 잠정 형태소로 정하고 그 합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만약 이 경우에 ‘ㄷ’로 시작한 어미와 통합한 어형이 ‘ㄷ’에 대해 경음으로 실현되면 잠정 형태소는 ‘ㅎ’로 끝나는 것으로 보고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ㅎ’은 형태소 경계에서 공시적인 음운 현상인 경음화에 관여하며 하나의 자음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ㅎ’을 음소 목록에 포함시킬 경우 표면에는 실현되지 않는 추상성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ㅎ’을 설정하여 음운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 그 반대의 주장보다 일견 ‘보다 유리한 것’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정승철, 1995:97).

20) ‘걸-[懸]’과 ‘걸-[步]’ 등의 활용에서 ‘걸~구’와 ‘걸~꾸’에서의 경음 차이, ‘거~니’와 ‘거르니’에서의 ‘으’ 탈락 및 유음 탈락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ㅎ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이점을 지닌다(정인호 1995, 임석규 2007). 물론 ‘ㅎ’을 음소로 인정하지 않는 김옥화(2001) 등의 논의도 있으나 이 글은 정인호(1995), 임석규(2007) 등의 논지에 적극 동의하여 제주방언에서도 ‘ㅎ’을 설정하고자 한다.

제주 방언의 자음으로 ‘ㅎ’을 설정하려고 하는 근거를 검증해 본다. 제주방언에서도 ‘ㅎ’이 표면에 그대로 실현되는 일은 없어도 뒤따르는 장애음을 경음화시키는가? 또 비음화의 적용을 받아 ‘ㄴ’으로 실현됨으로써 그 존재를 간접적으로라도 드러내는가? 이러한 점에서 ‘ㅎ’이 표면에 전혀 실현되지 않는 다른 추상적 분절음과는 구분되는가?(이진호, 2002:61)

(2) ㄱ. 지곡, 지지, 지영, 지민, 지는 [搗]

ㄴ. 지꼭(~질꼭), 지찌, 지영~정, 지으민, 진는 [搗]

중부방언에서 ‘ㅎ’을 말음으로 가지는 ‘짙-(搗)’는 이 방언에서 (2ㄱ, ㄴ)과 같은 활용형을 보인다. (2ㄱ)는 자음 어미, 모음 어미, 매개모음 어미, 비음 어미 앞에서 ‘지곡, 지지, 지영, 지민, 지는’, (2ㄴ)는 ‘지꼭(~질꼭), 지찌, 지영~정, 지으민, 진는’²¹⁾과 같은 패러다임을 갖는다. 여기서 어두 자음이 ‘ㅈ’과 ‘ㅉ’이 공존하는 형태로 실현됨은 물론이다. (2ㄱ)의 활용 양상을 통해 기저형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자음 어미 앞에서는 ‘지-’, 매개 모음 어미 앞에서는 매개 모음 ‘으’가 탈락하는 등의 설명으로 기저형 ‘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2ㄴ)의 기저형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 (2ㄴ)의 표면형 가운데 자음 어미 ‘-꼭’과 결합에서 나타나는 ‘지꼭(~질꼭)’을 설명하고자 하면 용언 어간말에는 자음이 존재해야만 한다. 또 표면형 ‘진는’ 역시 어간말에 자음이 있어야만 설명할 수 있다. 그때 어간말 자음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우선 (2ㄴ)의 도출형을 설명할 때 중부방언의 ‘짙-’처럼 어간 말음이 ‘ㅎ’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어간 말음은 모음 어미와 통합될 때 ‘ㅎ’이 탈락하고, 자음 어미와 결합할 때는 ‘지곡’, ‘지찌’ 등과 같이 유기음으로 실현된다. ‘지꼭(~질꼭), 지찌’를

21) 이러한 표면형들은 국립국어원(2006, 2007, 2008, 2009, 2011, 2012, 2013) 호근 지역의 ‘질찌’, 가시 지역의 ‘진는’과 ‘질찌’, 색달 지역의 ‘질찌’, ‘짙는디’ 등 보고서 모두에서 확인되어 논의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설명하고자 하면 어간 말음으로 ‘ㅎ’은 설명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ㅎ’이 아닌 그 어떤 음소가 필요하다. 즉 위의 표면형에서처럼 자음 어미 ‘-곡’과 ‘-지’와 같은 어미의 경음화를 설명하려면 ‘ㅎ’을 음소로 설정한 근거가 생긴다. 즉, 모음 어미 앞에서는 탈락하고 자음 어미를 경음화시킬 수 있는 음소는 ‘ㅎ’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제주방언에서 ‘ㅎ’을 설정할 수 있다.

‘ㅎ’과 ‘ㅎ’의 관련성은 정인호(1995:9-10)에서 자세히 논의된 바 있다. 어간말 ‘ㅎ’과 ‘ㅎ’의 규칙 적용 양상이 비슷하여 화자들 또한 ‘ㅎ’을 어간 말음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ㅎ’과 ‘ㅎ’의 대립 관계는 체계상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ㅎ’은 ‘ㅎ’을 평음으로 설정한 위치를 고려해 파열음 평음에 둘 수 있겠다.

이렇게 ‘ㅎ’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최종적으로 제주방언의 자음은 장애음 16개와 공명음 4개를 합해 20개가 되며, 제주방언에 나타나는 자음 등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을 기준으로 나눠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평음	경음						
장애음	파열음	평음		ㅂ	ㄷ		ㄱ	ㅎ	
		경음		ㅃ	ㄸ		ㄲ		
		유기음		ㅍ	ㅌ		ㅋ		
	파찰음	평음					ㅈ		
		경음					ㅊ		
		유기음					ㅊ		
	마찰음	평음				ㅅ			ㅎ
		경음				ㅆ			
	공명음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표 2〉 제주방언의 자음 체계

자음 체계를 마무리하기 전에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개음으로 실현되는 ‘ㅅ’, ‘ㅆ’과, 어두 위치에 있으면서도 ‘ㅣ’ 모음 앞에서 ‘ㄴ’을 유지하는 자음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ㅅ’과 ‘ㅆ’이 일정 모음 앞에서 구개음 [ʃ], [ʃʷ]로 나타나는 것을 다음의 예를 통해 확인해 본다.

- (3) ㄱ. 시[ʃi]: 시리[飢], 신[靴], 무시거[啥], 심[力], ㅆ심[料]²²⁾ 등
- ㄴ. 세[ʃe]: 세답(洗踏), 세~시[三], 셋바닥[舌面], 세상~시상(世上), 세뎡기(洗面器), 생복(生鰓), 고생(苦生), 곰생이[黴], 도세기[豚], 썩찌~세우지[立] 등
- ㄷ. 새[ʃe]: 새각시[嫫], 새끼~세끼[紉], 어린 짐승] 등
- ㄹ. 쉬[ʃwi]: 쉬[蠅卵], 쉬염[鬚], 쉬와[易] 등
- ㅁ. 췌[ʃwe]: 췌[牛], 췌막[牢] 등

- (4) ㄱ. 씨[ʃʷi]: 씨[種], 씨어멍[姑], 씨아방[舅], 씨누이[妯] 등
- ㄴ. 췌[ʃʷe]: (브름이) 췌여 노난~씨여 노난[強] 등
- ㄷ. 췌[ʃʷe]: 췌[鐵] 등

(3)은 치조음 ‘ㅅ’ 뒤에 ‘ㅣ, ㅑ, ㅓ, ㅕ, ㅗ’가 연결될 때 (4)는 치조음 ‘ㅆ’ 뒤에 ‘ㅣ, ㅑ, ㅗ’가 연결될 때 그 음성이 구개음 [ʃ], [ʃʷ]으로 실현되는 예이다. 이 글의 제보자 네 명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음성이며 제시한 예들은 [s], [sʷ]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이 방언의 ‘ㅅ, ㅆ’은 전설모음 ‘ㅣ, ㅑ, ㅓ, ㅕ, ㅗ’ 앞에서 치조구개음 [ʃ], [ʃʷ]이 실현되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다. ‘ㅅ, ㅆ’은 ‘ㅣ’, ‘y’에 선행하는 환경에서만 구개음 [ʃ], [ʃʷ]으로 실현되고, 그 외의 환경에서는 치조음 [s], [sʷ]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3), (4)의 예에서 확인한 것처럼 치조음 ‘ㅅ’ 뒤의 ‘ㅣ, ㅑ, ㅓ, ㅕ, ㅗ’

22) ‘ㅆ심’은 ‘ㅆ슴’, ‘ㅆ음’, ‘ㅆ음’ 등의 형태로도 실현되는데 현대국어의 ‘감’이 ‘ㅆ슴>ㅆ음>ㅆ음>가음>감’으로 변한 것이라면 제주방언에서는 16세기 이후 유성마찰음 ‘Δ’이 소멸할 때 ‘ㅅ’ 유지형과 ‘ㅅ’ 탈락형이 모두 나타나 한쪽은 ‘ㅆ음’으로 한쪽은 ‘ㅆ슴’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 ‘ㅆ심’은 ‘->ㅣ’의 변화를 거친 것이다.

의 연결과 치조음 ‘ㅍ’ 뒤의 ‘ㅣ, 꺾, 꺾’의 연결은 이 방언에서 구개음화가 일반적으로 실현되는 환경보다는 더 넓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어두 위치에서 ‘ㄴ’이 실현되는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어의 경우에는 ‘ㄴ’에 ‘ㅣ/y’가 결합되는 어휘에서는 ‘ㄴ’이 모두 탈락한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제주방언에는 어두 위치의 ‘ㄴ+ㅣ’의 음절 구조를 꺼리지 않는다. 이를 크게 세 가지 ‘이[齒]’, ‘네[四]’, ‘그 외’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5) ㄱ. 이[齒] 관련: 니, 니빨, 니치름²³⁾, 닛몸, 닛굽, 닛자국, 니쑤시게 등
- ㄴ. 네[四] 관련: 니 개, 니 번, 니커리[네거리], 니콜방에²⁴⁾ 등
- ㄷ. 그 외: 니[蝨], 니껌[餌], 니사무소~리사무소(理事務所)²⁵⁾, 닐(來日), 닐모리[再明日] 등

(5)는 제주방언의 ‘ㅣ’ 모음 앞에서 어두의 ‘ㄴ’이 실현되는 예를 각각 이[齒]와 관련된 체언²⁶⁾, 네[四]와 관련된 체언, 그 외의 체언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5ㄱ)은 체언 ‘이[齒]’와 관련된 어휘에서는 언제나 ‘니’가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방언에 따라 어두의 ‘ㄴ’이 유지되는 양상은 조금씩 다른데²⁷⁾ 제주방언에서는 체언에서 역사적으로 어두 위치의 ‘ㄴ’이 모음 ‘ㅣ’ 앞에서 본음을 그대로 유지²⁸⁾하고

23) ‘니치름’은 어린 아이나 소가 질질 흘리는 침을 가리킨다. ‘날 더웁 쉼 끄시민 쉼 니치름만 찰찰(날이 더워서(더울 때) 소를 끌면 소가 침만 질질)’ 등 제보자의 구술 발화에서 확인된다.

24) 네 사람이 둘러서서 서로 절굿공이가 부딪치지 않게 간격 맞추어 짚어 넣으면서 방아를 짚는 일을 말한다. ‘니 사름이 방에 짚는 거가 니콜방에라(네 사람이 방아 짚는 것이 ‘니콜방에’야.’와 같은 설명을 제보자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현평효 외(2009)에는 같은 의미로 ‘네콜방에’도 실려 있다.

25) 제주방언에서는 어두 위치에 ‘ㄴ+ㅣ’의 구조가 단 하나의 어형에서 실현되는데 그 사용 빈도가 높다. 어두 위치의 ‘ㄴ’은 ‘ㄴ>ㄴ>∅’이 형태로의 변화가 일반적이지만 제주방언에서는 ‘리사무소~니사무소’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어형은 ∅로의 형태 변화 즉 ‘이사무소’는 보이지 않는다. 최소연(2020:15-16)에서는 안악 지역어에서 어두 위치에서 ‘ㄴ’이 ‘이/y’로 나타나는 경우가 소수 존재하나 대부분의 경우 ‘ㄴ>ㄴ’의 변화를 거쳐 ‘ㄴ’이 탈락한다고 하였다. 안악 지역어에서 존재하는 ‘ㄴ’은 한자어 어두의 ‘ㄴ’이 유지된 성씨에 쓰이는 ‘류[柳]’나 ‘리별~이별(離別)’ 정도인데 이때의 ‘ㄴ’ 실현은 중국어 발음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안악 지역어에서의 ‘ㄴ’ 실현은 언어 접촉이 일어나는 지역의 환경으로 비음운론적인 측면에서 어두 분포 제약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방언에서의 유일한 ‘리사무소(~니사무소)’의 존재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다른 언어의 영향도 아닌데 제보자에게서 여전히 우세형인 ‘리사무소’가 실현된다. 한편 ‘리사무소’의 실현과 관련해 발음이 가능할 것으로 유추되는 ‘리장’은 발화되지 않는다.

26) 현평효 외(2009)에는 구개음화된 [ɲ]를 모두 ‘닉’로 표기하였다.

27) 고흥방언의 경우 ‘ㄴ’은 뒤에 반모음 y가 오면 그것과 축약되어 구개음(정확히는 치조구개음) [ɲ]로 나타나고 비어두 ‘이’ 앞에서도 [ɲ]로 실현되며 그 외에는 [n]으로 실현된다(배주채, 1998:20-21). 황해도 안악 지역어에서는 역사적으로 어두 위치에 있던 ‘ㄴ+ㅣ/y’였던 단어에서 어두의 ‘ㄴ’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최소연, 2020:14).

있다. 또한 (5ㄴ)의 ‘네[四]’와 관련된 어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ㄱ’의 고모음화가 나타나 ‘ㅣ’로 바뀐 경우에도 어두의 ‘ㄴ’이 유지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니커리’, ‘니콜방에’에서처럼 합성어에서도 ‘ㄱ>ㅣ’의 변화는 유지되며 ‘니’로 실현된다. (5ㄴ)의 ‘ㄴ’은 음성적으로 구개음화된 [n]으로 관찰된다. 원래부터 ‘ㅣ’가 아닌 다른 모음에서 변한 ‘ㅣ’ 앞에서는 구개음화가 잘 실현되지 않으나 제주방언에서는 ‘ㄱ’이 ‘ㅣ’로 고모음화가 되었을 때에도 ‘ㄴ’의 구개음화가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3)의 ‘시[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주방언에서는 ‘세’, ‘네’가 각각 구개음화된 ‘시[ʃi]’, ‘니[ni]’로의 실현을 확인할 수 있다. (5ㄷ)은 어두의 ‘ㄴ+ㅣ’가 발음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항상 ‘니’로 발음되는 예이다. 이상의 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제주방언에서는 ‘ㄴ+ㅣ’가 활발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방언에서 반모음 ‘ㅣ’를 가진 ‘ㄱ’, ‘ㄱ’ 앞에 ‘ㄴ’이 있을 때는 모두 ‘ㄴ’이 탈락한 형태인 ‘여’, ‘예’로 실현되나 ‘ㅣ’ 모음 앞에서는 ‘니’로 발음되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2.2. 모음 체계

이제 제주방언에 존재하는 모음을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언급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제주방언에서 음장은 시차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정승철, 1988:69). 이 글의 조사에서도 이 방언의 음장의 존재와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몇 차례 국립국어원(2006)의 자료를 바탕으로 ‘눈[目]:눈[雪]’, ‘밤[夜]:밤[栗]’, ‘손[客]:손[手]’ 등과 같은 대립쌍을 가지고 예비 조사를 해 보았다. 그러나 제보자들에 따라 각각 대립쌍의 장단이 다른 형태로 실현되거나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하는 등의 결과로 이 방언의 음장은 논할 차원은 아니었다²⁹⁾. 다른 방언에서 운율적 자질로서 기능하는 음장은 제주방언에서는 큰 의미가

28) 小倉進平(1931)도 어두에서 ‘[ni]’ 발음되는 것이 제주방언의 특색이라고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진호 역주(2009:518)에서는 ‘ㄴ’이 ‘ㅣ’와 결합하는 것은 ‘니[齒]’, ‘니[齒]’와 같은 단어에서 원음인 ‘ㄴ[n]’을 보존한다고 기술하였다.

29) 제보자 각각에게서 ‘X허다’(예: 크큰::허곡, 낱작:허주, 코시룽::허여, 한한::허다 등)의 형태로 표현적 장음이 실현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것은 음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보상적 장모음화의 실현 등과 함께 논의할 것은 아니다.

없다. 공시적인 관점에서 음장은 변별적이지 않으므로 이 글 또한 제주방언의 음장과 운소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제주방언의 모음 체계를 논의한다.

2.2.1. 단모음 체계

국어 하위 방언의 모음 체계는 최대 10모음 체계부터 최소 6모음 체계를 가진다. 이 가운데 제주방언은 전설 원순모음을 빈칸으로 둔 ‘ㅣ, ㅐ, ㅑ, —, ㅓ, ㅕ, ㅗ, ㅛ, ㅜ, ㅠ’ 9개의 단모음을 가진다. 이 가운데 ‘·’는 늘 관심이 대상이 되어 왔다. 실제 제주방언 화자들이 발화하는 ‘·’가 이전 시기의 ‘·’의 음성과 일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으나 다른 방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음소로서 ‘·’가 존재한다는 것은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

제주방언의 모음에 대한 연구는 이송녕(1957), 현평효(1964, 1970), 정승철(1988, 1995) 등에서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중점 내용의 하나는 일관되게 제주방언의 노년층의 언어에서는 단모음 체계로서의 9모음 체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³⁰⁾.

조성문(2008) 등에서도 9모음 체계를 설정한 바 있으며 비교적 최근의 제주방언 모음에 관한 연구인 신우봉(2015)에서도 여전히 제주방언 노년층 화자가 성별, 지역별 차이 없이 9모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음성 실험을 통해 밝혔다. 다만 신우봉(2019)은 제주방언의 단모음 체계는 노년층의 9개의 단모음 체계에서부터 젊은층으로 갈수록 더욱 ‘ㅐ’와 ‘ㅑ’의 변별력을 잃어가는 것과 ‘·’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볼 때 9모음 체계에서 7모음 체계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았다.³¹⁾

남원읍 지역 화자의 말에서는 모두 9개의 단모음이 음소 기능을 하고 있음을 다음

30) 홍성해(1987)만 유일하게 이 방언의 모음을 8모음 체계로 보았다. 단모음 ‘ㅐ’와 ‘ㅑ’는 구별이 불가능하여 모두 ‘ㅐ’로 실현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홍성해(1987)의 제보자의 거주지가 모두 비교적 표준화의 영향을 빨리 받는 제주시인 삼양동, 화북동, 도평동이라는 점, 제보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8모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31) 제주방언의 화자 중 대체로 50대 중반 이하의 방언 화자들은 단어의 어두 음절에서도 ‘ㅐ’와 ‘ㅑ’를 구별하지 못하고 ‘ㅐ[E]’로 발음하며 40대 중반 이하의 방언 화자들은 ‘ㅐ’와 ‘ㅑ’뿐만 아니라 ‘ㅓ’와 ‘·’를 구별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젊은층에게는 7모음 체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현대 제주방언에는 노년층의 9모음 체계와 젊은층의 7모음 체계가 공존하고 있다(정승철, 1995:53)는 점이다. 현평효(1964)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체계 변화는 정승철(1995)의 연구로부터 20년이 흐른 신우봉(2015), 문순덕 외(2015)에서도 동일하다. 정승철(1995:28)은 제주방언의 모음 체계 변화는 체계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변화인 것이라 하였다.

의 최소 대립쌍·최소 대립군을 통해 확인하였다.

- (6) ㄱ. ㅣ:꺀:꺁-시(市):세[舌]:새[茅]³²⁾, 시-[酸]:세-[算]:새-[曙]
 ㄴ. 꺀:꺁-매[飯]³³⁾:매[鞭]³⁴⁾
 ㄷ. ㅡ:ㅏ:ㅑ-글[文]:걸[擲柳]:굴[蟻], 늘-[增]:널-[鋪]:늘-[補]
 ㄹ. ㅓ:ㅕ-붓[筆]:붓[胎], 순[筍]:손[手]
 ㅁ. ㅈ:ㅊ-싸-[點燈, 汐, 低]:쏘-[射], 밤[夜]:봄[春]
 ㅂ. ㅈ:ㅊ-말[言]:말[馬]
 ㅅ. ㅈ:ㅊ:ㅅ-갈-[耕]:골-[躄]:굴-[磨], 낫[鋤]:낫[鋤]:낫[顏]

(6)에 제시한 제주방언의 체언, 용언의 형태는 최소 대립쌍·최소 대립군을 이룬다. 이 방언 화자들은 ‘ㅣ, 꺀, 꺁, ㅡ, ㅏ, ㅑ, ㅓ, ㅕ, ㅈ, ㅊ, ㅅ’ 9개의 단모음을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본 제주방언의 모음을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이 등으로 구분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이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ㅣ		ㅡ	ㅓ
중모음	꺀		ㅏ	ㅕ
저모음	꺁		ㅑ	ㅅ

〈표 3〉 제주방언의 단모음 체계

32) ‘새’는 최소대립쌍 변별을 위한 조사에서는 ‘꺁’로 완전히 실현되나 빠른 발화에서는 중간음[E]으로도 나타났다. 이것은 ‘꺀’가 ‘꺁’과 합류되는 변화의 과정에 놓인 것을 보이는 예라고 판단된다.
 33) 정승철(1988, 1995)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보자들로부터 “뜨리는 매영 제스 때 올리는 매 트난 거 주게.”라는 발화를 얻었다. ‘매[鞭]’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고, ‘매[飯]’는 16세기-18세기에 ‘ㅏ’로 존재했던 모음이 20세기 이후 ‘꺀’로 변화한 것이다. 한편 ‘매[鞭]’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 것으로 18세기 1음절의 ‘ㅅ’가 ‘ㅑ’로 변화했는데 이 변화 이후 ‘ㅅ’와 ‘ㅑ’의 표기가 혼란되었던 시기 잠시 ‘ㅑ’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34) ‘매[鷹]’도 단모음 ‘꺁’을 가진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제주방언에서 전설모음에 해당하는 원순모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부방언을 비롯한 몇몇 방언에서 나타나는 전설 원순모음인 ‘꺄’, ‘꺈’는 제주방언에서는 이중모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를 후설의 원순 저모음 [ɒ]로 설정하려 한다.

이제 개별 단모음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전설 평순 중모음 ‘꺈’와 전설 평순 저모음 ‘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7) 흔들리는 단모음 ‘꺈’와 ‘꺈’

- ㄱ. 개[犬], 개갯[浦邊], 개판(蓋板), 대[竹, 大], 대승[大斗], 새백[農] 등
- ㄴ. 개-[霏, 叢, 混], 깨-[破, 醒], 배-[孕], 빼-[拔], 새-[曙], 재-[測, 依, 速] 등

(7)에서 제시한 예처럼 전설 평순 저모음 ‘꺈’를 가진 체언 어간 및 등의 용언 어간 등에서 ‘꺈’는 분명히 실현됨을 확인하였다. 변별적 특징을 가진 별개의 음소로 대립되고 있으므로 즉 단어 구분의 기능을 가진 개별 음소 ‘꺈[e]’와 ‘꺈[ɛ]’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내(E)-[送], 지내(E)-[送]’ 등과 같은 2음절 이하의 용언 어간 등에서는 ‘꺈’와 ‘꺈’의 구분이 쉽지 않았다. 즉, 이 글의 제보자에게 1음절의 ‘꺈’와 ‘꺈’는 분명히 변별성이 있는 음소이나 2음절 이하에서는 원래 ‘꺈’ 음을 가졌던 것들이 변별성을 잃어 ‘E’로 실현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꺈’와 ‘꺈’의 조음 위치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³⁵⁾. 그렇다고 해서 ‘꺈’가 ‘꺈’로 실현되는 경우는 없다. 이것은 3장 용언 어간의 기저형도 2음절 이하에서는 전부 ‘꺈’로 표기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사실 현평효(1964)에서부터 언급되어 왔으며 정승철(1995:28-29)도 어두음절에서만 ‘꺈’와 ‘꺈’의 대립이 유지될 뿐 비어두음절의 ‘꺈’와 ‘꺈’는 중간음 ‘[E]’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비어두에서 시작된 ‘꺈’의 ‘꺈’의 합류는 그 위세를 떨쳐 나가고 있다. ‘꺈’는 모음 상승이 일어나 ‘꺈’로 합류되는 과정에 놓였다. 아직까지는

35) ‘꺈’와 ‘꺈’가 음성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변하는 데에는 타 방언과의 접촉, 세대 차이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된다. 중부 방언을 비롯한 전 방언에서 이미 ‘꺈’와 ‘꺈’가 합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주지하듯이 제주방언의 경우 모음의 세대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이다. 모음 체계의 변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논의가 필요하다.

노년층의 발화 가운데 어두의 ‘ㄱ’와 ‘ㄷ’은 존재하고 있으나 이 대립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8) 소실 위기에 처한 ‘·’

ㄱ. 마심[의]마슴[料], 마세[鍊], 골체[簞], 곰-[洗髮, 髻], 곤-[日], 마트-의마뜨-[如], 마꾸-[畜] 등

ㄴ. 제스(祭祀), 농스(農事), 여즈(女子), 남즈(男子) 등

ㄷ. 스삼사건(四三), 스 년(四年), 스 월(四月), 스십 일(四十日), 스주(四柱), 스춘(四寸) 등

제주방언의 ‘·’는 제주방언의 모음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을 보여 많은 관심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바로 위에 제시한 (8)은 ‘·’가 발음되는 체언 및 용언 어간의 예를 보인 것으로 (8ㄱ)과 같이 ‘·’는 어두의 ‘ㄱ’ 뒤에서 그 원순성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8ㄴ)은 2음절 이하에서 ‘·’가 실현되는 것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한자어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8ㄷ)은 한자음 사(四)가 ‘·’로 발음되는 예이다. 한편 이외에도 ‘·’는 小倉進平(1931)가 지적한 것처럼 ‘즈동차’, ‘즈전거’ 등과 같이 원래 기원적으로 ‘·’가 아니었던 음에서도 실현되는 것도 확인되었다.

‘·’의 음성적 위치 등은 김원보(2006), 고동호(2008), 신우봉(2015), 문순덕 외(2015)에서 이미 자세히 고찰한 바 있다. 다만 이 글에서 기술하고자 하는 바는 ‘·’는 앞서 단모음 ‘ㄱ’, ‘ㄷ’과 마찬가지로 그 존재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고동호(2008)에서는 ‘·’가 70대 화자의 발화에서는 1음절에서는 그대로 보존되고 있지만 2음절 이하에서는 ‘·’, ‘·>ㄱ’, ‘·>ㄴ’의 변화 과정에 놓여 있다고 밝힌 바 있다. 50대의 발화에서는 1음절에서 ‘·>ㄴ’, 2음절에서 ‘·>ㄱ’로 바뀌었으며 20대에서는 ‘·’의 흔적을 1음절의 ‘ㄴ’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도 마찬가지로 고동호(2008)에서 이미 ‘·’의 위치가 세대별에 따라 흔들렸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에서도 (8ㄴ)의 예들은 ‘여즈~여저(女子)’, ‘남즈~남저(男子)’, ‘농스~농서(農事)’ 등과 같이 2음절에서 ‘·’와 ‘ㄱ’를 가진 형태가 공존해 있음을 관찰하였다. 또한 (8)에서 제시한 예들과 후술하는 3장의 체언, 용언 어간의 예 외에 ‘·’가 나타나는 어형들은 쉽게 찾지 못한다. 이 말은 ‘·’ 역시 ‘ㄱ’과 ‘ㄷ’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진행 중인 음 변화에 놓여 있으며 그 음 변화는 소실에 매우 가깝게 닿아 있는 듯함을 알려준다.

2.2.2. 이중모음 체계

2.2.2.1. 반모음 체계

제주방언에는 다른 방언과 마찬가지로 반모음 ‘y’와 ‘w’가 존재한다. 반모음은 그 자체로는 음절을 이루지 못하므로 이중모음과의 결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중모음을 형성하지 않고는 쓰이지 않는다. 먼저 제주방언에 존재하는 반모음을 최소 대립쌍을 통해 확인해 본다.

(9) ㄱ. ㅑ:나-양(羊)[yaŋ]:왕(王)[waŋ]

ㄴ. y:∅-열-[開]:얼-[凍], 야이-(이 아이):아이[童]

(9)의 ‘양:왕’을 통해 반모음 ‘y’와 ‘w’가 대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명옥(1982:99)의 반모음의 최소 대립쌍 제시한 것을 따라 조사하였다. 물론 이진호(2010a)에서 ‘양’과 ‘왕’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최소 대립쌍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ㅑ’, ‘나’의 최소 대립쌍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고, 최소연(2020:17)에서처럼 제보자들이 ‘양’과 ‘왕’을 고유어와 한자어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양:왕’의 최소 대립쌍을 설정하여 ‘y:w’의 모습을 확인하였다. 한편 (9ㄱ)의 내용을 보충하는 자료로 (9ㄴ)처럼 y가 존재하는 ‘열-[開]’과 그렇지 않은 ‘얼-[氷]’, 야이(이 아이):아이[童]에서도 반모음 ‘y’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방언의 반모음 체계를 혀의 위치, 입술 모양을 고려하여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조음 위치 \ 조음 방법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y	
원순		w

〈표 4〉 제주방언의 반모음 체계

2.2.2.2. 이중모음 체계

다음으로 제주방언에 나타나는 이중모음을 살펴본다. 제주방언에 나타나는 이중모음은 y계 ‘꺀, 꺈, 꺉, 꺊, 꺋, 꺌, ..’ 7개와 w계 ‘꺑, 꺓, 꺕, 꺗, 꺙’ 5개, 모두 12개가 있다. 제주방언에는 단모음 ‘꺏’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주방언의 이중모음에는 y계 이중모음과 w계 이중모음으로 ‘반모음+단모음’의 구조를 가진 상향 이중모음이 존재한다. y계 이중모음과 w계 이중모음의 존재는 다음과 같이 그 예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y’계 상향 이중모음을 확인해 본다.

(10) ‘y’계 상향 이중모음의 예

- ㄱ. 꺀: 예[呼], 예편(女便), 예의[예이](禮義), 예순[六十]
- ㄴ. 꺈: 얘기[話]³⁶⁾
- ㄷ. 꺉: ㄹ녀[先], 아녀-[否], 여[暗礁], 여시[狐], 여유(餘裕), 여즈~여저[女子], 옛날[연날][昔]³⁷⁾, 옛[飴], 연락[열락](連絡), 연(鳶), 즘녀[海女]
- ㄹ. 꺊: 야게기[頸], 야이(이 아이)³⁸⁾, 얄롭-[薄], 양[添辭], 양념~양님[加味], 저녁[夕]

36) 모든 제보자에게서 ‘얘기’는 분명히 이중모음으로 실현되었으나 이중모음 ‘꺈’는 이것 외에는 예를 찾아내기가 어려웠다. 다만 정승철(1988:14)과 마찬가지로 제주방언의 단모음 ‘꺀’와 ‘꺈’가 분명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이중모음 ‘꺀’와 ‘꺈’ 또한 대립하는 것으로 인정하고자 한다.

37) 이중모음 ‘옛날[연날]’도 확인되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옛날[연날]’이다.

38) 현대 국어의 ‘이 애’는 ‘애’로 하나의 명사구 내부에서 반모음화가 일어난 것이고 제주방언의 ‘야이’는 명사구 ‘이 아이’의 내부에서 반모음화가 이루어져 ‘야이’로 출현한 것이다. 이 둘은 모두 통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송철의(1995:281)에서는 ‘이 아이’는 ‘야이’로 축약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제주방언에서는 언제나 ‘야이’로 실현되는 점이 매우 특기할 만하다.

- ㄹ. ㅍ: 골류-[使均], 늘류-[使增], 낙류-[使降], 말류-[使乾], 불류-[使踏], 서늑[飾], 석유[세규](石油), 얼류-[使氷], 유썸(갯잎), 육지[陸], 운디 [燙], 종류[종뉴](種類)
- ㅂ. ㅍ: 모욕(沐浴), 요(褥), 요강[械], 요눔(이눔), 요왕님(龍王), 요새[E], 요 자기(요사이), 욱(辱)
- ㅅ. ㅍ: 으답~으뎡(~여답~여뎡)[八], 으라~여라[累], 으망지~여망지-[懶], 으숯[六]³⁹⁾, 옥-~역-[成熟], 올-~열-[開, 實]⁴⁰⁾, 음-~염-[稔], 음 치~염치(廉恥), 옷세[六日]

(10)은 제주방언에서 ‘y’계 상향 이중모음 ‘궐, 궐, 궐, 궐, ㅍ, ㅍ, ..’ 7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방언에서 y계 상향 이중모음은 어두 위치, 비어두 위치에서 나타난다. 또한 ‘ㄴ’과의 결합을 꺼리지 않는다. (10ㄷ)의 ‘ㄴ녀[先], 아녀-[否], 즘녀 [海女]와 (10ㄹ)의 ‘양념~양념[加味]’ ‘저녁[夕]’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어두 위치의 자음 ‘ㄴ’ 뒤에서도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0ㄱ)을 보면 이중모음 ‘ㅍ’가 비어두의 ‘ㄹ’ 뒤에서도 ‘골류-’, ‘늘류-’, ‘낙류-’, ‘말류-’, ‘불류-’, ‘얼류-’ 등에서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10ㅅ)의 이중모음 ‘..’는 ‘..’이 있는 자리에 ‘궐’가 공존하는 쌍형으로 더 많이 존재한다. 이 방언 화자들은 ‘..’와 ‘궐’ 둘 모두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궐’의 변화는 머지않아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단 (10ㅅ) 가운데 체언 ‘으숯[六]과 ‘옷세[六日]’는 ‘으답~으뎡(~여답~여뎡)[八]과 달리 ‘궐’로 발음되지 않는 점은 흥미롭다.

다음으로 ‘w’계 상향 이중모음을 확인해 본다.

(11) ‘w’계 상향 이중모음의 예

- ㄱ. 귀: 귀[耳], 궐-[屁], 쉬-[休], 위(胃), 위미리(爲美里)
- ㄴ. 궐: 궐(櫃), 궐당(眷黨), 누궐(~누에)[蠶], 뉘[升], 뉘장(醬), 궐(瓜), 궐(膾), 궐손지(外孫子), 궐가칩(外家), 윈수(怨讎), 윈착[左], 궐울르-[警]

39) 현평효(1964:44)는 ‘으숯’을 설정하였으나 이 글의 조사에서는 2음절에서 ‘.’가 ‘ㄴ’로 변화한 ‘으숯’을 얻을 수 있었다.
40) ‘열-’로 기저형을 설정했을 때도 모음 어미와의 결합에서는 여전히 이전 시기의 활용형을 따라 ‘열아[여라]’로 실현된다.

- ㄷ. ㄴ: 꺾(깨), 왜국(倭國), 왜놈(倭)
- ㄹ. ㄱ: 꿩[雉], 원[垣], 월세[月貰]
- ㅁ. ㄷ: 과질[果列], 사과(沙果), 와리-[急], 와상와상(의성어), 왕(王), 왕왕
[嚙]

(11)을 통해 ‘w’계 상향 이중모음 ‘ㄱ, ㄴ, ㄷ, ㄹ, ㅁ’가 확인된다. (11ㄱ)은 다른 방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1ㄴ)은 ‘w’계 상향 이중모음 ‘ㄴ’이 실현되는 예이다. 중앙어나 일부 방언에서 단모음 ‘ㄴ’으로 실현되는 어휘 ‘뮌[升]’, ‘뮌장(醬)’, ‘뮌(膾)’, ‘웨손지(外孫子)’, ‘웨가칩(外家)’, ‘웁착[左]’ 등은 이 방언에서 모두 이중모음으로만 나타난다. (11ㄴ)의 ‘웁당(眷黨)’, 웁수(怨讎)’ 등은 ‘ㄴ’의 형태로만 실현됨을 알 수 있다. (11ㄷ)의 ‘꺾’은 중앙어의 ‘깨’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상향 이중모음 ‘꺾’으로 나타난다. ‘왜국(倭國)’과 ‘왜놈(倭)’의 이중모음 ‘왜’와 ‘웨손지(外孫子)’, ‘웨가칩(外家)’의 이중모음 ‘웨’는 전설 평순모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나 혀의 높이의 차이에서 변별됨을 확인할 수 있다.

(10), (11)에서 확인한 이중모음의 예를 통해 혀의 앞뒤, 혀의 고저, 입술 모양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한 제주방언의 이중모음 체계⁴¹⁾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이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ㅍ
중모음	꺾		꺾	꺾
저모음	꺾		꺾	꺾

〈표 5〉 제주방언의 ‘y’계 이중모음 체계

41) 정승철(1998:14)은 제주방언의 이중모음 가운데 ‘yi’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y’의 자질과 ‘i’의 자질이 [-back, +high]로 중복되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한 이중모음 ‘wu, wo, we’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 또한 ‘w’의 원순성과 ‘u, o, e’의 원순성의 중복으로 결국 체계상 ‘yi, wu, wo, we’의 자리는 비어 있게 된 것이다. 한편 ‘yi’와 ‘wi’도 실현이 되지 않는데 이것은 뚜렷한 이유없이 체계상 존재하지 않는 우연한 빈칸이라 설명하였다.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이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꺀			
중모음	꺁		꺂	
저모음	꺃		꺄	

〈표 6〉 제주방언의 ‘w’계 이중모음 체계

제주방언의 이중모음 체계를 마무리하며 이 방언에서 더 이상 발음되지 않는 하향 이중모음 ‘ㄴ’에 대해 짧게 기술하고자 한다.

- (12) ㄱ. 의사(醫師), 의미(意味), 의자(椅子), 의지(依持), 의논(議論), 의원(醫院)
 ㄴ. 명의(名醫), 회의(會議), 예의(禮義), 정의(旌義), 중의(中衣)

(12ㄱ)는 어두 위치에서 ‘ㄴ’을 가지는 어휘, (12ㄴ)는 비어두 위치에서 ‘ㄴ’을 가지는 어휘를 제시한 것이다. (12ㄱ)의 어두 음절에 ‘ㄴ’을 가지는 ‘의사(醫師), 의미(意味), 의자(椅子), 의지(依持), 의논(議論), 의원(醫院)’ 등은 이 방언 화자에게서 ‘[으사] 또는 [이사], [이미], [이자], [이지], [이논], [이원]’으로 실현되었다. 문순덕(2015:89)는 어두 위치의 ‘ㄴ’은 대부분 ‘ㄴ’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기술하였으나 이때 음성 분석을 한 어휘가 ‘의사’와 ‘의중’ 두 단어에만 한정되었으므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 글의 조사를 통해서도 어두 위치에서의 ‘ㄴ’은 ‘ㄴ’ 또는 ‘ㄴ’로만 관찰되었고, []로 실현이 더욱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2음절 이하에서 확인되는 ‘ㄴ’은 (12ㄴ)처럼 ‘명의(名醫), 회의(會議), 예의(禮義), 정의(旌義), 중의(中衣)’ 등으로 그 실현 양상을 확인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로만 발음되었다. 정승철(1995:92)에서는 제주방언에서 하향 이중모음 ‘ㄴ’은 비어두음절에서 음절두음으로 자음을 가지지 않을 경우에만 실현되며 그 예로 ‘아의(童), 예의(禮義), 정의(旌義)’ 등과 같은 예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ㄴ’을 가진 어형들은 어두 위치에서 ‘ㄴ’나 ‘ㄴ’으로 실현되는데 2음절 이하에서 ‘ㄴ’의 음가를 유

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이 글에서는 공시적인 관점에서 제주방언의 하향 이중 모음 ‘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ㄴ’와 관련해서 제보자들의 발화 중 포착된 흥미로운 점이 존재한다. 남원읍 지역의 마을명인 ‘의귀리(衣貴里)’는 남원읍 제보자들에게서 모두 2음절의 ‘귀’와 1음절의 ‘ㄴ’이 교체된 형태인 ‘위귀리’ 또는 ‘이귀리’로 실현된다. 강창석(1984:201-202)의 논의를 적용하면 ‘의귀리’가 ‘위귀리’와 같이 실현되는 현상은 국어 화자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도치에 의한 실수 발화라고 볼 수 있으며 음절을 고려할 때 기술이나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다른 어휘에서의 도치 현상은 찾지 못하였으나 여러 차례 발화된 ‘위귀리’의 실현이 독특하다.

3. 어간의 기저형

생성음운론의 주된 임무는 기저형(underlying form)으로부터 일정한 음운 과정을 거쳐 표면형(surface form)이 도출되는 과정을 보이는 것이다. 기저형은 표면에서는 실현되지 않는다. 다만 표면형이 실현되는 여러 단계의 과정에서 그 출발점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방언의 음운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 방언에서 사용되는 어간의 기저형을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 공시적인 기술은 기저형에서부터 표면형의 순서를 가지나 실제 작업은 표면형 분석을 통한 기저형 설정의 순서를 거친다(강창석, 1984:221).

3장에서는 최명옥(2008b:164-166), 이진호(2008:122-134)의 기저형 설정 기준 및 조건을 근거로 하여 제주방언의 체언 어간, 용언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⁴²⁾한다. 기저형을 도출할 때에는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으로 구분하고, 한 형태소의 기저형이 하나인 경우에는 단수 기저형, 둘 이상의 경우에는 복수 기저형으로 구분(이진호, 2015:248-249)하고자 한다.

한편 이 글에서는 제주방언의 어간의 기저형에 한해 살피며 기저형 도출에 확인되는 조사 및 어미의 수에도 제한을 둔다. 하나의 어간과 조사 또는 어미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다양한 곡용형과 활용형은 어간의 교체형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나 그 형태들의 수가 적지 않으며 또 특별한 목적 없이 한 어형의 곡용형과 활용형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비경제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일정한 환경에 따라 분류해 이해하면 곡용형, 활용형이 보이는 음운 과정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배영환, 2008).

이에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조사와 어미 몇몇을 통해 곡용과 활용의 양상을 보이고 그것을 통해 체언 어간과 용언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조사나 어미는

42) 이 장에서 제시하는 체언과 용언 어간 가운데 파생 어간과 복합 어간이 일부 제시되었음을 미리 밝힌다. 한편 명백하게 다른 어간이지만 형태가 같고 활용 양상이 같은 경우는 음운론적 논의에서는 달라지는 바가 없으므로 ‘[]’ 안에 한자를 병기하여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정도만을 표시하고자 한다.

두음에 따라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또는 어미(이하 자음 조사 또는 어미),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또는 어미(이하 모음 조사 또는 어미), 매개 모음 ‘ㅡ’로 시작하는 어미(이하 매개 모음 어미)⁴³⁾로 1차 분류한 뒤 이들 세 부류의 어미를 충분히 고려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는 배영환(2008)에 논의에서 그 타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들을 먼저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분류	조사 목록
자음 조사	-광, -도, -보다, -부터(~~부떠)
모음 조사	-이 ⁴⁴⁾ , -에 ⁴⁵⁾
비음 조사	-만, -마다
매개 모음 조사	-으로 ⁴⁶⁾ , -을

〈표 7〉 체언의 기저형 설정에 사용되는 조사

- 43) 매개 모음 어미는 어간말의 ‘ㅡ’ 탈락, ‘ㄹ’ 탈락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매개 모음 어미가 ‘ㅡ’로 시작한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다. 매개 모음 어미는 임석규(200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X’형과 ‘-으X’형이 공존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이상신(2008:40), 배영환(2008)과 마찬가지로 ‘ㅡ’로 시작하는 단일 기저형의 매개 모음 어미로 보고 논의를 진행한다. 즉, ‘-으X’를 기저형으로 삼아 특정한 환경에서는 탈락하는 현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생성음운론의 관점에서는 기저형 ‘-으X’가 규칙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설명력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44) 모음 조사 ‘-이’는 다른 방언들과 마찬가지로 어간 말음이 자음일 경우에는 ‘-이’, 모음일 경우에는 ‘-가’가 연결된다. 다만 제주방언 가운데 ‘이것’, ‘저것’, ‘그것’처럼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데도 ‘-가’가 결합되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예를 들면 가리키는 대상이 ‘사과(沙果)’일 경우 [이거까 사과]라고 실현되는 것이다. 이 방언의 노년층 화자에게는 ‘것이[거시]’보다 ‘것가[거까]’가 더욱 자연스러운 발화이다.
- 45) 중앙어의 처격 조사 ‘-에’는 제주방언에서 몇몇의 체언 어간 뒤에서 ‘-이’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중앙어의 ‘앞+에→아페’는 ‘아페’로도 나타나지만 ‘앞+이→아피’의 형태가 더 자주 나타난다. ‘-이’는 중세국어의 이른바 특이 처격 조사의 후대형인데 그 흔적이 제주방언에 잔존해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국어 제 방언과의 비교·대조 등을 확인하고 또한 음운 현상을 밝히는 데에 조사 ‘-에’를 대표형으로 삼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46) 제주방언에서는 ‘-으로’를 의미하는 방향격 조사 ‘-드레~-더레, -레, -러레’가 존재한다. 음운론적으로 매우 특이한 이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조사는 순수 자음 말음 체언 어간 뒤에서는 ‘-더레~-드레’, ‘ㄹ’ 말음 체언 어간이나 개음절 체언 어간 뒤에서는 ‘-러레’ 또는 ‘-레’가 결합된다(정승철, 1995:179-180). 다만 이 글에서는 이들 조사와의 연결은 보지 않기로 하며 다른 방언과의 비교 내지 국어의 공통성 확인에 초점을 맞추어 처격 조사 ‘-에’와의 결합형을 중심으로만 기술하려 한다. 이 글에서는 소위 특이 처격 조사에 대한 내용은 조사의 기저형 모두를 설정하지 못하였으므로 논외로 하고(기저형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화자의 어휘부에 등재해 있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나중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한편 여기서의 매개 모음 조사 ‘-으로’는 도구격 조사이다. 제주방언 화자들이 사용하는 조사 ‘-으로’는 주로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조사·어미의 기저형을 설정하는 것 역시 향후 과제로 남긴다.

어미 분류	어미 목록
자음 어미	-곡 ⁴⁷⁾ , -지, -주, -당, -단
비음 어미	-는, -나 ⁴⁸⁾
모음 어미	-아도/어도, -아사/어사, -양/영, -안/언
매개 모음 어미	-으난, -으민 ⁴⁹⁾ , -으멍

〈표 8〉 용언의 기저형 설정에 사용되는 어미

위의 방법으로 단수 기저형, 복수 기저형을 설정할 수 없는 곡용형과 활용형, 특히 공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태들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그 해석으로 곡용형과 활용형 자체가 화자의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보려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러한 형태들의 각각은 따로 기술하지는 않겠으나 그 가운데 특이한 형태들 몇몇은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3.1. 체언 어간의 기저형

제주방언 체언 어간의 기저형은 표면형의 분석을 통해 어간의 기저형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글의 조사를 통해 얻은 곡용 체언 어간의 기저형을 다음에서 살피는데 이것은 각각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와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로 구분한다.

47) 어미 ‘-곡’은 표준어와 다른 방언에서 나타나는 어미 ‘-고’와 동일한 것이다. 이기문(1998:175)에서는 전후 나열을 나타낸 ‘-고’는 현대와 다름이 없으나 첨사 ‘ㄱ(강세)’가 ‘-고’ 뒤에 붙어서 ‘-곡’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현대 제주방언에서는 이 ‘-곡’이 중양어의 ‘-고’ 쓰임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또한 제주방언 노년층 화자에게서는 어미 ‘-고’보다 ‘-곡’이 더 많이 그리고 자주 사용되므로 여기서는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할 때 자음 어미 ‘-곡’을 대표형으로 삼고 어간과의 결합을 확인하고자 한다.

48) 비음 어미 ‘-나’는 모든 용언에 연결되는 어미는 아니다. 현평효 외(2009)에 따르면 ‘-나’는 받침이 있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나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상태를 직접 지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라고 설명되어 있으나 실제 이 어미는 주로 동사 어간에만 연결된다. 이 글에서도 제보자의 말 중 ‘-나’의 형태를 자주 확인할 수 있어서 일부 동사 어간의 기저형을 확인하는 데에 이 어미 ‘-나’의 연결형을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49) 어미 ‘-으민’은 중양어의 어미 ‘-으면’과 같은 형태인데 아주 드물게 ‘-으문, -으문’의 형태로도 나타난다는 논의가 있다. 김영돈(1957:42)의 자료에서도 어미의 기저형을 ‘-으문’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승녕(1957:62) 이후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또 실제 조사에서는 ‘-으민’의 형태만 포착되었다. ‘-으문’의 형태보다 표준어형인 ‘-으면’이 실현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으문’의 형태는 언급하지 않고, ‘-으민’의 형태를 대표형으로 삼아 어간과의 결합을 확인한다.

3.1.1. 자음·자음군으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제주방언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기저형은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음 ‘ㅂ, ㅍ, ㅁ’, 치조음 ‘ㅅ, ㄴ, ㄹ’, 경구개음 ‘ㅈ’, 연구개음 ‘ㄱ, ㅇ’으로 끝나는 기저형으로 나뉘어 살피고자 한다. 앞으로의 기술은 각 조음 위치에 따른 곡용 양상을 보여 기저형을 설정을 하고, 그 기저형 목록을 정리하여 제시하려 한다.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을 모두 보인 후 이어 자음군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기저형을 확인한다.

(13) 양순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곡용형

ㄱ. /Xㅂ/류: 까비, 까블, 감만, 감또	[價]
ㄴ. /Xㅍ/류: 으피, 으플, 음만, 음또	[側]
ㄷ. /Xㅁ/류: 노미, 노믈, 놈만, 놈보다	[他]

어간 말음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모음 조사와 결합한 형태를 확인한 후 그것으로 이형태의 실현 양상을 설명할 수 있으면 모음 조사와 결합한 형태를 최종 기저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설정 방법에 따라 양순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해 본다.

(13ㄱ)은 ‘ㅂ’으로 끝나는 어간의 ‘깍’의 곡용형으로 이형태 ‘깍, 감’이 확인된다. ‘깍’은 뒤에 오는 비음 조사 ‘-만’과 결합하면 공시적으로 비음화를 겪어 ‘ㅁ’으로 바뀐다. 한편 자음 조사 ‘-도’와의 결합에서 경음이 실현되는 것은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로 설명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13ㄱ)의 최종 기저형을 ‘깍’으로 설정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깍’은 중앙어에서 ‘값’으로 실현되는데 제주방언에서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ㅂ’ 말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형태⁵⁰⁾로 나타난다. 또 ‘깍’은 어두 경음화가 적용된 형태로만 발화된다. (13ㄱ)과 같은 /Xㅂ/류에 속하는 ‘으답[八]’도 확인된

50) ‘ㅂㅅ’으로 끝나는 어간이 ‘ㅂ’으로 끝나는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변화는 단독형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의 표면형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의 표면형까지 단일화되는 것으로 어간의 이형태의 수가 줄어드는 유추적 평준화의 예로 볼 수 있다(김수영, 2021:13).

다. 현대 국어에서 어간말 자음군 ‘ㄷ’을 가진 ‘으담[八]’은 이 방언에서 ‘ㅂ’으로 재구조화되었다. 제주방언을 제외한 다른 방언에서는 ‘ㄷ’을 남기는 방향으로 자음군 단순화를 겪었거나 일부 지역에서만 ‘ㄷ’의 어간말 자음군을 유지한 형태로 확인되지만(김수영, 2013:14) 제주방언에서는 어간말 ‘ㅂ’으로 재구조화되었다.

(13ㄴ), (13ㄷ) 또한 (13ㄱ)과 같은 방법으로 양순음 /Xㅍ/, /Xㅁ/류의 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13ㄴ)은 어간말 자음이 ‘ㅍ’으로 끝나는 경우로 주목할 만하다. /Xㅍ/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체언 어간은 ‘ㅂ’으로 재구조화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주방언에서도 이전 시기 ‘ㅍ’을 어간 말음으로 가지던 ‘잎’은 제주방언에서 ‘쩍[葉]’으로 나타나며, 중앙어 ‘숲[藪]’은 이 방언에서 ‘ㅂ’으로 끝나는 어간 ‘곶[藪]’으로 실현된다. ‘짚[藁]’의 경우에는 pk 교체를 보이는 ‘찍[藁]’과 ‘ㅂ’으로 재구조화된 ‘짹[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옹[側]’과 앞[前]에 한해서는 어간말 ‘ㅍ’이 실현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2음절에서 ‘ㅍ’을 말음으로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무릎’은 ‘ㅂ’으로 재구조화된 ‘무릅[髀]’으로, 형곶은 ‘힘벅’처럼 pk 교체를 거친 ‘ㄱ’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으로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방언에 나타난 양순음 ‘ㅂ, ㅍ, ㅁ’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하여 그 목록을 보이면 다음의 (14)와 같다.

(14) 양순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기저형 목록

- ㄱ. /Xㅂ/류: 값[價], 겁[怯], 굽[蹄], 놉[契], 무릅[髀]⁵¹⁾, 밥[食], 법[法], 부섭[爐], 설랍[屨], 썩[葉], 세답[洗踏], 쏘곶[裏], 손곶[爪], 읍[邑], 입[口], 으담[八], 지집[女兒]⁵²⁾, 접[契], 짹[藁], 집[家]
- ㄴ. /Xㅍ/류: 앞[前], 옹[側]
- ㄷ. /Xㅁ/류: 곶[褸, 熊], 곶~춤[唾], 거심(거스러미), 마심~마슴[料], 놉[他], 담[牆], 땀[汗], 막음[心], 몯[海藻, 모자반], 밤[夜], 버짐

51) ‘(독)무릅[髀]’으로도 나타난다. 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에서는 ‘무릅’, ‘동무릅’, ‘동ㄷ립’의 형태가 실려 있고, 현평효 외(2009)에도 ‘독, 독머리, 독무릅, 독물리, 독ㄷ립, 독ㄷ리, 독ㄷ립, 독ㄷ립’ 등의 여러 형태가 제시되어 있으나 남원읍 지역의 제보자에게서는 모음 ‘ㄱ’, ‘ㅡ’ 교체 정도의 ‘무릅~무릅’만 조사되었다.

52) ‘지집’은 ‘제집’으로도 나타난다. ‘지집’과 ‘제집’은 쌍형 관계에 있다.

(버즘), 베염[蛇], 봄[春], 바람의 바람[風]⁵³⁾, 사름[人], 소곰[鹽],
 숨(성계), 숨[息], 심[力], 쉬염(鬚髯), 씌지(쌌지), 에염[側], 염
 (驗), 오줌[便], 일름[名], 정심[中食], 짐[沓], 쿼[抱, 料], 흠[鋤]
 등

다음으로 제주방언에서 치조음으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양순음을 어간 말음으로 가지는 기저형과 마찬가지로 치조음으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역시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형태를 잠정 기저형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이형태들을 공시적인 음운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15) 치조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곡용형

- | | |
|----------------------------------|-----|
| ㄱ. /Xㅅ/류: 나시, 나세, 나스로, 낱또~나또, 난만 | [鋤] |
| ㄴ. /Xㄴ/류: 누니, 누늘, 눈도, 눈만, 눈보다 | [眼] |
| ㄷ. /Xㄹ/류: 꾸리, 꾸레, 꿀도, 꿀만 | [蜜] |

(15)는 치조음 ‘ㅅ, ㄴ, ㄹ’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15ㄱ)는 자음 조사 앞에서 ‘낱, 나, 난’의 이형태가 확인된다. ‘낱’, ‘난’은 자음 조사 ‘-도’와 비음 조사 ‘-만’ 앞에서 음절말 평파열음화 뒤 경음화, 비음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형태 ‘나또’의 실현은 표면형 ‘낱또’가 중복 자음 탈락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충분히 설명되므로 최종 기저형은 ‘낱’이 된다. (15ㄴ, ㄷ)의 곡용형을 확인했을 때 이형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눈’, ‘꿀’이 최종 기저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치조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 가운데 /Xㅌ/류는 포착되지 않았다. /Xㅌ/류로 나타날 것이라 예상되는 체언 어간 ‘끝[末], 밑[底], 밭[田], 별[陽], 솥[鼎], 팥[豆]’ 등은 이 방언에서 모두 ‘ㅅ’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었다. 이들 가운데 ‘끝[末], 밧[底], 밧[田], 벧[陽], 솧[鼎]’ 등을 단수 기저형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53) 비어두 음절에서의 ‘·>ㅡ’ 변화가 나타나는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가 쌍형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방언에서 치조음 /X스/류로 끝나는 체언 어간에는 ‘꽃[花], 낯[顔], ‘숯[炭], ‘웃[擲柳], ‘빋[櫛, 債], ‘젓[乳]’ 등도 볼 수 있다. ‘꽃[花], 낯[顔], ‘숯[炭], ‘웃[擲柳]’은 기원적으로 ‘츠’으로 끝나는 어간이 ‘스’으로 재구조화된 것이다. ‘빋[櫛, 債]’은 ‘ㄷ>스’의 변화를 겪은 예이고, ‘젓[乳]’은 ‘즈’을 가졌던 어간이었지만 이 방언에서 모두 ‘스’으로 끝나는 어간으로 확인된다.

/X스/류로 끝나는 체언 어간 가운데 ‘돛[周年]’은 중세 국어 시기에 어간말 자음군 ‘ㄹ’을 가졌던 ‘돛⁵⁴⁾’인데 많은 방언에서 대개 ‘ㄹ’을 유지하거나 ‘스’을 탈락시키는 형태로 재구조화가 일어났다면 이 방언에서는 ‘스’을 남긴 ‘돛’과 ‘스’을 탈락시킨 ‘돌’의 두 형태 모두가 존재한다. 특히 ‘스’을 가진 어간 ‘돛’은 제주방언에서만 관찰되는 독특한 것이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치조음 ‘스, ㄴ, ㄹ’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기저형 목록을 다음의 (16)에서 보인다.

(16) 치조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기저형 목록

ㄱ. /X스/류: 개갯[浦邊], 꺾[藪], 꽃[花], 꺾[賽, 培], 꺾[末], 낫[鋤], 낯[鑰], 낯[顔], 덧[攬], 돛[亥, 周年], 맛[味], 밋[底], 밋[田], 붓[胎], 배꽃[外], 빋[櫛, 債], 벳[陽], 숯[鼎], 숯[炭], 옷[衣], 웃[擲柳], 젓⁵⁵⁾젓[乳], 짓[羽]⁵⁶⁾, 풋[豆] 등

ㄴ. /Xㄴ/류: 구신(鬼神), ㄱ[鬢], 눈[眼, 雪], 돈[錢], 보선[靸], 사둔(査頓)⁵⁷⁾, 산(山) 삼춘(三寸), 손[手], 신[靴], 스춘(四寸), 어른[丈], 예편(女便), 이논(議論), 일본(日本), 절간[寺], 친[條]⁵⁸⁾, 혼(魂) 등

ㄷ. /Xㄹ/류: 검질[雜草], 게랄[卵], 굴(窟, 蟻), 꿀[蜜, 漚], 꺾[橘], 꺾[鏡],

54) ‘돛’의 경우 이 글의 연구자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의 용역 사업(2019, 『제주인의 삶과 도구』)으로 대정읍 지역을 조사할 때에는 ‘돌’, ‘돌씨’를 재구조화된 ‘돛’과 어간말 ‘ㄹ씨’을 가진 ‘돛씨’의 존재를 확인했으나 이 글의 조사 지점에서는 ‘돛’과 ‘돛’의 쌍형 어간만 관찰할 수 있었다.

55) ‘젓~젓[乳]’은 쌍형 어간으로 ‘저시, 저슬, 전만, 절또~저또’와 ‘제시, 제슬, 져만, 켈또~제또’의 패러다임을 갖는다.

56) 중앙어의 ‘깃’은 ‘꺾>꺾’의 과도교정, 부정회귀의 대표적인 예인데 제주방언에서는 ‘꺾’의 형태로 나타난다. 아울러 ‘꺾[蜜]꺾[蜜, 치]키’ 등도 제주방언에서는 ‘꺾[蜜], ‘꺾’ 형태로만 실현된다.

57) ‘사둔’, ‘부주’, ‘삼춘’, ‘스춘’, ‘어룬’ 등 모두 근대국어 시기에 제2음절에서 ‘ㄷ>ㄴ’의 변화를 입은 예들이다.

58) 쌍형 어간 ‘끈’도 존재한다.

ㄹ술[秋], 날[日], 내음살[臭], ㄴ물[菜], 돌[石], 돌[周年], 딸
[女], 뿔[鬮], 물[水], 말[馬], 불[火], 뿔[角], 술[酒], 실[絲],
술[膚], 쌀[米], 절[波, 寺], 줄[漈], 길[道], 잠[眠], 출[芻]⁵⁹⁾,
쿨⁶⁰⁾의 풀[草], 팔[臂] 등

여기서 경구개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을 확인하기 전에 (16ㄱ)의 /Xㅅ/류 가운데
‘개갯[浦邊], 끝[末], 밋[底], 배곯[外], 밧[田], 솯[鼎]’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끝[末]’의 곡용형을 확인해 본다.

(17) ‘끝’의 곡용형

끄시, 끄띠, 끄슬, 끄스로, 끈만 [末]

(17)은 ‘끝[末]’의 곡용형을 보인 것이다. 모음 조사 ‘-이’, 매개 모음 조사 ‘-을’,
‘-으로’가 연결될 때는 ‘끝’으로 나타나며, 비음 조사 ‘-만’과 결합할 때는 ‘끈’이 확
인된다. 여기서 문제는 모음 조사 ‘-에’와의 결합 시 나타나는 ‘끄띠’이다. 통상적으
로 처격 조사라고 부르는 ‘-에’가 나타날 자리에 위의 ‘끝[末]’ 부류의 어간 ‘개갯[浦
邊], 밋[底], 배곯[外], 밧[田], 솯[鼎]’ 등은 각각 ‘개갯띠, 미띠, 바띠, 소띠’ 등으로
실현된다.

정승철(2013:175)에 따르면 제주방언에는 기원적으로 처격 조사 ‘-에’계와 ‘-이’
계⁶¹⁾가 존재하는데 처격 조사 ‘-디’의 형성은 원래 선행 어간의 말음이었던 ‘ㄷ’이
재분석되어 ‘밧+-이→밧디’처럼 후행 조사의 초성으로 된 것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또한 처격 조사 ‘-이’의 형태는 기원적으로 다른 방언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
니라고도 덧붙였다. 정승철(2013:175)에 근거하면 이 글에서 ‘ㅅ’으로 끝나는 특정
체언 어간 몇몇에 ‘-디’를 설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 방언에서 ‘-디’라는 형태를 처격 조사의 이형태로 설정하게

59) ‘출’은 중앙어의 ‘풀’에 해당한다.

60) ‘쿨’은 ‘독쿨’, ‘복쿨’, ‘ㄹ스락쿨’ 등에서 확인되며 ‘풀’이 쓰일 자리에 나타난다.

61) 이진호(2002:51-53) 역시 ‘-이’는 ‘-에>-이’로부터 결과된 것이며, ‘-에’가 실현되는 경우는 모음 충
돌을 회피하기 위해 ‘-에’에 y가 첨가된 형태이므로 제주방언의 모음 조사 ‘-에, -예, -이’는 기원적
으로 같은 형태였음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되면 처격 조사의 다른 이형태들과 비교해 볼 때 대단히 이질적이라는 문제에 부딪힌다. 처격 조사 ‘-디’가 부적합하다는 점은 이진호(2002:50)에서 고찰되었는데 ‘-디’라는 이형태의 분포 조건이 어휘적으로 조건되어 있는 점이 해결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강정희(1980:78)에서 제주방언의 ‘-디’는 ㅎ-종성 체언 뒤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나 ‘-디’는 일부 어휘에만 결합한다는 분포상의 편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형태가 다른 조사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이질적이고 분포가 극도로 제한적임에도 하나의 이형태로 설정하는 것은 공시 문법에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처격 조사 ‘-디’를 설정하지 않고 ‘개ㄱ띠, 미띠, 바띠, 소띠’의 표면형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또 무엇인가?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복수 기저형 설정이다.

복수 기저형은 주로 어떤 형태소가 불규칙한 교체를 보일 때 설정하게 된다. 복수 기저형은 표면형과 매우 가까울 수밖에 없다. 표면형들의 관계를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에 표면형으로 도출되는 각각의 환경을 밝혀 복수 기저형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복수 기저형은 표면형을 그대로 가져오든지 또는 그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게 된다(이진호, 2017:210). ‘끗’은 모음 조사 ‘-이’, 매개 모음 조사 ‘-을’, ‘-으로’와 결합할 때는 ‘끗’이 선택되고, ‘끄띠’는 처격 조사 자리에서 ‘끄띠’로만 실현된다. 이때 ‘끄띠’를 설명할 수 있는 복수 기저형을 설정하면 /X~Y/ 정도가 가능할 듯하다. 곡용형에서의 복수 기저형은 특정 조사, 소위 처격 조사 앞에서 나타난다. ‘개끗[浦邊], 밧[底], 배끗[外], 밧[田], 솟[鼎]’의 기저형을 처격 조사 앞에서만 실현되는 ‘Y’로 설정해 본다. 그러나 역시 복수 기저형은 설정된 형태들의 출현 환경은 일반화되지 않는다(이진호, 2002:47). (14)에서 제시한 /Xㅅ/류의 체언 어간의 수는 적지 않으며 미처 조사되지 않은 /Xㅅ/류의 체언 어간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을 모두 이 복수 기저형에 맞춰서는 실현되는 표면형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복수 기저형을 설정할 때는 통시적인 정보를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방언과 비교·대조, 설정된 복수 기저형들 사이에서 형태적, 의미적인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도출 결과도 간결해야 한다(김봉국, 2003:561). 그렇다면 과연 위와 같은 복수 기저형 설정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인가? 또한 한 제보자의 말에서 발화의 실수로 볼 만큼의 적은 횟수로 ‘바떼’, ‘소떼’가 실현되기도 하고, 또 다른 제보자

의 말에서 ‘ㄱ떼~ㄱ띠’ 등이 혼용되고 있을 때 이 복수 기저형 설정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두 번째 방안도 적절한 해석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바로 김성규(1989:164)에서 어휘화된 화석형, 이진호(2002:52)에서 곡용형·활용형의 어휘부 등재로 표현되는 그것이다. 과거 어느 시기에 ‘-디’는 생산력이 있는 조사였을지도 모르나 현재는 일부 표면형에서만 나타나는 어휘화된 형태로 남아버린 일종의 화석형일 수 있다. 곡용형·활용형 자체가 언어 변화의 단위가 되었으나 이것을 일반화한다면 어절을 단위로 하여 언어 변화가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다. 즉 화석형은 활용어간과 어미를 결합시키려고 할 때, 체언과 조사를 결합시키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형태 음소론적인 문제에서 발견된다. 즉 어휘 변화나 음운 변화(조건 변화)는 곡용형·활용형 전체나 어절을 단위로 하여 일어나는 것이다(김성규, 1989:164).

한편 곡용형·활용형이 어휘부에 등재⁶²⁾된다는 것은 곡용형·활용형이 화자에게 인식된다는 말이다. 필요할 때마다 어간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곡용형·활용형 자체를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는 의미를 가리킨다. 곡용형·활용형이 하나의 단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증거로 세 가지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곡용형·활용형이 단어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명사형, 관형사형, 연결형 같은 다양한 곡용형·활용형이 단어 형성 과정에 쓰이고 있다. 둘째는 곡용형·활용형이 유추에 의한 재분석의 대상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곽충구(1994), 정인호(1997), 김 현(2001)을 비롯한 여러 논의에서는 활용형이 재분석되어 새로운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예들이 다수 등장한다. 세 번째는 언어 변화가 활용형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상의 사실들은 곡용형·활용형이 하나의 단위로 인식됨을 말해 준다(이진호, 2002:51). 이러한 해석은 화석화된 곡용형·활용형을 어휘부에 등재함으로써 곡용 및 활용 패러다임 속에서의 저지 현상(blocking)을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이진호, 2002:52).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해 보면 처격 조사 ‘-디’를 두는 것, 어간 기저형에 대해 복수 기저형을 설정하는 것, 마지막으로 곡용형·활용형 자체를 어휘부에 등재하는 방

62) 이진호(2002)는 활용형을 어휘부에 등재해야 하는 경우를 ① 공시적인 형태 분석이 어려울 때 ② 복수 기저형 설정과 관련된 조건을 위반할 때 ③ 어간이 특정한 어미와만 결합할 때 ④ 보충법에 의해 활용이 형성될 때라고 나누어 지적하였다.

법으로 ‘개끼띠, 꼬띠, 미띠, 바띠, 소띠’의 표면형을 고찰해 보았다. 이 셋 가운데 가장 타당한 해석은 화석화된 곡용형을 어휘부에 등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처격 조사와의 결합형 자체를 어휘부에 등재하고 그 외의 경우는 단수 기저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18) 경구개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곡용형

/Xㅈ/류: 나지, 나제⁶³⁾, 날또~나또, 난만

[晝]

이 방언에서 경구개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기저형은 어간 말음이 ‘ㅈ’인 ‘낮(晝)’이 유일하다. (18)은 ‘낮’의 곡용형으로 기저형 설정 기준에 따라 ‘낮’을 최종 기저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낮’은 합성어 ‘밤낮’이 될 때에 조사 ‘-으로’와 결합하면서 ‘밤나스로’와 같은 표면형이 도출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기능 부담량이 적은 제2 음절에서 ‘낮’의 ‘ㅈ’이 ‘ㅈ’으로 재구조화⁶⁴⁾된 것으로 본다(이병근, 1975:33).

한편 현평효 외(2009:907)에서는 어간 말음 ‘ㅈ’을 가진 형태로 ‘곶[藪]’이 올라 있는데 이때의 곡용형을 ‘곶의⁶⁵⁾, 곶읜, 곶의도, 곶의만, 곶더레’와 같이 보이고 있다. 이 방언 화자의 말에서 ‘나무와 덩굴 따위가 엉클어져 있는 수풀’의 의미를 가진 복합어 ‘곶짜알’은 여러 차례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이 표면형이 ‘곶’이 ‘ㅈ’으로 끝나는 어간 ‘곶’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곶’의 형태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곡용형을 ‘고시~고지가, 고세, 고슬, 곤만’ 등과 같이 얻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가운데에 모음 조사 ‘-이’와의 결합형에서 나타나는 ‘고시’의 이형태 ‘고지가’의 출현은 독특하기는 하다. 한 차례 발화된 ‘고지가’만으로 기저형을 ‘곶’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모음 조사 ‘-에’와 매개 모음 조사 ‘-을’과의 결합형에서 실현되는 ‘곶’을 볼 때 최종 기저형은 ‘곶’의 설정이 타당하리라 본다.

63) 이 방언에서는 처격 조사 ‘-에’의 이형태인 ‘-이’와 결합된 ‘나지’ 형태가 더 많이 쓰이지만 ‘-에’와 결합한 형태도 나타난다.

64) 이 글에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재구조화’는 배영환(2005:25)에서 정리된 것처럼 ‘어간 형태소의 기저형에 있어서의 변화’라는 의미이다.

65) 현평효 외(2009:907)에 제시된 특이 처격 조사 ‘-의’는 2음절에서는 [의]로 실현이 불가능하다. 의 고적인 ‘-의’를 밝혀 적은 것인 듯하나 실제 ‘밤이, 집이, 속이’ 또는 ‘밤이는, 집이도, 속이만’ 등에서 처격 조사 ‘-에’가 이형태 ‘-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의’ 표기가 아닌 ‘-이’ 표기도 가능하다.

(19) 연구개음 ‘ㄱ, ㅇ’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곡용형

- ㄱ. /Xㄱ/류: 까주기, 까주그로(~까주구로), 까죽또, 까중만 [皮]
ㄴ. /Xㅇ/류: 짱이, 짱에, 짱도, 짱만 [骨]

(19)는 연구개음 ‘ㄱ, ㅇ’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에 모음 조사, 매개모음 조사, 자음 조사, 비음 조사가 각각 결합된 곡용형을 제시한 것이다. (19ㄱ)는 ‘까죽’, ‘까중’의 이형태를 가지는데 이 방언에는 공시적인 음운 현상으로 비음화가 존재하므로 (19ㄱ)의 최종 기저형은 ‘까죽’이 된다. ‘까죽’은 통시적으로 어두경음화를 입은 형태로 존재한다. 연구개음 /Xㄱ/류 가운데 ‘득[鷄]’, ‘흑의 흑[土]’은 15세기 어간말 자음군 ‘리’을 가졌던 어간이지만 이 방언에서 모두 ‘ㄱ’으로 재구조화되었다. 河野六郎 (1945)에서도 ‘득이, 득은’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이 방언에서 ‘닭’은 재구조화된 시기가 무척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개음 /Xㄱ/에는 ‘아칙[𦉳]’도 확인되는데 ‘ㄱ’으로 끝나는 ‘아칙’의 형태는 강원, 경기, 경남, 전남 방언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ㄴ)는 그 어떤 조사가 뒤따르더라도 ‘짱’만 나타나므로 기저형은 ‘짱’으로 설정할 수 있다. /Xㅇ/ 어간 가운데는 중앙어의 ‘생선[鮮]’을 가리키는 ‘생성’도 확인된다.

한편 연구개음 /Xㅋ/류의 체언 어간은 이 방언에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어에서 ‘ㅋ’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 ‘부엌’은 이 방언에서는 ‘정제’로만 실현될 뿐이다.

(19)에서 기저형을 설정한 방법으로 연구개음 ‘ㄱ, ㅇ’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기저형 목록을 다음의 (20)에서 제시한다.

(20) 연구개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기저형 목록

- ㄱ. /Xㄱ/류: 까죽[皮], 깍[叢], 터럭[毛], 개역[麩]⁶⁶, 곱[哭], 구덕[簾], 국[湯], 곱[葛], 녁[魂], 덕[巖], 떡[餅], 득[鷄], 명석[廢], 메역

66) ‘개역’은 볏은 보리나 콩 따위를 갈거나 빻아서 만든 가루 음식을 가리키는데 용언 어간 ‘개-’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藿]⁶⁷⁾, 모욕[浴], 묵(음식), 벼락[霹]⁶⁸⁾, 복[復, 福], 속[艾],
 쪽[裏], 생각[念], 새벽[晨], 신각[縷], 아침[早], 어워[菝], 욱
 (辱), 저녁[夕], 죽(粥), 즈룩[柄]⁶⁹⁾, 즈식(子息)⁷⁰⁾, 짝[藁], 착
 [配], 칩[葛], 곡[瓠], 험벽[帖], 화각(성냥), 흑^의흑[土] 등

ㄴ. /Xㅇ/류: 쟁[羹], 고망[穴], 고생(苦生), 광[庫], 짱[骨], 핑[雉], 땅[地],
 동싱(同生), 두껍[蓋]⁷¹⁾, 뉘장(醬), 마농[蒜], 머정[運], 방[房],
 방상[一家], 병(病), 팽(瓶), 사농[獵], 생성[E, 鮮], 서방[男
 便], 선생(先生), 시렁[壁櫨], 아방[父], 어멍[母], 영장[葬事],
 우장[雨裝], 왕[王], 장(醬), 지둥[柱], 지봉[茨], 콩[豆], 트멍
 [間], 하르방[祖父], 할망[祖母] 등

다음에서 어간말 자음군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해보기로 한다.

(21) 어간말 자음군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곡용형

ㄱ. /Xㄱ/류: 녀씨, 녀쓸, 녀또, 녀만 [魂]
 ㄴ. /Xㅅ/류: 살미, 살믈, 삼도, 삼만 [生]

(21)은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는 곡용형을 보인 것이다. 제주방언에서 이전 시기
 ‘ㅸ, ㄹ, ㅿ, ㅻ’ 등의 어간말 자음군을 가졌던 체언 ‘값’, ‘답’, ‘흙’, ‘여덟’, ‘돌’ 등은
 /Xㅸ/, /Xㄹ/, /Xㅿ/, /Xㅻ/류의 체언 어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두 ‘값[價],
 ‘득[鷄], ‘흑^의흑[土], ‘으답~으덥[八], ‘돌^의돛[周年]’으로 어간말에 ‘ㅸ’, ‘ㄱ’, ‘ㄴ’

67) 제주방언의 ‘메역’은 ‘머욕’(15세기-19세기) > 메욕(16세기) > 메역(19세기)의 변화를 거쳤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이중모음 ‘꺨’가 단모음화한 후, 2음절의 모음 ‘꺨’가 ‘꺨’로 바뀌어 ‘메역’이 되
 었는데 현대 중앙어의 ‘미역’은 이후 ‘꺨>ㅣ’의 고모음화를 한 차례 더 거친 형태이지만 제주방언에
 서는 ‘메역’으로 실현되고 있다.
 68) ‘벼락’은 양순음 ‘ㅸ’ 뒤에서 형태소 내부의 ‘꺨>꺨’ 변화를 거친 것이다. ‘꺨>꺨’ 현상은 제주방언
 외에도 많은 충청, 전남, 황해도 등 많은 방언에서 확인된다. ‘벼락’과 같은 ‘꺨>꺨’의 변화를 겪은
 체언 어간은 ‘벼룩, 벼, 벼슬, 벳, 벨, 벳, 벳신, 벳원, 벳정’ 등이 있다.
 69) 남원읍 지역의 화자의 말에서는 ‘즈룩’만을 확인했으나 현평호 외(2009)에서는 ‘즈룩’, ‘즈룩’ 등이
 확인된다.
 70) ‘즈식’으로도 나타난다.
 71) 모음으로 끝나는 ‘두께’, ‘뚜께’나 연구개음 ‘ㅇ’으로 끝나는 ‘뚜껍’도 확인된다.

또는 ‘스’을 가진 형태로 재구조화되었다. 제주방언에는 ‘X{ㅅ, 리, ㄹ, ㄷ}’의 어간말 자음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조사 지점인 남원읍 지역에서는 ‘너기, 너글, 녀또, 녀만’의 곡용형과 (21ㄱ)과 같은 ‘녀씨, 녀쓸, 녀또, 녀만’의 곡용형이 확인되었다. 전자는 어간말 자음군이 단순화된 기저형 ‘녀’을 설정할 수 있고, 후자는 기저형 설정 조건에 따라 최종 기저형이 어간말 자음군인지를 한 번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21ㄱ)을 통해 이형태 ‘녀씨, 녀, 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자음군 단순화와 경음화, 비음화의 적용으로 설명이 가능하므로 (21ㄱ)의 최종 기저형은 어간말 자음군 ‘ㄱ씨’을 가진 ‘녀씨’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방언에 ‘ㄱ씨’의 어간말 자음군이 존재하는 것이다. ‘ㄱ씨’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는 어간에는 ‘쌔’, ‘뉘’이 있는데 이 방언에서는 각각은 ‘쑤’, ‘나시’ 또는 ‘찌씨’로만 확인될 뿐이며 ‘ㄱ씨’의 어간말 자음군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21ㄴ)는 자음 조사 ‘-도’와 비음 조사 ‘-만’ 앞에서만 ‘쌔’이 나타나는데 모음 조사와의 결합에서 실현되는 ‘쌔’의 형태와 관련해서 살펴볼 때 최종 기저형을 ‘쌔’으로 설정할 수 있겠다. 이 방언에서 ‘쌔’처럼 어간말 ‘ㄹ’으로 끝나는 형태는 ‘쑤[界]’도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이 방언에서 어간말 자음군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기저형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 (22)와 같다.

(22) 어간말 자음군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기저형 목록

ㄱ. /Xㄱ씨/류: 녀씨[魂]

ㄴ. /Xㄹ/류: 쑤[界], 쌔[生]

어간말 자음군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에 대해 마무리하기 전 두 가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첫째는 어간말 자음군으로 ‘ㄱ씨’을 가지는 ‘녀씨’에 대한 고찰이다. 지명이나 도구 명처럼 고유 명사로 남아 있는 것들에는 그 방언의 보수형을 간직한 것들이 있다. 남원읍 지역에는 ‘녀시악(녀시오름)⁷²⁾’이라는 오름이 존재한다. 제보자로부터 오름에

대한 유래나 지명을 얻을 때 ‘넉씨, 넉쓸, 녕만, 넉또’ 등의 곡용형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것은 고유 명사인 ‘넉시오름’의 존재로 이들의 언어에는 어형의 보수성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어형을 유지하는 데에 복합어의 영향이 일부 작용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넉’의 체언 어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어간이 재구조화된 형태 ‘넉’ 또한 어간말 자음군을 가진 ‘넉씨’와 함께 완전한 패러다임을 가진 형태로 공존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쌍형 어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둘째는 어간말 자음군으로 ‘ㅈ’을 간직한 ‘곶’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체언 어간 ‘곶’은 태흥리 제보자의 말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곶미, 곶물, 곶도, 곶므로(~곶무로), 곶광’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조사와 결합한 곡용형을 구할 수 있었다. 다른 제보자에게는 간혹 ‘곶’의 형태로도 실현되었으나 오○○ 제보자는 거주지 바로 옆 마을인 신흥리와 태흥리의 경계를 가리킬 때 항상 ‘곶’을 사용하였다. ‘곶’은 맥락상 두 곳을 가르는 경계선을 뜻하므로 ‘ㄹ-~곶-’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은 어간인데 ‘ㅈ’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⁷³⁾. 현평효 외(2009)에는 ‘곶’과 유사한 ‘닷곶’과 ‘곶곶’이 표제어로 실려 있으며 각각은 ‘바닥이 돌이나 암반으로 깔려 있는 바다인 ‘곶바당’과 조금 더 멀리 나아가 그 바닥이 펠로만 깔려 있는 바다인 ‘곶바당’의 경계를 이루는 바다’, ‘너럭바위, 돌맹이, 모래 따위로 구성된 바다와 펠로 구성된 펠 바다의 경계 지점에 있는 바다’라는 뜻이다.

비록 한 제보자의 말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형태였지만 그 곡용형의 분포가 넓다고 판단되므로 이 글에서는 ‘곶’ 또한 ‘곶’과 함께 어간말에 ‘ㅈ’을 가진 체언 어간의 존재를 인정하고자 한다.

72) ‘넉시악(넉시오름-표기를 그대로 옮김)’은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531번지 일대에 있는 오름이다. 오름 기슭에 마을 사람들이 본향당으로 모시는 ‘넉시오름 넉당’이 있어 신목(神木)인 팽나무 노목을 돌담으로 두른 제터에서 해마다 제를 지낸다. 이 오름이 형성된 모습 ‘넉이 나간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하여 오름명을 ‘넉시악’이라 붙였다고 한다. 큰 비가 내린 뒤 섯내가 흘러오는 북서쪽 동산을 지나던 송아지가 냇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돌아누운 와우형(臥牛形)인 어미 소가 그만 넉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다. 한자로는 넉 백 또는 넉 잃을 백(魄)자와 얼룩소 리(犁)자를 써서 백리악(魄犁岳)으로 표기한다. 서귀포시 남원읍 누리집(<https://www.seogwipo.go.kr/local/namwon>) 남원읍 소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2021. 3. 24. 검색 기준. 한편 ‘넉시악’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오창명(2007:351-352) 참조.

73) 이 방언에서는 명사형 어미 ‘-음/ㅁ’의 사용 빈도가 유난히도 많은데 ‘곶’을 이렇게 해석할 경우 ‘가르-’의 뜻을 가진 ‘곶’에 ‘-ㅁ’이 연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듯하고, 여기서 논하는 차원과는 달리 통사론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더욱 많은 것이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하지 않도록 한다.

3.1.2.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기저형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기저형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으로 1차 분류하고 다시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은 제시하려 하는 기저형의 목록이 많으므로 편의상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으로 살피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먼저 전설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패러다임부터 관찰해보기로 한다.

(23) 전설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곡용형

ㄱ. /X /류: 궤기가, 궤기로, 궤기도, 궤기만	[肉]
ㄴ. /X 궤 /류: 가메를, 가메예, 가메도, 가메만	[轎]
ㄷ. /X ㅔ /류: 대광, 대예, 대보다, 대만	[竹]

(23)은 제주방언의 전설모음 ‘|’, ‘궤’, ‘ㅔ’로 끝나는 체언 어간에 자음 조사, 모음 조사, 비음 조사 등이 결합된 곡용형을 보인 것이다. 어간 말음이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들은 처격 조사 ‘-에’와의 결합 시에 ‘가메+-에→가메예, 대+-에→대예’와 같은 반모음 y 첨가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공시적인 음운 현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예’의 실현 외에는 곡용형에서 별다른 이형태를 갖지 않으므로 (23ㄱ, ㄴ, ㄷ) ‘궤기’, ‘가메’, ‘대’가 최종 기저형으로 결정된다.

/X | /로 끝나는 체언 어간 중 ‘둘리[二人]’는 ‘둘+-이→둘이’에서 체언 어간 말의 ‘ㄹ’이 조사 ‘-이’에 복사되는 현상을 거친 상태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본다. ‘둘리’는 ‘둘리가, 둘리영, 둘리도, 둘리만’ 등의 곡용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X 궤 /로 끝나는 어간에 ‘안네[內]’와 ‘질레[道]’가 존재한다. ‘안네’는 ‘안+-에’에서 어간말 ‘ㄴ’이 복사된 형태로 어휘화한 것, ‘질레’ 역시 ‘질+-에’에서 ‘ㄹ’이 복사된 형태로 보려 한다. ‘안네’, ‘질레’에 모든 조사들이 통합된 곡용형 ‘안네가, 안네예, 안네도, 안네만’과 ‘질레가, 질레예, 질레보다, 질레만’ 등이 확인된다. ‘안네’와 ‘질레’는 ‘둘리’와 달리 통시적인 관점에서 ‘안해>안애’의 ‘ㅎ’가 탈락하는 자리에 ‘ㄴ’이 복사되었을 가능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길ㅎ’도 마찬가지로 해석이다. 제주방

언에서 나타나는 복사현상은 합성어나 단어 경계 등에서만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정승철, 1991) ‘둘리’, ‘안네’, ‘질레’를 ‘체언+조사’의 결합으로 본다면 형태소 경계에서도 복사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음운변화에서 비롯된 어간의 이형태들을 다시 통일시키는 현상이 곡용의 패러다임에서 진행된다는 강창석(1985:53)의 논의도 있기 때문이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방언에서 확인되는 단모음 가운데 전설모음 ‘ㅣ’, ‘꺀’, ‘꺁’로 끝나는 체언 어간을 제시하면 다음 (24)와 같다.

(24) 전설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기저형 목록

- ㄱ. /X ㅣ /⁷⁴⁾류: 까시[荊], 강생이[狗], 고치[獐], 건지(건더기), 구테기[蛆], 궁기[穴], 꺀기[肉, 生鮮], 쨍이[斲], 노리[獐], 녹디[綠豆], 니[齒], 늬삐[蔔], 둘리[二人], 둠비[豆腐], 따비[糶], 드체비[魷], 마다리[麻袋], 마리[櫟], 멩텅이[麩], 모시[紵], 미디[節], 뭉생이[駒], 반치[芭蕉], 배치[菘], 불미[冶], 비[雨], 빈지[壁], 뽕리[根], 소미[袖], 손지[孫]⁷⁵⁾, 시리[飢], 스투리[方言], 아시[弟], 애기[兒], 여시[狐], 연디(煙臺), 우미(우뭇가사리), 우시[圍繞], 윤디[燙], 잔치[宴], 잘리[袋], 장시[商], 저고리[襦], 저베기[飢]⁷⁶⁾, 짐치(김치), 통시[厠], 퍼기(一家親戚, 포기), 펜지(便紙), 프리[蠅], 화리[鑪] 등
- ㄴ. /X 꺀 /류: 가메[轎], 고등에[鯖], 꺁세[鋏], 굴체[簞], 떼[垢], 대뻬[鉤], 동네(洞內), 동세(同壻), 멩에[駕], 메[供飯, 苗], 물레[軋], 베

74) /X ㅣ /류에는 처격 조사 ‘-에’가 쓰이는 자리에 처격 조사 ‘-레’가 결합하여 ‘고치레, 시리레, 마리레, 노리레, 찰리레, 쓰레기레’ 등과 같은 표면형을 보이는 것들이 있다. ‘-레’는 보통 체언 어간이 ‘ㅣ’계 모음일 때 연결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X ㅣ /류 체언 어간과 결합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앞서 이른바 이 방언의 처격 조사의 이형태로 불리는 ‘-디’와 마찬가지로 ‘-디’보다 더욱 그 결합 환경을 특정할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이에 대한 해석을 ‘-디’ 관찰과 동일한 관점으로 화자의 어휘 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본다.

75) ‘손즈’로도 실현된다.

76) ‘저베기’는 지역에 따라 ‘조베기’, ‘즈베기’ 등으로도 나타난다. 이 글의 보조 자료인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4-2016)의 자료에 따르면 ‘저베기’로 실현되는 지역은 ‘고성, 표선, 남원, 보목, 삼달, 성읍, 수망, 고내, 온평, 세화, 태흥’ 등으로 제주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어휘에 따른 방언차는 김순자(2011) 참조.

[船], 뼈[骨], 부제(富者), 살레[樑], 세[舌], 성제[兄弟], 식계[祭祀], 정제[廚], 제(灰, 祭), 조케[姪], 중메[中媒], 지세[瓦]⁷⁷⁾, 질레[道], 질메[鞍], 치메[裳], 프레(파래), 헤[太陽]⁷⁸⁾, 안네[內] 등

ㄷ. /Xㅈ/류: 개[浦, 犬], 내[川, 臭], 날개[翼], 대[竹], 매[鞭], 몰래[沙], 새끼(어린 짐승, 紉), 재[蟬] 등

(24ㄱ)을 보면 /Xㅣ/류의 체언 어간이 상당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어에서 ‘고’나 ‘구’로 끝나는 체언 어간이 이 방언에서는 ‘고치[藪], 노리[獐], 녹디[綠豆], 둘리[二人], 둠비[豆腐], 마리[樑], 반치[芭蕉], 배치[菘], 소미[袖], 여시[狐], 화리[鑪]’ 등처럼 모음 ‘ㅣ’로 끝나기 때문이다. 또 (24ㄴ)에는 중앙어의 ‘ㅏ’로 끝나는 체언 어간 가운데 이 방언에서 ‘ㅈ’로 실현되는 ‘가메[驕], 부제(富者), 조케[姪], 치메[裳]’ 등도 확인된다.

다음으로는 후설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할 것이다.

(25) 후설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곡용형

ㄱ. /Xㅡ/류: 느가, 느영, 느보단, 느만	[汝]
ㄴ. /Xㅣ/류: 감저가, 감저를, 감저도, 감저만	(甘藷)
ㄷ. /Xㅏ/류: 차가, 차를, 차도, 차만	(車)
ㄹ. /Xㅑ/류: 웬수가, 웬수영, 웬수도, 웬수만	(怨讐)
ㅁ. /Xㅓ/류: 코가, 코도, 코광, 코만	[鼻]

77) ‘지세’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나는 ‘디세>지세’의 변화를 겪은 것인데 제주방언에서는 2음절의 ‘ㅈ’가 중간음 ‘E’로 실현된다. 제주방언의 ‘지세’는 18세기 근대국어 시기에 구개음화를 겪은 형태가 반영된 ‘지세’로 남아 있으나 이것이 중앙어에서는 1음절의 ‘지’가 근대국어의 ‘기’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ㅈ’로 변한 구개음화를 의식하여 ‘지’를 ‘기’가 구개음화를 겪은 것으로 잘못 이해해 ‘기’로의 과도 교정을 거친 후 ‘기와’로 나타나게 되었다.

78) 이기문(1977b)은 ‘헤(太陽), 베(船, 腹, 梨)’ 등 제주방언에 나타나는 ‘이>에’의 변화는 예로부터 국어사에서 단모음 ‘으’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문헌어에서 ‘이’를 가졌던 단어에 대해 ‘에’로의 발달을 보이는 육지 방언과 달리 제주방언은 ‘에’로의 발달을 보이는바 이러한 상위가 ‘으’의 음운론적 지위차에서 비롯하였으리라는 말이다. 이에 따르면 제주방언의 ‘이’는 단모음이었으므로 ‘이>에’의 변화를 보인 것이고, 육지 방언은 ‘이’가 이중모음이었으므로 핵모음 ‘으>아’에 편승하여 ‘이>에’의 변화를 보인 것이 된다(정승철, 2014:81-82).

(25)는 제주방언의 후설모음 ‘ㅡ’, ‘ㅓ’, ‘ㅕ’, ‘ㅗ’, ‘ㅛ’, ‘ㅜ’로 끝나는 체언 어간에 조사 ‘-가, -를, -영, -광, -도, -만’ 등이 결합되었을 때를 포착하여 제시한 것이다.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의 어간은 어떠한 음운론적 환경에서도 변화가 없는 형태라면 그 자체가 기저형이 될 수 있다. 이들 모두 전설모음과 마찬가지로 이형태를 가지지 않으므로 (25)에서 보인 ‘느’, ‘감저’, ‘차’, ‘웬수’, ‘코’, ‘농스’를 기저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25ㄱ)는 ‘느[汝]’는 중앙어의 ‘너’를 가리키는 것이다. 중부 방언 등에서 ‘너’는 소위 주격 조사 앞에서 ‘네’로 실현되고 그 외의 조사에서는 ‘나’로 실현되기 때문에 복수 기저형 /네(주격 조사)~너(그 외의 조사)/로 설정한다. 그러나 제주방언에서는 ‘너’를 가리키는 ‘느[汝]’는 단수 기저형으로 존재한다. /Xㅓ/의 ‘저[我]’, /Xㅕ/류의 ‘나[我]’ 또한 중부방언과 달리 이 방언에서는 모든 조사와의 결합에서 이형태를 갖지 않으므로 단수 기저형으로 실현되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후설모음 끝나는 체언 어간의 기저형을 다음의 (26)에서 보이도록 한다.

(26) 후설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기저형 목록

ㄱ. /Xㅡ/류: 느[汝], 드르[野], 저르[暇]⁷⁹⁾

ㄴ. /Xㅓ/류: 감저[甘譖], 저[我], 터[垜]

ㄷ. /Xㅕ/류: 나[我], 마[麻], 차[車], 바[索], 헛나[一]⁸⁰⁾

ㄹ. /Xㅗ/류: 메주[豉], 무수[蔔], 우[上]⁸¹⁾, 웬수[怨讐]

79) ‘저를’로도 실현된다.

80) 제주방언의 ‘헛나’는 ‘헛나가, 헛나를, 헛나만, 헛나토’와 같은 표면형을 가지는데 이 가운데 ‘헛나토’의 실현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 자음 조사 ‘-도’가 ‘-토’로 나타나는 것은 ‘ㅎ+ㄷ’의 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방언에서는 복수(複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덜’ 뒤에서도 조사 ‘-도’는 ‘-토’로 실현되며 ‘아이덜토, 여저덜토, 상복덜토, 딸덜토, 쉼덜토’와 같은 표면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진호(2014a:151)에서는 경기도 방언 중 일부에서 보조사 ‘-도/두’와 결합하는 경우에만 한해서 ‘하나토’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나토’의 실현은 이전 시기에 ‘하나’가 ㅎ-말음 체언이었을 때의 흔적이 그대로 유지된 결과로 다른 환경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하나토~하나투’의 곡용형은 기계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형태소의 결합형 전체를 기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는데 이 글 역시도 이진호(2014a:151)의 논의처럼 화자가 ‘하나토’의 개별 정보를 그대로 외우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그 외 같은 유형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석하고자 한다.

ㄹ. /Xㄴ/류: 노[索, 棹], 보초[哨], 조[粟], 초(醋), 초소(哨所), 코[鼻], 포
[襍], 서구포(西歸浦)⁸²⁾

ㅁ. /X·/류: 농스(農事), 여즈(女子), 남즈(男子), 이스(移徙), 제스(祭祀)

(26ㄴ)은 /X·/류의 체언 어간의 목록인데 한자어, 그리고 2음절 이하에서 ‘·’를 가진 어간들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어간 말음이 ‘·’인 형태와 ‘ㄱ’인 형태가 쌍형으로 존재한다. ‘농스^ㅇ농서(農事)’, ‘여즈^ㅇ여저(女子)’, ‘남즈^ㅇ남저(男子)’, ‘이스^ㅇ이서(移徙)’, ‘제스^ㅇ제서(祭祀)’ 등의 쌍형 어간의 존재는 2음절 이하에서 ‘· > ㄱ’로 변화하는 것을 보이는 증거라고 할 만하다.

다음으로 y계 이중모음과 w계 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y’계 이중모음이 사용되는 예를 관찰해 기저형을 설정하려는데 이 가운데 ‘y’계 이중모음 /X꺠/류⁸³⁾, /X꺡/류와 w계 이중모음 가운데 /X꺣/류, /X꺤/류에 해당하는 체언 어간은 없었다.

(27) ‘y’계 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곡용형

ㄱ. /Xㅑ/류: 대야가, 대야예, 대야도, 대야만	[疊]
ㄴ. /X꺡/류: 여가, 여를, 여도, 여보다	[暗礁]
ㄷ. /Xㅓ/류: 요가, 요로, 요도, 요만	(褥)
ㄹ. /Xㅕ/류: 유가, 유를, 유보다, 유만	[莛]

81) 체언 ‘우(上)’는 처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우에~우예’로 실현되기도 하고 처격 조사 ‘-에’의 이 형태 ‘-이’와 결합하여 ‘우이’의 형태로 실현되기도 한다. 또한 보조사 ‘-도, -만’ 등이 연결될 때에는 ‘우이만, 우이도’처럼 처격 조사 ‘-이’를 선행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제주방언의 특이 처격 조사라고 부르는 ‘-더레, -레’ 형태와 결합하여 ‘우^ㅎ+~더레→우터레’와 같은 표면형을 갖기도 한다. 앞서 ‘-디’와 마찬가지로 ‘-더레’, ‘-레’의 출현 환경을 일반화할 수 없으므로 지금으로서는 표면형 ‘우터레’ 등을 화자의 어휘부에 등재된 형태로 본다.

82) ‘서구포’로도 간혹 실현되기는 하나 2음절에 나타나는 이중모음 ‘꺠’에서 ‘ㅣ’를 탈락시킨 ‘서구포’의 출현이 더 잦으므로 여기서는 ‘서구포’를 기저형으로 보인다. 이는 이중모음이 있는 어형 ‘뒤주’, ‘위’가 ‘두지’, ‘우’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83) 이 글의 조사에서 구한 ‘어촌계(漁村契)’, ‘기계(機械)’와 같이 표준어에 기대 ‘꺠’로 표기할 수 있는 어형들은 모두 2음절 이하에서 ‘꺠’로 실현되며 이 외에 ‘꺠’로 끝나는 체언 어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27)은 ‘y’계 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 뒤에 조사가 결합한 곡용형의 예이다. (27ㄱ)의 표면형 ‘대야예’의 실현은 반모음 ‘y’ 첨가로 설명이 가능하며 앞서 살펴본 단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기저형 설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음 조사와의 결합을 살펴 (27ㄱ, ㄴ, ㄷ)의 최종 기저형을 ‘대야’, ‘여’, ‘요’, ‘유’로 확정할 수 있다.

(27)에서 이 방언에서 확인된 ‘y’계 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기저형 목록을 밝히면 다음 (28)과 같다.

(28) ‘y’계 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기저형 목록

- ㄱ. /Xㅑ/류: 대야[疊]
- ㄴ. /Xㅓ/류: 상여(喪輿), 여[暗礁]
- ㄷ. /Xㅕ/류: 학교(~혹교)(學校), 요(褫)
- ㄹ. /Xㅗ/류: 석유(石油), 여유(餘裕), 유[桂]

마지막으로 ‘w’계 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하고 그 목록을 보이고자 한다.

(29) ‘w’계 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곡용형

- ㄱ. /Xㅑ/류: 사과가, 사과영, 사과도, 사과만 (沙果)
- ㄴ. /Xㅓ/류: 귀가, 귀예, 귀광, 귀만 [耳]
- ㄷ. /Xㅕ/류: 궤가, 궤영, 궤만, 궤보다 (櫃)

(29)는 w계 이중모음 ‘ㅑ, ㅓ, ㅕ’로 끝나는 체언 어간 뒤에 조사들이 결합된 곡용형을 보이는 예다. (29ㄱ, ㄴ, ㄷ)의 어간들은 이형태 없이 그 표면형이 ‘사과’, ‘귀’, ‘궤’로 나타나기 때문에 최종 기저형은 ‘사과’, ‘귀’, ‘궤’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29ㄴ)의 표면형 ‘귀예’의 실현은 (27ㄱ)의 표면형 ‘대야예’와 마찬가지로 ‘ㅣ’ 모음을 가진 체언 어간이 모음 조사 ‘-에’와 결합할 때 반모음 ‘y’가 첨가되는 공시 음운 현상

으로 설명된다.

/X꺠/류의 체언 어간 가운데 중앙어의 ‘목수[木手]’는 이 방언에서 ‘ㅣ’모음이 첨가된 ‘목쉬’로 나타나며 ‘송편이나 만두 따위를 만들 때 속에 넣는 여러 가지 재료’를 뜻하는 ‘소’는 ‘쉬[蔬]’로만 실현된다.

다음의 (30)에서 ‘w’계 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목록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30) ‘w’계 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기저형 목록

ㄱ. /X과/류: 사과(沙果), 효과(效果)

ㄴ. /X꺠/류: 귀[耳], 목쉬(木手), 마쉬(馬牛), 쉬[蔬, 孵], 자귀[鑛]

ㄷ. /X꺠/류: 궤(櫃), 뉘[升], 쉼[牛], 쉼[鐵], 웨[瓜], 일뤼[七日]

3.2. 용언 어간의 기저형

3.2.1. 단수 기저형

용언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하는 것은 체언 어간의 기저형 설정과 마찬가지로 어간과 어미가 결합했을 때 활용하는 형태를 분석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여기서부터는 제주방언에서 나타나는 용언 어간의 기저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제주방언에서 확인되는 자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ㅎ, ㅇ’ 등 11개가 있다. 다른 방언에 존재하는 ‘ㅍ’ 발음을 가진 용언 어간이나 어간말 자음군 ‘ㅃ’ ‘ㅆ’, ‘ㅉ’ 등은 이 방언에서 모두 재구조화된 형태로 확인된다.

용언 어간의 기저형은 단일 형태의 단수 기저형과 음운론적인 환경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복수 형태의 복수 기저형으로 나뉘어 살필 수 있다.

3.2.1.1. 자음·자음군으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자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기저형은 앞서 체언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할 때와 동일하게 조음 위치에 따라 그 형태를 구분하여 제시한다.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을 확인한 후 이어 자음군으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양순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활용형

- | | |
|-------------------------------|-----|
| ㄱ. /Xㅂ-/류: 곱꼭, 고팡, 고투민, 곱는 | [隱] |
| ㄴ. /Xㅁ-/류: 슝꼭~슝꼭, 슝망, 슝무민, 슝나 | [炊] |

(31)은 양순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활용형을 보인 것이다. 용언 어간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모음 어미와 결합한 형태를 중심으로 도출되는 모든 이형태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최종 기저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31ㄱ)의 ‘곱-’은 ‘곱-, 곱-’의 이형태를 갖는데 표면형 ‘곱는’은 비음화에 의해, ‘고투민’은 원순모음화가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므로 최종 기저형은 ‘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용언 어간 /Xㅂ-/류는 어간 말음 ‘ㅂ’이 규칙 활용을 하는 것이다. 이 방언에서 ‘곱-[曲]’은 (31ㄱ)과 같이 단수 기저형으로 존재하고, ‘곱-[炙]’은 복수 기저형으로 확인된다. (31ㄴ)의 /Xㅁ-/류도 잠정 기저형 ‘슝-’이 최종 기저형 ‘슝-’으로 결정된다. ‘슝-’은 어미의 성격과 관계없이 모두 ‘슝-’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31ㄴ)를 비롯한 /Xㅁ-/류는 /Xㄴ-/류의 어간과 함께 용언 어간말 ‘ㄴ, ㅁ’ 뒤의 경음화 현상에서 다루겠지만 표면형 ‘슝꼭’의 출현은 매우 흥미롭다. ‘슝꼭’은 이 방언에서 용언 어간말 자음 ‘ㄴ, ㅁ’ 뒤에서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수의적인 현상을 보이는 예 가운데 하나이다.

양순음 /Xㅁ-/로 끝나는 용언 어간 말음은 원래부터 어간말에 위치한 적이 없으므로 이 방언에서도 당연히 /Xㅁ-/류의 용언 어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앙어에서 어간 말음이 ‘ㅍ’인 용언 어간 ‘값-, 텃-, 옆-, 짚-’ 등은 이 방언에서 모두 어간 말음에 매개 모음 ‘ㅡ’가 첨가된 ‘ㅡ’ 확대형에서 다시 형태소 내부의 양순음 뒤 원순모음화를 거친 형태로 재구조화되었다. 이 때문에 이 방

언에서는 공시적으로 /Xㅍ-/류 어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Xㅍ-/류의 어간과 관련해서는 모음 ‘ㅓ’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도록 한다.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제주방언에서 양순음 ‘ㅂ, ㅁ’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형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32) 양순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목록

- ㄱ. /Xㅂ-/류: 곱-[隱], 꼽-[插]⁸⁴⁾, 굽-[曲], 뽕-[選], 씹-[咀], 업-[負], 입-[着衣], 잡-[執], 접-[摺], 즈-[拈] 등
- ㄴ. /Xㅁ-/류: 감-[捲], 굼-[洗髮, 髻], 남-[餘], 넘-[越], 다듬-[整], 담-[込], 더듬-[摸], 삼-[紮], 심-[植, 執]⁸⁵⁾, 슴-[炊], 음-[稔], 춤-[忍], 콸-의 품-[抱] 등

다음으로 용언의 어간 말이 치조음으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하고 그 목록을 확인하려고 한다. 치조음 가운데 ‘ㄷ’으로 끝나는 어간은 국어에 존재하지 않고, ‘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은 이 방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중앙어의 ‘있-[有]’은 이 방언에서 ‘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으로 나타난다. 어간 말이 ‘ㅌ’인 경우는 이 방언에서 매개 모음 ‘ㅡ’가 첨가된 확대형으로 모두 재구조화⁸⁶⁾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다음에서 치조음 ‘ㄷ’, ‘ㅌ’, ‘ㄴ’,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해 본다.

(33) 치조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활용형

- ㄱ. /Xㄷ-/류: 돋꼭~독꼭, 도당, 도드민, 돈는 [發芽]

84) ‘꼽-[插]’은 중부 방언, 경남 방언, 전남 방언에서도 확인된다. 김현(2006:115)에서 ‘꽃-’과 ‘뽕-’의 음운 구조 때문에 ‘꽃-’이 ‘뽕-’에 감염(contamination)되어 ‘꼽-’의 형태로 재구조화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85) ‘잡-[執]’을 뜻하는 용언 어간 ‘심-[執]’도 이 방언에서는 완벽한 패러다임을 갖춰 존재한다.

86) ‘ㅡ’ 말음 어간으로의 재구조화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경기와 서북방언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ㅡ’ 확대형 어간이 서남방언과 제주방언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김수영(2021:151)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ㄴ. /Xㅅ-/류: 근찌~그찌, 그성, 그스난~그시난, 근나	[劃]
ㄷ. /Xㄴ-/류: 안꼭~안꼭~양꼭, 아낭, 아느민, 안는	[抱]
ㄹ. /Xㄹ-/류: 놀꼭, 노라도, 놀명, 노난, 노는	[遊]

(33)은 자음 어미, 모음 어미, 매개 모음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을 보인 것이다. (33ㄱ)의 활용형을 통해 어간의 교체형 ‘돋-, 독-, 돈-’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형태 ‘돋-’은 조음 위치 동화로, ‘돈-’의 출현은 비음 어미 ‘-는’ 앞에서의 비음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잠정적으로 설정한 ‘돋-’으로 나머지 이형태를 설명할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기저형은 어간 말음 ‘ㄷ’을 가진 ‘돋-’으로 확정지을 수 있다. (33ㄴ)는 어간 말음이 ‘ㅅ’인 예를 어간 ‘긋-’을 통해 보인 것으로 (33ㄴ)의 표면형은 평파열음화 뒤 경음화, 조음 위치 동화, 중복 자음 탈락, 비음화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수의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매개모음 어미 ‘-으난’이 연결될 때 실현되는 ‘그시난’은 치조음 ‘ㅅ’ 뒤 전설고모음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로써 어간 말음 ‘ㅅ’을 가진 용언 ‘긋-’의 최종 기저형은 ‘긋-’이 된다. 다음 (34)에서 보이는 /Xㅅ-/류로 끝나는 용언의 기저형 목록은 중세국어 문헌어에서 ‘ㅅ’가 형태소 어간 말음 위에 나타나는 용언 어간의 경우로(정승철, 1995:153) 중앙어에서 ‘ㅅ’ 불규칙 활용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제주방언에서는 모두 ‘ㅅ’ 규칙 활용을 보이는 특징적인 것이다.⁸⁷⁾ ‘ㅅ’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들이 규칙 활용의 양상을 보이는 방언은 제주방언 외에도 동북방언, 충남 남부와 서남 방언 등이 있다.

(33ㄷ)에서 ‘안-’의 이형태 ‘앙-’의 출현은 조음 위치 동화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최종 기저형을 ‘안-’으로 설정할 수 있겠다. 다만 /Xㄴ-/류의 용언 어간에서 한 가지 짚어야 할 사항은 ‘안-+--꼭→안꼭’의 형태이다. ‘안꼭’은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표면형이다. 매우 수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용언 어간말 ‘ㄴ, ㄹ’ 뒤에서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제주방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음운 현상 가

87) 이승녕(1957:64-65)에서는 용언 어간 말음의 ‘ㅅ’이 중앙어에서는 ‘ㅅ’음을 거쳐 탈락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두 가지 경향성을 띠다면서 제주방언은 ‘ㅅ’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중앙어와 같이 탈락형이 힘을 얻고, 육지어의 압력에 의하여 ‘ㅅ’ 불규칙 활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 글의 조사에서도 제주방언 화자의 발화에는 여전히 제주방언에서 ‘ㅅ’이 우세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조사자의 발화 실수로 ‘ㅅ’을 탈락한 형태로 질문을 해도 돌아오는 답은 ‘ㅅ’ 유지형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방언의 ‘ㅅ’ 유지형은 적어도 이 지역 제보자들의 발화에서는 견고하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ㅅ’ 규칙 활용은 이른바 표준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세대차에서 크게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운데 하나이다. 이 역시 모든 제보자에게서 도출되는 표면형은 아니며 또한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안곡’ 류가 이 방언에 분명히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4장의 자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에서 살펴도록 한다.

(33ㄷ)는 모음 어미와 연결될 때 도출되는 ‘놀-’을 잠정 기저형으로 설정한 뒤 이 형태 ‘노-’의 출현에 대한 설명을 공시적인 음운 과정인 매개모음 어미 ‘-으X’형 앞에서의 ‘ㄷ’ 탈락과, 비음 어미 ‘-나’ 앞에서의 ‘ㄷ’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33ㄷ)의 최종 기저형은 ‘놀-’이 된다.

이 방언에서 치조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기저형 목록을 보이면 다음의 (34)와 같다.

(34) 치조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기저형 목록

- ㄱ. /Xㄷ-/류: 권-[收], 곧-[直], 굳-[固], 닫-[閉], 돋-[發芽], 묻-[埋], 믿-[信], 받-[受], 번-[蕈], 쏟-[瀉], 얻-[得], 질-[燃], 뜯-^ㄴ뜯-[摘] 등
- ㄴ. /Xㅅ-/류: 곳-[凍傷], 곳-[劃], 끌-[引], 낫-[愈], 뉘-[溫], 뭉-[碎], 벗-[脫], 붓-[腫], 빗-[梳], 𪎎-[粉], 솟-[聳], 씻-[洗], 씻-[有]⁸⁸⁾⁸⁹⁾, 앓-[奪], 잇-[連, 有]⁹⁰⁾, 웃-^ㄴ웃-[無], 웃-[笑], 젓-[搖], 좃-[啄]⁹¹⁾, 좃-[拾], 짓-[造], 짓-[紡] 등
- ㄷ. /Xㄴ-/류: 근-[刮]⁹²⁾, 끈-[切]⁹³⁾, 안-[抱], 신-[履] 등

88) 이 지역에서는 어두 경음인 ‘씻-’보다 ‘씻-’의 형태가 우세하다.
 89) ‘잇-’의 쌍형 어간 ‘잇-’이 존재한다. 단 둘의 활용형은 다르게 존재한다.
 90) ‘잇-[連]’과 ‘잇-[有]’은 다른 어간이지만 형태가 같다. ‘잇-[連]’과 ‘잇-[有]’은 ‘일곡, 이성, 이시민, 이시난, 인찌’와 같이 동일한 활용형을 보인다. 분명히 다른 어간이더라도 형태가 같으면 음운론적 논의에서는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함께 제시한다.
 91) ‘조시곡’의 발화가 추가로 확인된다. 단순 발화 실수인지 이것은 어미 ‘-곡’ 앞에 매개모음 ‘-’를 첨가하여 ‘-으곡’처럼 발화하는 유추적 평준화에서 온 것인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92) ‘긋-’의 의미를 가지는 ‘근-’이 존재하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현평효 외(2009)에는 ‘닭이 발톱으로 땅이나 널어 놓은 물건을 긋어 당기다’의 의미와 ‘갈퀴 따위로 널어진 검불을 긋어 모으다’의 의미의 ‘근-’이 모두 실려 있는데 이 조사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이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근곡~근곡, 근주~근주, 그녕, 그느민, 근느디’의 활용형을 보이며 특히 자음 어미와의 결합 시 경음화가 되지 않는 표면형이 경음화가 실현되는 것보다 더욱 자주 나타난다. 이것은 ‘근곡’ 자체가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형태로 화자의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93) ‘끈-’은 ‘끈곡~끈곡, 끈찌, 끈녕, 끈느민, 끈느’ 등의 활용형을 가지므로 여기서 어간말 ‘ㄴ’을 가지는 어간의 기저형으로 설정하였다. 여타 방언에서처럼 어간말 자음군 ‘ㄴs’을 가졌다면 자음 어미와의 결합 시 표면형 ‘끈곡’이나 ‘끈찌’ 등이 확인되어야 하지만 실제 표면형은 유기음화된 형태가 확

ㄹ. /Xㄹ-/류: 갈-[耕], 걸-[掛], 괘-[大聲], 골-[馱], ㄹ늘-[細], ㄹ물-[旱],
 굴-[磨], 끌-[引], 꺾-[藉], 널-[鋪], 놀-[遊], 늘-[補], 늘-[
 增], ㄹ-[飛], 드물-[稀], 돌-[回], ㄹ-[懸], ㄹ-[甘], 멀-[遠],
 멘들-∞만들-[造]⁹⁴⁾, 물-[賠, 嚙], 벌-[贏], 붕물-[疱], 불-[
 風, 吹], 빌-[祈], 뽕-[浣], 살-[住], 셀-[漏], 썰-[切], 수늘-[
 (품앗이)], 썰-∞쓸-[掃], 슬-[燒], 알-[知], 얼-[凍], 울-[泣],
 일-[起], 을-∞열-[開], 저들-[患]⁹⁵⁾, 줄-[縮], 질-[長, 汲], 즈
 물-[採], 즐-[小], 즈질-[細小], 털-[振], 팔-[賣], 흥글-[搖] 등

다음으로 제주방언에 경구개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활용형과 그 목록을 /X스-
 /류, /X츠-/류로 나눠 살펴려고 한다. 경구개음 가운데 ‘ㅈ’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
 간은 앞선 치조음 /Xㄸ-/류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방언만이 아니라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35) 경구개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활용형

- | | |
|--------------------------------|-----|
| ㄱ. /X스-/류: 굳꼭~국꼭, 구정, 구지난, 굳나 | [荒] |
| ㄴ. /X츠-/류: 쫓찌~쫓찌, 쫓차도, 쫓치명, 쫓는 | [追] |

(35ㄱ)과 (35ㄴ)는 경구개음 ‘스’, ‘츠’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하는
 예로 각각의 이형태들은 모음 어미와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형태로부터 음절말 평파
 열음화와 경음화, 조음 위치 동화, 중복 자음 탈락, 전설고모음화 등으로 설명이 가
 능해진다. 어간말에 ‘스, 츠’를 가지는 용언들은 이 방언의 매개모음 ‘으’를 가진 어
 미 ‘-으난, -으명, -으민’ 등과 연결될 경우 치조음 ‘스’과 마찬가지로 매개모음 어

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 방언에서는 자음 어미 ‘-꼭’, ‘-지’와의 결합에서 ‘끈꼭’과 ‘끈찌’가 실현되
 었으며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자료에서는 ‘[끈찌]’와 ‘[끄느라]’도 찾을 수 있었다.
 94) ‘멘들-~만들’은 쌍형 어간이다. 이전 시기의 ‘멘들-’의 형태는 ‘[니>끼]’ 변화의 흔적으로 볼 수 있
 으며 두 어간의 활용형 가운데 모음 어미 앞에서 부사형 어미 ‘-아’가 선택되는 것은 활용형 자체
 가 화자의 기억 속에 존재하여 나타나는 화석형이라고 본다.
 95) 부사형 어미 ‘-아/어’ 가운데 ‘-아’형을 취하여 ‘저드라’로 실현된다. 이것은 이전 시기의 ‘즈들-’
 의 활용형 ‘즈드라’가 그대로 화자의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다.



미 ‘으’가 전설고모음화된 ‘이’로 실현되는 경향이 강하다.

중양어의 ‘얏-’은 이 방언에서 ‘ㅈ’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속한다. 정승철 (1995:184)에서 문헌어에 존재했던 ‘ㅈ’ 자음군 말음 용언 어간은 제주방언의 ‘얏-, 옛-’을 통해 문헌어의 형태보다 기원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기문 (1998:170)에서도 ‘얏-, 옛-’은 간혹 ‘얏-, 옛-’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이때의 ‘얏-, 옛-’은 고행으로 매우 드물게 쓰이다가 소실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 지역 제보자의 발화에서 ‘얏-’은 ‘안쪽~악쪽~아쪽, 아잔, 아지민, 아지난, 안는다’ 등의 교체 양상을 보인다. 현대 국어의 모든 방언에서는 어간말 자음군 ‘ㅈ’을 가진 형태가 나타나지만 이 방언에서만 유일하게 ‘얏-’의 형태가 관찰된다는 점은 매우 특기할 만하다. 한편, 이 방언에서 경구개음 ‘ㅊ’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은 ‘쫓-’이 유일하며 이것은 ‘쫓-’과 ‘쫘-’의 형태로도 확인된다.

(35)과 같은 방법을 적용해 설정한 제주방언의 경구개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기저형 목록을 보이면 다음의 (36)과 같다.

(36) 경구개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기저형 목록

ㄱ. /Xㅈ-/류: 굿-[荒], 늦-[晚]⁹⁶, 늦-[底], 맞-[適], 멧-[儼, 止], 얏-[坐], 젓-[濶], 좃-[頻], 좃-[探]⁹⁷ 등

ㄴ. /Xㅊ-/류: 쫓-(쫓-~쫘-)[追]⁹⁸ 등

96) 제보자 오○○(1932년생) 씨의 발화에서 ‘넛쪽, 니정, 니지민’의 활용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넛-’과 같은 쌍형 어간의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니지민’은 전설 고모음화가 적용된 표면형이다. 다만 오○○ 씨 외 나머지 제보자들에게서는 ‘넛-’의 실현형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의귀리 제보자 현○○(1937년생) 씨의 발화에서만 한 차례 ‘늦게’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 ‘넛이[니지]’의 형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97) 간혹 ‘츠즈쪽~츠지쪽’ 형태로도 실현되기도 한다.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첫째는 제주방언에서 용언 어간말 자음들 가운데 ‘ㄷ’ 확대형으로 재구조화해 나가는 데에 어간말 ‘ㅈ’을 가진 형태도 참여했음을 보인다는 것이다. 제주방언이 개음절 구조를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츠즈쪽~츠지쪽’의 실현형과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을 중복 분포로 보아 기저형을 설정한다면 ‘쫘-’의 쌍형 어간 ‘츠즈-’, ‘츠지-’가 될 수 있겠다. 또 다른 해석은 자음 어미 ‘-쪽’이 이형태 ‘-으쪽’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ㄷ’로 끝나는 어간으로의 재구조화가 매개 모음 어미 ‘ㄷ’와의 결합형으로 어간이 평준화되었다는 것이다. 어미의 기저형을 설정하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98) 어간 말음이 ‘ㅊ’인 것은 ‘쫘-’이 유일하다. 다만 ‘쫘-’은 ‘쫘치-’, ‘조치-’의 형태도 공존하므로 어간말 자음으로의 ‘ㅊ’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서울방언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가 존재하는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유희재(2006:112-113)을 참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개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해보기로 한다. 제주방언에서 연구개음으로 끝나는 어간은 /Xㄱ-/류밖에 없다. 연구개음 ‘ㄱ’을 가지는 용언 어간은 이 방언에서 일찍이 모두 ‘-’가 첨가된 형태로 재구조화되어 존재한다.

(37) 연구개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활용형

/Xㄱ-/류: 삭꼭~사꼭, 삭쭈, 사가도, 사그민, 상나 [消]

(37)의 활용형은 자음 어미 ‘-꼭, -쭈’와 모음 어미 ‘-어도’, 매개모음 어미 ‘-으민’과 비음 어미 ‘-나’와 결합했을 때 실현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표면형 ‘상나’는 비음화가 적용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삭-’을 최종 기저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ㄱ’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가운데 ‘익-[讀]’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익-’은 ‘리’를 가진 어간 ‘읽-’에서 ‘익-’으로 어간의 재구조화가 일어난 것이다. 제주방언에서는 어간말에 ‘리’이 올 경우 ‘르’를 탈락시키는 형태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데 ‘익-’은 자음 어미와의 결합형으로 완전히 재구조화되었다. 국립국어원(2013), 『제주지역어 전사 보고서』에 단 한 차례 ‘일거서’의 활용형이 보고되었는데 만약 이 경우를 고려한다면 제주방언에서 ‘讀’의 의미를 가진 형태는 ‘읽-’, ‘익-’의 쌍형 어간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 단 이 보고서에서 나타난 활용형은 모음 어미가 ‘-아서/어서’ 연결될 때이며, 이 모음 어미 자체가 중부 방언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면 ‘일거서’의 실현은 중부 방언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제주방언 노년층 화자에게 나타나는 모음 어미 ‘-아서/어서’의 출현 빈도는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 글의 조사로 구한 활용형에서는 ‘익-’을 기저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37)과 같은 방법으로 교체하는 /Xㄱ-/류의 용언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하고 그 목록을 보이면 다음의 (38)과 같다.

(38) 연구개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기저형 목록

/Xㄱ-/류: 녹-[解], 막-[防], 먹-[食], 문직-[抄], 박-[釘], 삭-[消], 씩-[腐], 속-[苦, 斯], 식-[冷], 어둑-[暗], 익-[讀, 熟], 옥-∞역-

[成熟], 죽-[少], 죽-[死] 등

이제 자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중 마지막으로 후음 ‘ㅎ’, ‘ㅇ’으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해 본다.

(39) 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활용형

- ㄱ. /Xㅎ-/류: 노콧, 노치, 노앙~냥, 노으민, 논는 [放]
- ㄴ. /Xㅇ-/류: 지콧(~질콧), 지찌, 지영, 지으민(~지민), 진는 [搗]

(39)에서 보이는 활용형은 자음 어미 ‘-콧’, ‘-치’, 모음 어미 ‘-앙/영’, 매개모음 어미 ‘-으민’, 비음 어미 ‘-는’이 연결된 것이다. 이들 활용형으로부터 (39ㄱ)은 ‘노-, 놓-, 논-’의 이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노콧’, ‘노치’는 유기음화를 적용받은 것이고, ‘논는’은 평파열음화 뒤 비음화의 적용으로 볼 수 있다. 이형태 ‘노-’는 매개모음 어미 ‘-으X’와의 결합에서 후음 탈락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최종 기저형은 ‘놓-’이 될 수 있다. (39ㄴ)은 ‘지ㅎ-, 지-’의 이형태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이 방언의 음운 체계를 설정할 때 살펴보았듯이 ‘지콧(~질콧)’, ‘지찌’의 실현은 음소 ‘ㅎ’을 설정할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모음 어미나 매개모음 어미 앞에서는 ‘ㅎ’이 탈락하고, 비음 어미 앞에서는 평파열음화를 거친 후 비음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형태의 교체형들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설정한 후음 ‘ㅎ’, ‘ㅇ’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기저형 목록을 아래 (40)에서 제시한다.

(40) 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목록

- ㄱ. /Xㅎ-/류: 낳-[産]⁹⁹⁾, 놓-[放]¹⁰⁰⁾, 좋-[好]

99) 김광웅(1986:55)에서는 ‘나도, 낳, 나난, 나라’의 활용형을 제시하면서 ‘낳-’을 기저형(또는 기본형)으로 두고 이를 용언 어간말 자음의 활용 시에 중화 현상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기술하였는데 이것은 중화 현상으로 설명될 것도 아니며 제주방언의 ‘낳-’과 ‘나-’ 쌍형 어간을 잘못 판단한 데에서 발생한 오분석이라고 판단된다.

100) ‘노-’는 제주방언의 보조 용언 ‘-아/어 노-’의 형태로 더 많이 사용된다. 이 글의 보조 자료인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4-2016)에는 매개모음 ‘-으민, -으난, -으명’ 앞에 어간

ㄴ. /Xㅎ-/류: 짱-[搗]

(40ㄱ)과 (40ㄴ)의 용언 어간들은 이 방언에서 어간 말에 후음 ‘ㅎ’, ‘ㅎ’이 존재하는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가 각각 완전한 패러다임을 가지며 공존한다. 다음의 (41)에서 후음 ‘ㅎ’의 쌍형 어간의 활용형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41) 후음 ‘ㅎ’이 없는 쌍형 어간의 활용형

ㄱ. 나곡, 나지, 낭, 나난, 나는	[産]
ㄴ. 노곡, 노지, 놌도, 노명, 노나	[放]
ㄷ. 조곡, 조양, 조민, 조는~존	[好]

(41)는 자음 어미 ‘-곡’, ‘-지’, 모음 어미 ‘-앙’, ‘-아도’, 매개모음 어미 ‘-으난’, ‘-으명’, ‘-으민’, ‘-은’, 비음 어미 ‘-나’, ‘-는’ 등이 결합된 활용형을 제시한 것이다. (41ㄱ, ㄴ, ㄷ)의 표면형을 보면 자음 어미 앞에서 유기음화로 실현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9ㄱ)에서 살펴보았던 형태와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저형을 설정한 (40ㄱ)은 이 방언에서 ‘나-’, ‘노-’, ‘조-’의 쌍형 어간을 갖는다. (41)의 발화는 이 방언 화자들에게 무척 자연스러운 것으로 다른 방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형태이다. 후음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과 그렇지 않은 용언 어간이 공존하는 것은 후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모음 어미, 매개 모음 어미의 결합형에서 ‘ㅎ’이 탈락한 표면형으로부터 유추적 평준화가 작용한 것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자음군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해보려 한다. 제주방언의 어간말 자음군에 대한 논의는 정승철(1988, 1995)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정승철(1998:18, 1995:183)은 현대 제주방언에서 어간말 자음군은 용언 어간의 경우

말음이 ‘ㅎ’으로 끝나는 용언이 연결되는 경우를 ‘농민, 농난, 농명’ 등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것은 기저형을 ‘ㅎ’ 말음이 탈락한 형태로 고려하지 않아 실제 구술 발화에서 실현되는 음성형 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에서 연유한 표기 오류이다. 제주방언에서 어간 말음이 ‘ㅎ’으로 끝나는 어간과 ‘ㅎ’이 탈락한 용언 어간의 쌍형을 인정한다면 위와 같은 표기 오류는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한편 ‘농-[放]’는 이 방언에서 ‘녕-[入]’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방언 노년층 화자에게 ‘녕-[入]’가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

에 나타나는 ‘ㄹ, ㄷ, ㅌ’ 자음군 외에는 체언, 용언과 관계없이 공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이 글에서는 정승철(1998, 1995)와는 달리 체언 어간말 자음군 ‘ㄱ’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ㄷ’ 자음군을 가진 체언의 기저형도 제시하였다. 이번에는 제주방언의 용언 어간말 자음군으로 어떤 것들이 출현하고 기저형으로 설정될 수 있는지 다음의 (42)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42) 자음군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활용형

ㄱ. /Xㄹ-/류: 늑꼭, 늑찌, 늘거도, 늘그민, 능는	[老]
ㄴ. /Xㄷ-/류: 점꼭, 점찌, 절머사, 절무난, 점는	[淸]
ㄷ. /Xㄷ-/류: 뵓꼭, 뵓찌, 불방, 불부난, 뵓나	[踏]

(42)는 자음 어미 ‘-꼭, -찌’, 모음 어미 ‘-아/어도, -양/영, -아사/어사’, 매개모음 어미 ‘-으민, -으난’, 비음 어미 ‘-나’와 결합한 활용형의 예이다. (42ㄱ)는 교체형 ‘늑-, 늑-, 능-’이 확인되며 (42ㄴ)는 교체형 ‘점-, 절-’이, (42ㄷ)는 교체형 ‘뵓-, 뵓-, 뵓-’이 나타난다.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 실현되는 형태는 모두 어간말에 자음군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나머지 이형태를 설명하면 공통적으로 자음 어미 앞에서 ‘ㄹ’ 탈락이 관찰된다. (42ㄱ)는 비음 어미 ‘-는’과 결합할 때 ‘능는’이 도출되는 데 이것은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설명된다. 자음군 단순화, 평파열음 뒤 경음화, 양순음화 등과 같은 공시적인 음운 현상으로 나타나는 활용형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 특히 (42ㄴ)에서 ‘점꼭’, ‘점찌’ 등의 표면형은 앞서 /Xㄴ-/, /Xㄹ-/류의 용언 어간이 자음 어미 ‘-꼭’, ‘-찌’와 결합할 때 경음화가 적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수의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어간말 자음군 ‘ㄷ’ 뒤에서는 필수적으로 경음화가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어간말 자음군 ‘ㄷ’ 뒤에 자음 어미가 연결되는 환경이 용언 어간말 ‘ㄹ’ 뒤에 자음 어미가 연결되는 것과 다르지 않는데 이 둘에서 경음화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독특한 현상이다.

(42)의 최종 기저형은 ‘늑-, ‘절-, ‘뵓-’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42)처럼 이 방언에서 관찰되는 자음군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목록을 다음의 (43)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43) 자음군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기저형 목록

ㄱ. /X_리-/류: 긁-[刮], 늙-[老], 맑-[淸], 밝-[明], 엮-[構], 훑-[僣]

ㄴ. /X_리-/류: 굵-[膿], 굶-[飢], 닮-[似, 如], 끓-[烹], 짙-[靑]

ㄷ. /X_리-/류: 밟-[踏], 짧-[短]

(43)에 제시한 자음군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기저형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해 살펴보고 자음, 자음군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기저형 설정은 마무리 지으려 한다.

먼저 (43ㄱ)의 ‘긁-’은 ‘글그-’처럼 ‘긁-’의 어간에 ‘-’가 첨가된 확대형이 공존한다. ‘글그-’는 이 방언에서 ‘글그곡, 글그주, 글그경, 글그민, 글그명, 글그는’의 활용형으로도 확인되어 쌍형 어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예는 (43ㄴ)의 ‘닮-’의 쌍형 어간 ‘달무-[似]’, (43ㄷ)의 ‘밟-’의 쌍형 어간 ‘블르-[踏]’, ‘짧-’의 쌍형 어간 ‘졸르-~쪼르-[短]’가 공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어간 ‘달무-’는 ‘닮-→달므-→달무-’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닮-’ 어간에 1차적으로는 ‘-’가 첨가되고 이후 양순음 ‘ㄹ’ 아래에서 ‘-’가 ‘ㄴ’로 양순음화가 적용된 것이다. 이 방언에서는 양순음 ‘-’의 경우 형태소 내부에서 원순모음화가 적용된다. ‘짧-’의 쌍형 어간 ‘졸르-~쪼르-’는 중세국어의 ‘더르-’의 후속형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짧-’은 오히려 표준어의 영향으로 어간말 ‘ㄷ’의 형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간말 자음군 /X_리-/, /X_리ㅅ-/, /X_리ㅈ-/, /X_리ㅊ-/, /X_리ㅌ-/류의 용언 어간은 이 방언에 없다. ‘ㄴㅅ’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어간 ‘없-’은 ‘ㅅ’으로 끝나는 어간 ‘엇-[無]’으로 존재한다. 중앙어의 /X_리-/류 어간 ‘끊-[切]’은 ‘ㄴ’으로 끝나는 어간 ‘끈-’으로, ‘많-[多]’, ‘얹-[胛]’ 등은 각각 ‘하-’, ‘아녀-’의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으로 나타난다. 또 어간말 ‘ㄷ’을 가진 어간으로 기대되는 ‘핥-[舐]’, ‘훑-[擻]’ 등은 ‘할트-’, ‘홀트-~홀트-’로 재구조화되었다. 이 방언 화자들은 어간말 ‘ㄷ’이나 ‘ㄷ’을 가진 ‘옴-[吟]’¹⁰¹⁾, ‘옴-[可]’ 어간을 표준어형으로 인식한다. 용언 어간말 자음군 ‘ㄷ’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끓-, 끓-, 닮-, 뚫-, 얹-, 잃-’ 등은 각각 ‘꼴리-

101) 국립국어원(2005, 2006, 2007, 2008) 자료에서는 ‘을프곡, 을프지, 을퍼라, 을프면, 을프난’의 형태로 확인되는데 매개모음 ‘-’를 첨가한 형태로 재구조화된 것에 따른 유추적 평준화에 의해 실현된 형태라고 판단된다.

[跪], 끌르-~끌리-[湯], 다이-[扨], 풀르-~풀르-[穿], 알르-[通], 일르-[失] 등으로 재구조화되어 어간말 ‘ㄹ’ 자음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3.2.1.2.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

다음에서 제주방언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의 기저형을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분한 후 다시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44) 전설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활용형

ㄱ. /X] -/류: 기곡, 기영, 기민, 기난, 기는	[匍]
ㄴ. /X ㅚ -/류: 베곡, 베지, 베영, 베민, 베난, 베는	[枕, 重]
ㄷ. /X ㅓ -/류: 깨곡, 깨주, 깨영, 깨민, 깨나	[破]

(44)는 자음 어미 ‘-곡, -지’, 모음 어미 ‘-양/영’, 매개모음 어미 ‘-으민, -으난’, 비음 어미 ‘-나, -는’ 등이 용언 어간에 뒤따를 때 실현되는 활용형을 제시한 것이다. 용언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므로 자음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을 잠정적인 기저형으로 설정하여 이형태를 살펴보면 된다. (44ㄱ, ㄴ, ㄷ)의 활용형은 모두 모음 어미 ‘-양/영’ 앞에서 ‘y’ 첨가, 매개모음 ‘-으X’형 앞에서 ‘ㄹ’ 탈락이 적용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잠정적으로 설정한 기저형은 타당성을 확보하여 최종 기저형이 된다. 다만 (44)에서는 1음절 어간의 기저형을 예로 보였으나 2음절 이상의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할 때는 ‘꼴리곡, 꼴령, 꼴리민, 꼴리는’ 등의 활용형 중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이 ‘꼴령’으로 실현되므로 이때는 반모음화가 적용된 것으로 최종 기저형을 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정한 전설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기저형 목록을 1음절, 2음절 이상으로 나눠 제시하면 다음의 (45)과 같다.

(45) 전설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기저형 목록

- ㄱ. /X | -/류: (1음절) 기-[匍], 비-[割, 空]¹⁰², 빠-[散], 시-[有], 시-[酸],
이-[載], 지-[負], 지-[敗], 찌-[插], 치-[烝, 打], 피-[開]
(2음절 이상) 가리-[隱]¹⁰³, 거리-[抒], 거피-[脫], 건지-[撈], 꺾리-[闡], 고리-[糞], 고지-[全], 고치-[改], 기사리-[燋], 끌리-[跪], 끌리-[湯], 기다리-[待]¹⁰⁴, 그리-∞기리-[慕, 畫], 마리치-[教], 냉기-[餘], 늑찌-[匱], 느리-[降],
다올리-[糲], 다이-[抗]¹⁰⁵, 다치-[傷], 답찌-[餉], 데끼-[投], 데미-[積], 데우치-[燂], 텅기-∞텅이-[行]¹⁰⁶, 두두리-[打], 두리-[幼], 둥기-[引], 딱리-[撻], 마시-[飲], 모시-[侍], 무치-[齧], 물리-[嬪], 므치-[終], 밀리-[使乾], 바찌-[貢], 버치-(힘에 부치다), 베리-[察], 부리-[役, 卸], 부비-∞비비-[刮], 부찌-[使着], 븃디-[近], 불리-[使踏], 숨비-[沒], 시기-[使], 시치-[洗], 씨-[强], 슬지-[肥], 슬피-[察], 야니-[否], 오비-[掘], 와리-[急], 이기-[勝, 挺], 전디-[耐]¹⁰⁷, 지지-[嚙], 지치-[疲, 妨], 즐리-[扮, 饌], 후리-[毆], 흘치-[汙]
- ㄴ. /X ㅁ -/류: 떼-[隔], 메-[繫, 縛, 耘], 바레-[見], 베-[枕, 重], 세-[算], 씨-[强]¹⁰⁸
- ㄷ. /X ㅂ -/류: 개-[霏, 叢, 混], 깨-[破, 醒], 내-[出], 노래(E)-∞놀래(E)-[驚], 대-[接], 보내(E)-[送], 배-[孕], 빼-[拔], 새-[曙], 재-[測, 依, 速], 지내(E)-[送], 튼내(E)-[想出]

102) ‘비-[割]’는 ‘꺾> |’ 상승에 의해 재구조화되었다.

103) 현평효 외(2009)에서는 ‘마리-’가 나타나지만 이 글의 조사에서는 ‘·>ㅁ’의 변화가 나타난 ‘가리-’ 형태만 확인되었다.

104) 국립국어원(2005, 2006, 2013)의 자료에는 “경 오래 지드리지 말라”, “지드령 을 싸름”, “아방 죽 을 때까지 지다럼시냐?” 등이 확인된다.

105) 중부방언에서 ‘닭-’을 가리키는 어간이다.

106) ‘텅기-’와 ‘텅이-’는 쌍형 어간으로 나타난다.

107) 현평효 외(2009)에서는 ‘즌디-’가 표제어로 나타나 있으나 이 글의 조사에서는 ‘전디-’의 교체형만을 얻었다.

108) ‘씨-’로도 나타난다.

앞선 2장에서 제주방언의 단모음 ‘ㅐ’는 1음절에서는 ‘ㅐ’와의 대립이 분명하나 2음절 이하에서는 대립의 변별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글의 조사에서 (45ㄷ)의 ‘노래-ㄴ놀래(E)-[驚]’, ‘보내-[送]’, ‘지내-[送]’ 등과 같은 용언 어간은 실제 발화에서 2음절의 ‘ㅐ’가 ‘ㅐ’와 ‘ㅐ’의 중간음인 [E]로 실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2음절 이하의 ‘ㅐ’를 중앙어의 표기를 살려 적되 그 음의 실현이 중간음 [E]로 나타남을 밝혀 적기로 한다.

다음으로 후설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해 보려 한다. 이 방언에서 후설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기저형 가운데 /Xㅓ-/류와 /X·-/류 어간은 없다. 유일하게 ‘ㅓ’를 어간으로 가지는 ‘허-’의 경우 복수 기저형을 갖는 불규칙 용언이고, ‘·’로 끝나는 어간은 정승철(1995:122)에서 ‘츄-[鹹]’의 ‘·’형과 ‘차-’의 ‘ㅓ’형이 공존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 글의 조사에서는 ‘차-’와 ‘짜-’가 공존할 뿐 /X·-/ 어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에서 /Xㅓ-/ , /X·-/류를 제외한 /Xㅡ-/ , /Xㅓ-/ , /Xㅓ-/ , /Xㅓ-/류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활용형과 기저형 목록을 확인해 본다.

(46) 후설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활용형

ㄱ. /Xㅡ-/류: 트곡, 트주, 텅, 트난, 트는	[浮]
ㄴ. /Xㅓ-/류: 사곡, 사도, 사난, 사는	[立, 賣]
ㄷ. /Xㅓ-/류: 쭈곡, 쭈영(~썰), 쭈민, 쭈나	[粥]
ㄹ. /Xㅓ-/류: 꼬곡, 꼬양, 꼬난, 꼬는	[絢]

(46)에 제시된 활용형은 후설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것을 보이는 예다. (46ㄱ)에서 표면형 ‘텅’은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말의 ‘ㅡ’가 탈락된 것이고, (46ㄷ)의 ‘쭈-+-양/영→쭈영(~썰)’의 표면형은 반모음화가 적용된 형태가 우세형 ‘쭈영’과 공존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매개모음 어미 ‘-으민, -으난’과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형태들은 ‘ㅡ’가 탈락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 과정을 거쳐 (46ㄱ, ㄴ, ㄷ, ㄹ)는 각각 ‘트-’, ‘사-’, ‘쭈-’, ‘꼬-’가 최종 기저형이 된다.

후설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기저형 목록을 보이면 (47)과 같다.

(47) 후설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기저형 목록

- ㄱ. /X—-/류: ㄱ-[消], ㅋ-[大], ㅌ-[浮], ㅍ-[苦, 用], ㄷㅌ-[煮], ㅍㅌ-[酌], ㄷㅇ-[沈], ㅅㅌ-[止], ㅅㅇ-[植]¹⁰⁹⁾, ㅈㅌ-[早], ㅈㅇ-[閉], ㅊㅌ-[甞], ㅊㅇ-[乾, 裁], ㅍㅌ-[湓, 臑], ㅍㅌ-의ㅍㅌㅌ-[短], ㅍㅌ-[短], ㅍㅌ-[短], ㅋㅌ-[吹], ㅎㅌ-[流]¹¹⁰⁾
(어간 ‘—’ 확대형)¹¹¹⁾
가ㅌ-의까ㅌ-[剪], 거ㅌ-의꺼ㅌ-[切], 마ㅌ-의ㅌㅌ-[如], 나ㅌ-[釣], ㄷㅌ-의ㅌㅌ-[修, 煮], ㄷㅌ-[蓋, 閉]¹¹²⁾, ㅍㅌ-의ㅍㅌㅌ-[穿]¹¹³⁾, 무ㅌ-[束], 마ㅌ-[任, 臭], 바ㅌ-[唾]¹¹⁴⁾, 보ㅌ-[炒], 부ㅌ-의부ㅌ-[着], 시ㅌ-[載]의실ㅌ-[載], 서ㅌ-의서ㅌㅌ-[雜], 야ㅌ-[淺], 여ㅌ-[編], 할ㅌ-[舐], 허ㅌ-~허ㅌㅌ-[散], 홀ㅌ-의홀ㅌㅌ-[擻]
- ㄴ. /Xㅌ-/류: 가-[去], 까-[馘, 剝], 나-[出, 産], 만나-[遇], ㅍㅌ-[拔], 사-[立, 賣]¹¹⁵⁾, ㅍㅌ-[點燈, 汐, 低], 자-[眠], ㅍㅌ-[績, 治棺], 카

109) 이 방언에서 /Xㅌ-/류의 용언 어간 ‘ㅅㅌ-’과 쌍형 어간으로 존재한다.
110) 남원읍 지역에서는 어간의 기저형이 ‘ㅎㅌ-’인 형태만 관찰되었는데 국립국어원(2011)에는 ‘호르곡, 흐르지, 흘링, 흐르난’의 활용형이 보인다. 이 경우는 자음 어미 ‘-곡’ 앞에서만 ‘호르-’가 출현하는 것을 고려하여 기저형을 설정해야 한다. 한편 조사된 제주방언 자료에서 단수 기저형을 가지는 ‘Xㅌㅌ-’형들은 ‘ㄱ+ㄱ’의 안정된 음절 구조를 가진 이형태가 존재하여 유추가 가능해져 패러다임의 규칙화의 결과(강창석, 1984:216)가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111)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들은 앞서 기원적으로 자음 어간이었던 것이 어간 말음에 ‘—’가 첨가되어 ‘—’를 가진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들이다. 대개 어간 말음이 ‘ㅍ, ㅌ’인 유기음, ‘ㄱ’인 경음, ‘ㅍ, ㅌ, ㅌ’과 같은 자음군일 때 주로 ‘—’가 첨가된 형태로 재구조화되었다.
112) ‘ㄷㅌ-’는 정승철(1995:193)에서 용언 어간 ‘담-’에 접사 ‘- *그-’가 결합하여 ‘ㄷㅌ-’가 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제보자들이 ‘ㄷㅌ-’를 사용하는 문맥을 살펴보면 ‘ㄷㅌ-’는 ‘담-’의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뒸-’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ㄷㅌ-’가 존재하기는 하나 ‘ㄷㅌ-’의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에서 확인되는 ‘똥-’의 활용 ‘똥번, 똥찌’ 등은 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배영환(2013)에서는 ‘ㅍㅌ-의ㅍㅌㅌ-’형이 대체로 경기를 중심으로 한 중부방언과 강원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은 이 지역에 나타나는 표준어의 ‘르-’형이 ‘르르-’ 형태로 실현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도 배영환(2013)의 논의처럼 제주방언에서 나타나는 ‘ㅍㅌ-’형이 ‘르르-’ 형태로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정승철(1995:143-144)에서는 이것의 기저형을 ‘똥루-’로 보았다.
114) 제주방언과 북한방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똥-’의 형태로 나타난다(김수영, 2021:98). 정승철(1995:193)과 현평효 외(2009)에는 ‘바ㅌ-’가 나타나나 이 글의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115) ‘사-(立)’는 이기문(1977b)에서 ‘스다’를 ‘*스-’의 재구를 통해 ‘으>으’의 반모음 탈락에서 기인한

-[燒, 混], 타-[摘, 乘], 트나-의뜨나-[異], 파-[掘], 차-[績, 蹴, 滿, 佩, 鹹], 하-[多]

ㄷ. /Xㅌ-/류: (1음절) 꾸-[借], 누-[尿], 두-[置], 쑤-[粥], 주-[與]¹¹⁶, 추-[舞]

(2음절 이상) 가두-[囚], 거두-[收], 꺾우-[湯], 마꾸-[畜], 마추-[備], 내우-[搯], 다우-[築]¹¹⁷, 모두-[蓄]¹¹⁸, 메우-[填, 使擔], 바꾸-[換], 배우-[學], 부수-[破], 비우-[注], 싸우-[鬪], 소꾸-[均, 숙다], 시꾸-[夢], 지우-[使負], 질루-[飼], 페우-[布, 使布], 피우-[吸煙]

(1, 2음절 ‘양순음+ㅌ’형)

푸-[汲], 가푸-[返], 고푸-[餓], 노푸-[高], 달무-[似], 더푸-[蓋], 아푸-[痛], 야푸-[淺], 얄부-[薄], 어푸-[泛], 실푸-[厭], 지푸-[深], 지뿌-[喜]

ㄹ. /Xㄴ-/류: 꼬-[索]¹¹⁹, 보-[見], 쏘-[射]¹²⁰, 오-[來]¹²¹, 초-[揚], 호-[絳], 나오-[出]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 글에서는 ‘사-’로 조사되어 ‘사-’를 기저형으로 삼는다. ‘스->사-’를 어두 음절의 ‘·>ㅌ’의 변화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제시한 ‘카-[燒]’ 역시 ‘마->카’로 재구조화한 것으로 보인다.

116) 제주방언에는 중앙어에서 보충법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다오, 달라’와 같은 형태가 ‘도라’로 실현된다. 이진호(2002:54)에서는 ‘달-’이라는 어간이 해라체의 명령형, 그것도 발화자 ‘자신’에게 주게끔 하는 명령형으로 쓰일 때만 나타나는 것인데 이처럼 보충법에 의해 생성된 활용형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형성된다기보다 활용형이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하였다. 제주방언의 ‘도라’ 역시 동일한 형태라고 판단되며 활용형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는 어휘부 등재로 보고자 한다.

117) ‘답꼭’, ‘다옴꼭’도 관찰된다. 이 경우 ‘잡~싸우-’의 형태가 존재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118) 고동호(1997:35)에서는 ‘모따도’의 실현 때문에 단수 기저형 ‘모도-’로 보고 있다. 이 자료만으로는 기저형 설정이 어렵다.

119) 제보자로부터 ‘폼꼭, 꼬우꼭’, ‘꼬우민, 꼬우멍’ 등의 형태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들은 단수 기저형 ‘꼬-’와 달리 ‘폼~꼬우-’의 복수 기저형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제주방언에서는 ‘꼬꼭, 폼꼭, 꼬우꼭’처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어간 말음이 모음인 경우, ‘ㅂ’인 경우, ‘X우’인 경우가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120) 바로 위의 각주 117)에서 보는 것처럼 복수 기저형 /Xㅂ~X우-/형도 존재한다.

121) 모음 어미 ‘-양/영’와의 결합에서는 ‘왕’, ‘오랑’이 공존하는데 이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모음 어미 앞에서만 나타나는 ‘오랑’이 화자의 어휘부에 등재해 있는 것 정도라고 덧붙일 뿐이다. ‘나오-’ 역시 모음 어미 앞에서 ‘나오랑, 나오란, 나오라사’ 등이 존재한다. 정승철(1995:119)은 ‘올-’, ‘오-’가 이전 시기의 제주방언에 파생접미사 ‘*-(으/을)ㄹ’이 존재했던 흔적이라 보고 있다. 다만 공시음운론적 관점에서 ‘오랑’은 모음 어미와 결합 시에만 도출되는 형태이므로 공시적인 결합에 의해 형성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랑’ 등과 같은 형태는 활용형 자체가 어휘부에 등재되었다고 보려 한다.

다음 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하기 전에 (47ㄷ)의 /X_ㅏ-/류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 한다. 먼저 그 첫 번째는 양순음을 제외한 자음 1음절을 가진 ‘ㄴ’형이고, 두 번째는 양순음을 제외한 자음 2음절 이상의 ‘ㄴ’형, 마지막으로 양순음이 선행하는 1, 2음절 ‘ㄴ’형이다. 세 가지 모두 단수 기저형이지만 음운 규칙의 적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기저형 목록을 제시하였다.

먼저 양순음을 제외한 1음절의 ‘ㄴ’형의 경우 다른 방언 및 중앙어의 기저형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ㄴ’형의 활용형은 모음 어미와 결합 시 ‘어간+어미’가 보존되는 형태, ‘꾸엉’, ‘두엉’, ‘주엉’, ‘쑤엉’ 등과 같은 표면형으로 대개 실현되지만 반모음화가 적용된 ‘평’, ‘땡’, ‘쨍’, ‘쨍’의 형태도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양순음을 제외한 2음절 이상의 ‘ㄴ’형은 첫 번째와 달리 1음절의 모음이 이른바 양성 모음이든 음성 모음이든 관여하지 않고 모음 어미 ‘-아’가 결합되는 형태이다. ‘가두-[囚], 거두-[收], 마꾸-[畜], 마추-[備], 금추-[隱], 모두-[蓄], 마추-[適], 바꾸-[換], 배우-[學], 부수-[破], 싸우-[鬪], 소꾸-[均, 슈다], 시꾸-[夢], 질루-[飼]’ 등이 이전 시기 2음절에 ‘ㄱ’로 존재했던 것들인데 ‘ㄱ>ㄴ’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모음 어미와의 결합에서는 이전 시기 화석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다만 ‘다우-[築], 데우-[卷], 메우-[填], 지우-[使負], 비우-[注], 페우-[布, 使布], 피우-[吸煙]’ 등은 이전 시기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모음 어미와의 결합에서 ‘-아’를 선택하여 결합하는 형태들이다.

마지막으로 양순음이 선행하는 1, 2음절 ‘ㄴ’형이다. 이들은 많은 방언에서 /푸~프-/ , /푸~ㅍ-/ , /푸~퍼-/ 등의 복수 기저형으로 설정되는 형태들인데 이 글에서는 단수 기저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복수 기저형 /푸~프-/의 ‘ㅍ’ 뒤 ‘으’는 어떤 표면형에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기저형 설정 조건을 위배한다. /푸~ㅍ-/의 ‘ㅍ’은 하나의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어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국어의 형태소 구조 조건을 어기고(이진호, 2008:213), /푸~퍼-/의 ‘퍼’는 1음절 어간 ‘푸-’일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2음절 이상의 ‘양순음+ㄴ’형에서 1음절 어간이 ‘ㅏ’일 경우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가푸-[返], 고푸-[餓], 노푸-[高], 더푸-[蓋], 아푸-[痛], 얄부-[薄], 어푸-[泛], 실푸-[厭], 지푸-[深], 지뿌-[喜]’ 등에 모음 어미 ‘-아/어X’가 연결되면 ‘가팡, 고푸, 노팡, 더팡, 아팡, 얄방, 어팡, 실팡, 지팡, 지뿌’ 등으로 실현된다. 이들은 어간

말음인 ‘ㄱ’인 ‘쑤-’, ‘주-’ 등의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 ‘쑤엿(~쑤), 주엿’ 등과 같이 나타나는 것과 다르다. ‘ㄱ’ 앞에 존재하는 음의 성격에 따라 부사형 어미 ‘-아/어X’가 선택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어간말의 모음 ‘ㅡ’가 탈락하는 것처럼 어간말의 모음 ‘ㄱ’가 탈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어 음운사에서는 어간말 모음이 모음 어미 앞에서 바로 탈락하는 기술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고(이진호, 2002:38) 양순음 뒤의 ‘ㄱ’만 특별히 활음화 대신 ‘ㄱ’ 탈락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 ‘ㄱ’ 탈락규칙을 설정하면 이 규칙이 반드시 활음화 규칙보다 먼저 적용되어야 하는 외재적 규칙순을 설정해야 하거나 활음화가 양순음을 제외한 제음 뒤의 ‘ㄱ, ㄱ’에만 적용된다는 제약을 추가해야 하는데 이 제약 자체가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럽다(이진호, 2008:212).

그러나 이 글에서는 앞서 제시한 복수 기저형으로 설정이 타당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고, 단수 기저형이나 복수 기저형 설정이 합당하지 않을 때 화자의 어휘부에 이 활용형들이 등재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을 지지하기에는 그 활용형이 그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본다. 활용의 예로 보인 ‘-양/엿’ 모음 외에도 모음 어미의 수는 물론이고, 이 방언의 ‘양순음+ㄱ형’ 어간은 이전 시기 어간 말음에 ‘ㅍ’을 가졌던 어형들이 재구조화된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 또한 만만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다시 기저형을 설정하는 기본 자세로 돌아와 본다. 단수 기저형을 설정하는 것은 복수 기저형을 설정하는 것보다 더욱 경제적인 방법(이진호, 2002:30)이라는 데에 착안한다. 도출 과정의 간결성은 도출 과정에서의 중간 단계 수와 관련이 있어 기저형으로부터 표면형으로 도출하는 중간 단계 수가 적을 때 더 간결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간 단계의 수가 적으려면 설정된 규칙의 수가 적든지 규칙의 적용 횟수가 적어야 한다. 이러한 근거에 기대어 제주방언에는 ‘양순음+ㄱ’형은 어간말의 ‘ㅡ’ 탈락 규칙과 같은 양상으로 어간의 ‘ㄱ’ 탈락이 일어나는 것으로 /Xㄱ/류의 단수 기저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주방언에 존재하는 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하고 그 목록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으로는 /Xㄱㅡ/, /Xㄷㅡ/, /Xㅌㅡ/류가 관찰된다.

(48) 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활용형

ㄱ. /X꺄-/류: 튀곡, 튀여도, 튀난, 튀는	[走]
ㄴ. /X꺅-/류: 꺅지, 꺅여사, 꺅민, 꺅는	[貫, 沸]
ㄷ. /X꺇-/류: 아녀곡, 아녕, 아녀난, 아녀민	[否]
ㄹ. /X꺈-/류: 뭉류곡, 뭉류지, 뭉햡, 뭉류민	[使乾]

(48)의 활용형은 자음 어미 ‘-곡, -지’, 모음 어미 ‘-아도/어도, -아사/어사, -양/영’, 매개모음 어미 ‘-으민, -으난’과 결합한 예이다. (48ㄱ)의 ‘튀여도’나 (48ㄴ)의 ‘꺅여사’와 같은 표면형은 용언 어간 모음일 경우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반모음 ‘y’ 첨가로 설명할 수 있다. (48ㄷ)은 모음 어미 앞에서 공시적인 관점에서 반모음화가 적용된 것이다. 또한 (48ㄱ, ㄴ, ㄷ, ㄹ) 모두에서 매개 모음 어미 ‘-’ 탈락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48ㄹ)의 /X꺈-/류이다. 표면형 ‘뭉햡’은 ‘뭉류-+-양→뭉햡’에서 도출된 형태이다. 이중모음 ‘꺈’로 끝나는 어간에 모음 어미 ‘-양/영’이 결합되면 활음화가 적용되어 그 표면형이 ‘뭉햡’과 같이 실현된다. 이 방언에서 (48ㄹ)과 같은 활용 양상을 띠는 어간에는 ‘꺄류-[使均], 늘류-[使增], ㄴ류-[使降], ㄹ류-[使踏], 얼류-[使氷]’ 등이 있는데 이들이 모음 어미 ‘-양/영’과 결합할 때는 ‘꺄햡’, ‘늘햡’, ‘ㄴ햡’, ‘ㄹ햡’, ‘얼햡’ 등과 같이 실현된다. 이들은 ‘꺄리우-’, ‘늘리우-’, ‘ㄴ리우-’, ‘ㄹ리우-’, ‘얼리우-’처럼 ‘어간+ㅣ꺈’형도 쌍형으로 존재하며 이때 모음 어미 ‘-양/영’과 결합은 ‘꺄햡’, ‘늘햡’, ‘ㄴ햡’, ‘ㄹ햡’, ‘얼햡’의 중복 분포를 보인다. 조금 느린 발화에서는 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꺄류왕’, ‘늘류왕’, ‘ㄴ류왕’, ‘ㄹ류왕’, ‘얼류왕’ 등과 같이 반모음 ‘w’가 첨가되는 활용형도 나타난다.

‘중양어의 ‘말리-[使乾]’가 강원, 서남 방언에서 ‘말류-’로 나타난다는 보고(이진호 2008:262, 이승재 1990:53, 배주채 1991:382, 김옥화 2001:19)가 있으나 제주방언에서는 ‘뭉류-’ 외에도 /X꺈-/류의 여러 형태가 발견되는 것이 흥미롭다. ‘꺄류-’, ‘ㄴ류-’, ‘뭉류-’, ‘ㄹ류-’는 모음 어미와의 결합에서 1음절의 ‘·’의 존재로 ‘-양’이 선택되는 것이고, ‘늘류-’, ‘얼류-’의 경우도 앞의 형태에 유추되어 ‘-양’이 선택된다. 이들의 활용형은 어휘부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여 단수 기저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들은 ‘굴리우-’, ‘늑리우-’, ‘물리우-’, ‘블리우-’ 등과 같은 쌍형 어간이 존재한다.

이중모음으로 끝나는 활용형에 따른 기저형 설정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49)의 최종 기저형은 ‘튀-’, ‘꽤-’, ‘아녀-’, ‘물류-’가 된다.

(49) 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기저형 목록

- ㄱ. /X궤-/류: 궤-[屁, 洩], 쉬-[休, 息], 튀-[走]¹²²⁾, 휘-[曲, 泳]
- ㄴ. /X궐-/류: 궐-[釘, 釀], 꽤-[貫, 沸], 뒤-[化], 웨-[吶], 쥐-[握]
- ㄷ. /X궑-/류: 아녀-[否]¹²³⁾
- ㄹ. /X궒-/류: 굴류-[使均], 늘류-[使增], 늑류-[使降], 물류-[使乾], ब्ल류-[使踏], 얼류-[使氷]

3.2.3. 복수 기저형

복수 기저형은 주로 어떤 형태소가 불규칙한 교체를 보일 때 설정하게 된다. 복수 기저형은 표면형과 매우 가까울 수밖에 없다. 표면형들의 관계를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복수 기저형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복수 기저형은 표면형을 그대로 가져오든지 또는 그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게 된다(이진호, 2017:210).

복수 기저형을 설정하면 한 형태소의 기저형이 둘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각 기저형의 출현 조건을 명시해 주어야 한다. 단일한 기저형을 설정하면 그 기저형이 모든

122) ‘튀-’는 후기 중세국어 어두에 두 자음을 가졌던 ‘뛰-(躡)’에서 온 것이다. 제주방언에서는 ‘튀-’처럼 후기 중세국어의 어두 자음군 ‘히’계(ㅈ, ㅊ, ㅌ, ㅍ)와 ‘히’계(ㅉ, ㅊ)가 유기음으로 나타나는 어간들이 있다. ‘쁘-(浮, 開)’, ‘짝(雙)’ 등도 이에 해당한다(이기문, 1977b).

123) ‘아녀-’의 쌍형 어간으로 존재하는 ‘아녀-’는 ‘아니ㅎ-’에서 온 것이지만 제주방언의 형태소 내부에서 모음 사이의 ‘ㅎ’ 탈락은 매우 빈번한 현상이므로 이것 또한 형태소 내부에서 ‘ㅎ’이 탈락된 형태라고 본다. ‘ㅎ’ 탈락 이후에는 반모음화가 적용되고 그 결과 ‘궑’을 가진 형태로 재구조화가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최현배(1937/1961:120)은 ‘크잖다’가 ‘크지+-않다’의 결합이지만 ‘않다’가 마치 어미처럼 행동하는 데서 오는 어휘화의 결과라고 하며 송철의(1995:281)에서는 ‘아니하다’가 결합한 경우는 반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것이 ‘아니하다’가 ‘않다’와 달리 화자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엄태수, 1996:402)이라고 보았다. 제주방언 화자들에 같은 내용을 대입해 볼 경우 ‘아니 ㅎ곡’형과 ‘아녀곡’의 형 둘을 자유롭게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아니 ㅎ곡’의 경우에는 발화 시 대개 휴지(#)를 두는 특징이 있다. 제주방언에서는 송철의(1995)의 논의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이다.

환경에서 나타나므로 특별한 출현 조건의 표시가 필요 없지만 복수 기저형은 각각의 기저형이 나타나는 환경이 구별되기 때문에 출현 환경을 표시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이진호, 2017:210).

여기서는 제주방언의 용언 어간에서 단수 기저형으로 처리할 수 없는 소위 불규칙 용언 어간의 기저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50) ‘ㅂ’ 불규칙 용언 1 어간의 활용형

/Xㅂ-~X우-/류: 굽꼭, 구웁, 구우난, 굽는 [爨]

(50)는 이른바 ‘ㅂ’ 불규칙 용언으로 불리는 용언의 어간의 활용형이다. 표면형 ‘굽꼭’은 평파열음 뒤 경음화로, ‘굽는’은 비음화의 실현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구웁’은 반모음화가 적용된 것, 또 ‘구우민, 구우난’ 등은 매개 모음 어미와 연결되어 어미초의 ‘-’가 탈락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음 어미와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표면형과 모음 어미, 매개모음 어미 앞에서 실현되는 표면형이 각각 다른 기저형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단수 기저형을 설정해서 이들의 이형태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기저형 출현의 음운론적 환경의 차이를 함께 기술하며 최종 기저형을 /Xㅂ-~X우-/의 복수기저형으로 설정하게 된다.

다음 (51)에서 (50)과 같은 활용 양상을 보인 용언 어간들의 출현 환경과 기저형 목록을 보인다.

(51) /Xㅂ-~X우-/류의 복수 기저형의 출현 환경과 기저형 목록

- ㄱ. 출현 환경: /Xㅂ-(자음 어미, 비음 어미 앞)~X우-(매개 모음 어미, 모음 어미 앞)/
- ㄴ. 굽-~구우-[爨], 눅-¹²⁴⁾~누우-[臥], 덩-~더우-[暑], 두껍-~두꺼우-

124) ‘눅- [臥]’의 의미로 활용된 ‘눅꼭, 눅찌’도 빈번하게 쓰인다. ‘눅꼭, 눅찌’의 기저형이 ‘눅-’이라고 가정하면 모음 어미, 매개 모음 어미 앞에서 ‘눅경, 눅그난’ 등의 활용 양상이 예상되지만 실제 그러한 활용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눅-’을 ‘눅-’의 불완전한 패러다임을 가진 쌍형 어간으로 볼지 아니면 ‘눅-’의 pk 교체를 경험한 ‘눅-’이 자음 어미 앞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볼지 여기서는 더 논의

[厚], 어둡-~어두우-[暗]¹²⁵⁾, 좁-~주우-[縫], 춥-~추우-[寒] 등

다음으로 두 번째 ‘ㅂ’ 불규칙 용언의 활용형에 따른 기저형 설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52) ‘ㅂ’ 불규칙 용언 2 어간의 활용형

/Xㅂ-~X오~X우-/류: 곱쥬, 고헡, 고헡민, 고헡난 [麗]
싱겡쑤, 싱겡와, 싱겡와도, 싱겡우민 [淡]

(52)는 (50)과 그 실현 양상이 다른 ‘ㅂ’ 불규칙 용언 어간의 기저형 설정을 하고자 그 활용 양상을 보인 것이다. (52)의 ‘곱쥬, 고헡, 고헡민, 고헡난’과 같은 활용형이 나타나는 것은 비단 제주방언만이 아니다. 주지하듯이 많은 방언에서 이들의 활용형을 통해 기저형을 설정할 때 여럿의 방안이 제시되어 왔으나 이 글에서는 위의 활용 양상에 대해 김경아(1990), 김봉국(2003a)의 논의에 기대어 ‘돕-~도오-~도우’로 처리하는 방안을 택해 복수 기저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것은 표면형에 실현된 이형태를 모두 복수 기저형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복수 기저형 ‘돕-~도우-’에서 ‘도우-’로 기저형의 단일화를 설명하는 방안보다 ‘돕-~도우-’에서 ‘도우-’로 기저형의 단일화를 설명하는 데에 이점을 가지며 이것은 곧 화자의 심리적 실재에 더 가까운 것(김봉국, 2003:570)이라고 생각된다.

제시한 (52)의 첫 번째의 활용형에서는 ‘곱-’, ‘고오-’, ‘고우-’의 이형태가 나타난다. 각각은 자음 어미 ‘-쑤’ 앞, 모음 어미 ‘-앙/엡’, 매개모음 어미 ‘-으난’ 앞에서 실현되는 형태들로 이형태가 모두 각각 출현한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최종 기저형이 된다. 한편 (52)의 두 번째 활용형도 ‘싱겡-’, ‘싱겡오-’, ‘싱겡우-’가 이형태로 도출되는데 이들 역시 각각 출현한 음운론적 환경을 밝혀 복수 기저형으로 설정한다. 다

하기가 어렵다. 다만 ‘눅쥬-’의 형태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기저형 ‘눅-’의 설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비슷한 예인 ‘어둡-’의 경우는 완전한 패러다임을 가진 ‘어둑-’이 쌍형 어간으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가능성은 제주방언에서 수의적이기는 하나 공시적으로 존재하는 연구개 음화의 실현으로부터 도출되는 ‘눅쑤’가 자음 어미 ‘-지’ 앞에서도 유추된 형태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본다.

125) 단수 기저형 ‘어둑-[暗]’도 공존한다.

만 (52)에서 두 가지 활용형을 모두 제시한 이유는 모음 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보기 위해서이다. 즉 이들은 모음 어미 바로 앞에 나타나는 용언 어간말 모음에 따라 ‘-양’, ‘-영’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양’만이 용언 어간에 연결되는 것이다. (50)의 ‘ㅂ’ 불규칙 용언이 1음절의 모음의 성격에 따라 모음 어미 ‘-어X’을 선택했다면 (50)에서 보이는 /Xㅂ-~X오-~X우-/류 용언 어간의 기저형들은 모음 어미 앞에서 일관되게 ‘-아X’를 택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복수 기저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53)에서 /Xㅂ-~X오-X우-/류에 해당하는 용언 어간의 출현 환경과 기저형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53) /Xㅂ-~X오-X우-/류의 복수 기저형의 출현 환경과 기저형 목록

ㄱ. 출현 환경: /Xㅂ-(자음 어미, 비음 어미 앞)~X오(모음 어미 앞)~X우-(매개 모음 어미 앞)/

ㄴ. /Xㅂ-~X오-~X우-/류 용언 어간의 기저형 목록

: 가잡-~가차오-~가차우-[近], 계법-~계벼오-~계벼우-∞거법-~거벼오-~거벼우-[輕], 기렵-~기려오-~기려우-[戀], 곱-~-고오-~고우-[麗], ㄹ몹-~ㄹ료오-~ㄹ료우-[癢], 더렵-~더러오-~더러우-∞덜렵-~덜러오-~덜러우-[汚], 돕-~도오-~도우-[助], 맵-~메오-~메우-[辛], 밍-~미오-~미우-[憎], 쉽-~쉬오-~쉬우-[易], ㅁ렵-~ㅁ려오-~ㅁ려우-(마렵다), ㅁ습-~ㅁ스오-~ㅁ스우-[疹], 반갑-~반가오-~반가우-[歡], 부치렵-~부치러오-~부치러우-[恥], 싸납-~싸나오-~싸나우-[暴], 째-~싸오-~싸우-[鬪], 섯-~세오-~세우-[立], 쏘-~쏘오-~쏘우-[射], 실렵-~실러오-~실러우-[斷], 싱겁-~싱거오-~싱거우-[淡], 아깝-~아까오-~아까우-[惜], 어렵-~어려오-~어려우-[難], 웨롭-~웨로오-~웨로우-[孤], 초랍-~초라오-~초라우-∞쪼랍-~쪼라오-~쪼라우-[澁], 칩-~치오-~치우-[除], 홉-~호오-~호우-[絳]¹²⁶⁾

126) 단수 기저형 ‘호-[絳]’도 존재한다.

위 (53ㄴ)에서 확인되는 ‘잡-~싸오-~싸우-[鬪], 썸-~세오-~세우-[立], 쏘-~쏘오-~쏘우-[射], 칩-~치오-~치우-[除]’ 등은 자음 어미와 연결될 때 ‘싸웁꼭, 세웁꼭, 쏘웁꼭, 치웁꼭’으로도 관찰된다. 이들은 정승철(1988:49-50, 1995:129), 고동호(1995b)에서 삼형 어간으로 불러왔다. 정인호(1997)에서는 서남방언에서 위와 같은 ‘Xㅂ->X웁’의 공존을 ‘Xㅂ-’에 ‘우’가 첨가된 것이며 ‘X웁-’의 형태가 개신형이라고 보았다. ‘Xㅂ->X웁-’과 같은 변화가 생긴 이유는 ㅂ-불규칙 용언이 ‘ㅂ’의 변화와 함께 두 개의 어간이 어휘부에 등재되는데 이때 이들 어간의 관계를 더욱 단순하고 긴밀하게 하려는 노력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즉 ‘Xㅂ-’ 어간에 ‘우’가 첨가되면 ‘X우-’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진다는 관점이다. 제주방언에서도 Xㅂ-’과 ‘X웁-’은 같은 환경에서 출현하며 공존하는 것으로 보면 삼형 어간이 아닌 쌍형 어간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 정인호(1997:167)의 논의에 기대어 이러한 형태들의 출현이 어간의 교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화자의 의식적인 노력에 따른 재분석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이른바 ‘ㄷ’ 불규칙 용언 어간의 복수 기저형 설정과 목록을 살피고자 한다.

(54) ‘ㄷ’ 불규칙 용언 어간의 활용형

/Xㄷ-~X르-/류: 묻꼭, 무렁, 무르민, 무르난, 문는 [問]

(54)는 어간에 자음 어미 ‘-꼭’, 모음 어미 ‘-양/영’, 매개모음 어미 ‘-으민, -으난’, 비음 어미 ‘-는’이 연결되었을 때 나타나는 활용형을 제시한 것이다. (54)에서 ‘묻-, 무르-, 문-’의 이형태가 확인된다. 표면형 ‘묻꼭’은 ‘묻-’ 뒤에 자음 어미 ‘-꼭’이 연결되었을 때 나타나는 평파열음 뒤 경음화로, ‘문는’은 ‘문-’에 비음 어미 ‘-는’이 연결될 때 비음화가 적용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한편 ‘무렁’과 ‘무르민’, ‘무르난’의 표면형은 ‘무르-’로 기저형을 설정해야만 그 표면형이 모음 어미와 매개모음 어미가 결합될 때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음 어미와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표면형과 모음 어미, 매개모음 어미 앞에서 실현되는 표면형이 각각 다른 기저형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단수 기저형을 설정해서는 이들의 이형태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기저형 출현의 음운론적 환경의 차이를 함께 기

술하며 최종 기저형을 /Xㄷ-~Xㄹ-/로 설정할 수 있겠다.

다음의 (55)에서 /Xㄷ-~Xㄹ-/류의 출현 환경과 기저형 목록을 보인다.

(55) /Xㄷ-~Xㄹ-/류의 복수 기저형의 출현 환경과 기저형 목록

ㄱ. 출현 환경: /Xㄷ-(자음 어미, 비음 어미 앞)~Xㄹ-(매개 모음 어미, 모음 어미 앞)/

ㄴ. 걷-~거르-[步], 곧-~ㄹ르-[曰], 뜀-~ㄹ르-[走], 묻-~무르-[問]

(55)의 ‘곧-~ㄹ르-[曰]’를 정승철(1995:36-37)에서는 ‘ㄷ’ 규칙 동사라고 하였고, 강영봉(1983:39-40), 정승철(1988:24)에는 제주방언의 모든 ‘ㄷ’ 규칙 동사는 ‘ㄷ’ 불규칙계와 ‘ㄹ’ 규칙계가 쌍형 어간을 이루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서정범(1965:20)은 /Xㄷ-/와 /Xㄹ-/의 쌍형 어간의 존재는 ‘걷-’의 활용형에 의해 어간 말음이 완전히 ‘ㄹ’으로 바뀐 것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정승철(2000:186-187)은 제주방언의 ‘ㄷ’ 불규칙 용언 어간이 ‘걸지~걸지(걸지), 걸으난~거난(걸으니까), 걸언(걸어서)’에 처처럼 ‘ㄹ’ 정칙 용언 어간과 항상 쌍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방언과 차이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글의 보조 자료인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2011)의 가파 자료에는 ‘부인들이 앞에 걸고’가 1회 확인된다. 다만 이 조사에서는 ‘ㄹ’ 정칙 용언은 ‘욕 들꼭’ 정도에서만 실현되었다. 그 외의 활용형은 제시한 (55)의 복수 기저형의 표면형 등으로만 나타났으므로 이 방언에서 ‘ㄷ’ 규칙 동사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음 (56)은 이른바 ‘ㄹ’ 불규칙 용언 어간의 활용형을 보인 것이다.

(56) ‘ㄹ’ 불규칙 용언 어간의 활용형

/Xㄹ-~Xㄹㄹ-/류: 누르꼭, 누르주, 놀렁, 누르난, 누르는 [壓]

(56)은 자음 어미와 비음 어미, 매개모음 어미 앞에서는 ‘누르-’가 실현되고, 모음 어미 앞에서는 ‘놀르-’이 나타난다. 이들의 교체형으로 기저형 설정의 타당성을 검

토해 보면 최종적으로 /X르-~X르르-/의 복수 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모음 어미 앞에서의 교체형을 ‘르르-’로 설정하지 않는다. 만약 ‘르르-’을 모음 어미 앞에서 실현되는 복수 기저형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국어에서 허용하기 힘든 자음군 ‘르르’이 생기는 것이므로 ‘X르-’의 설정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본다.

(57) /X르-~X르르-/류의 복수 기저형의 출현 환경과 기저형 목록

- ㄱ. 출현 환경: /X르-(자음 어미, 매개 모음 어미 앞)~X르르-(모음 어미 앞)/
- ㄴ. 가르-~갈르-[分], 고르-~골르-[選], 나르-~날르-[搬], 누르-~눌르-[壓], 부르-~불르-[呼], 찌르-~찢르-[刺]¹²⁷⁾, 오르-~올르-[登], 무르-~물르-[燻], 브르-~블르-[塗], 웨우르-~웨울르-[警]¹²⁸⁾

이 방언에서 ‘르’ 불규칙 용언은 ‘X르르-’의 규칙 용언으로 재구조화되어 쌍형어가 존재한다. 단, (57)에 제시한 것처럼 이 방언에는 복수 기저형 /X르~X르르/류와 단수 기저형 /X르르-/류가 공존하기도 한다. 또 ‘몰르-(無知)’나 ‘돌르-(割)’ 등은 단수 기저형으로만 존재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모음 어미 앞에서 ‘X르르-’로 선택되는 실현되는 활용형이 자음 어미에까지 유추적 평준화를 일으켜 /X르르-/ 기저형으로 단일화된 것인지 아니면 단수 기저형 /X르르-/류가 표준어의 영향을 입어 /X르-X르르/의 복수 기저형을 가지게 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허-’ 불규칙 용언의 활용형과 그 출현 환경을 살피며 용언의 복수 기저형 설정은 마무리 짓기로 한다.

(58) ‘허-’ 불규칙 용언의 활용형과 출현 환경

- ㄱ. /허-~허여(헤)-/류: 허곡, 허영~헝, 허명, 허난, 허는 [爲]

127) 단수 기저형 ‘질르-(刺)’로도 나타난다.

128) 정승철(1995:75)에서는 ‘소리 높이 지르다’의 의미를 가지는 이 용언 어간을 ‘왜울르-’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립국어원(2005)에서는 ‘웨우르-, 웨울르-’가 보인다. 이 글의 조사에서는 ‘웨우르-~웨울르-’가 조사된바 이것을 복수 기저형으로 설정하였다.

ㄴ. 출현 환경: /허-(자음 어미, 매개 모음 어미, 비음 어미 앞)~해-(모음 어미 앞)/

(58)은 제주방언에서 ‘허-’ 불규칙 용언이라고 불리는 어간의 활용 양상과 그 출현 환경을 제시한 것이다. 중앙어의 ‘하-’는 방언에서 /하X-~해X-/의 복수 기저형을 갖는 경우가 많다. 모음 어미 앞에서는 대개 ‘해’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언에서는 모음 어미 ‘-양/영’ 앞에서 ‘허영~행’ 등의 표면형이 관찰된다. 자음 어미, 매개모음 어미, 비음 어미 앞에서는 ‘허-’가 그 기저형이 되지만 ‘허-’로부터 ‘허영~행’은 설명되지 않는다. ‘행~허영’ 등과 같은 표면형이 나타난다면 ‘허-’를 단수 기저형으로 삼을 수 있고 이 방언에 /X허-/류의 용언 어간의 기저형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행-~허영’ 등의 형태는 실현되지 않는다. 모음 어미 앞에서의 표면형 ‘허영~행’은 ‘허여-+-영→허영’으로 모음으로 끝나는 기저형에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 모음 어미 ‘허’가 탈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행’은 ‘해-+-영→행’에서 모음 어미 ‘허’가 탈락한 것으로 기술할 수 있다¹²⁹⁾. 이렇게 해서 이 방언의 ‘허-’ 불규칙 용언은 /허-~허여(해)-/의 복수 기저형으로 설정되며 이 방언에서 /X허-~X허여(해)-/류는 상당수 존재하나 여기서 그 목록은 생략하기로 한다.

129) 장음 실현이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기술이 가능한 것이다.

4. 음운 현상

음운 현상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첨가되는 등의 과정을 가리킨다(이진호, 2021:134). 공시적인 음운 현상은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와 용언과 어미가 결합할 때 즉, 형태소 경계에서 나타난다¹³⁰⁾. 이에 4장에서는 기저형이 표면형으로 도출되는 과정 중에 적용된 이 방언의 공시적인 음운 현상을 검토하려 하는데 이것을 크게 자음과 관련된 것과 모음과 관련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4.1. 자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

4.1.1. 평파열음화

평파열음화¹³¹⁾는 음절말 위치에 놓인 장애음이 ‘ㅂ, ㄷ, ㄱ’ 중 하나로 바뀌는 음운 현상을 가리킨다(이진호, 2017:532).

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에 따라 음절말 위치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이며 그 중 공명음과 비음, 유음을 제외한다면 음절말 위치에서 실현될 수 있는 장애음은 ‘ㅂ, ㄷ, ㄱ’ 3개뿐이다. 이것은 곧 음운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음절말에서는 장애음 ‘ㅂ, ㄷ, ㄱ’ 중 하나로 교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ㅎ, ㅎ’은 좀 다른데 ‘ㅎ’ 뒤에 평음이 올 경우에는 유기음으로 축약되기 때문에

130) 제주방언에는 형태소 내부에서 ‘메끼-[任]’, ‘썩기-[使腐]’ 등의 음라우트, ‘심[力]’, ‘지름[油]’ 등의 구개음화 현상도 확인되지만 이 글에서는 형태소 경계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만을 기술하고자 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룬다. 한편 제주방언에서 ‘ㄴ’ 첨가는 공시적으로 단어 경계 사이에서만 나타나는데 제주방언 화자가 ‘집+일’, ‘밭+일’을 ‘[집닐]’, ‘[반닐]’로, ‘월요일(月曜日), 일요일(日曜日)’의 발음을 ‘[워료일], [이료일]’이 아닌 ‘[월료일], [일료일]’로 하는 것은 무척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에 대한 고찰은 추후 과제로 남기도록 한다.

131) 평파열음화는 평폐쇄음화, 중화, 음절말 끝소리 규칙 등 등의 여러 용어로 사용되지만 음운 현상의 명칭은 입력형과 출력형을 비교하여 변화 양상을 반영해야 하는 동시에 음운 체계와 부합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이진호(2014, 2017)에 따라 평파열음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ㅎ’의 평파열음화는 ‘ㅎ’ 뒤에 ‘ㅅ’이나 ‘ㄴ’이 올 경우로 제한된다. 이 글에서는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결합은 제외하고¹³²⁾, 비음 어미 ‘-는’과 ‘-나’와 연결될 때 관찰되는 ‘ㅎ’의 평파열음화만을 관찰한다.

다음의 예를 통해 제주방언의 형태소 경계에서 보이는 평파열음화 현상을 살펴본다.

- | | |
|--------------------|--------|
| (59) ㄱ. 앞+-도→압도→압또 | [前] |
| ㄴ. 빗+-도→빈도→빈또 | [櫛, 債] |
| 낫+-도→날도→날또 | [晝] |

(59)는 곡용에서 나타나는 평파열음화를 제시한 것이다. (59ㄱ)는 ‘ㅍ’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에 자음 조사 ‘-도’가 결합할 때 어간 말의 ‘ㅍ’이 ‘ㅃ’으로 평파열음화한 뒤 경음화가 적용된다. (59ㄴ)는 치조음 ‘ㅅ’, ‘ㅆ’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이 자음 조사 ‘-도’를 만나 같은 조음 위치의 ‘ㄷ’으로 평파열음화한 뒤 역시 경음화가 적용된 예이다. 제주방언에서 체언 어간 말음 가운데 ‘ㅍ’이나 ‘ㅅ, ㅆ’은 각각 ‘ㅃ’, ‘ㄸ’으로 평파열음화한다. 곡용에서 나타나는 평파열음화는 다른 방언에 비해 그 수가 적다. 이것은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처럼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기저형 가운데 ‘ㅌ’, ‘ㄷ’으로 끝나는 형태가 없어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활용에서 나타나는 평파열음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 | | |
|---------------------|-----|
| (60) ㄱ. 댕-+-곡→뉿곡→뉿꼭 | [溫] |
| 앗-+-곡→안곡→안꼭 | [坐] |
| 쫓-+-곡→쫓곡→쫓꼭 | [追] |
| ㄴ. 낱-+-는→날는→날는 | [産] |
| 징-+-는→진는→진는 | [搗] |

132) 제주방언에서 용언 어간 뒤 연결되는 어미 중 ‘ㅅ’으로 시작하는 것은 ‘-수가, -수다, -순’ 등이 존재한다. ‘-수가’, ‘-수다’는 주로 형용사 어간에 결합되고, ‘-순’은 주로 여성들이 사용하는 어미라고 확인되나 ‘-수가’, ‘-수다’가 연결될 수 있는 어간은 ‘-좋-’이 유일하고, ‘-순’은 관찰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ㅅ’으로 연결되는 어미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으려 한다.

제주방언의 활용에서 어간말 평파열음화가 적용되는 음에는 치조음 ‘ㅅ’, 경구개음 ‘ㅆ, ㅈ’과 후음 ‘ㅎ’, ‘ㅇ’이 있다. 먼저 (60ㄱ)을 보면 ‘ㅅ, ㅆ, ㅈ’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자음 어미 ‘-곡’이 결합될 때 ‘ㅅ, ㅆ, ㅈ’가 ‘ㄷ’으로 교체된다. 이렇게 평파열음화가 나타난 이후 (60ㄱ)의 예들은 순차적으로 경음화가 일어나고 경우에 따라 다시 연구개음화를 겪거나 조음 위치의 평음과 경음이 연쇄된 상황에서 평음이 수의적으로 탈락하는 중복 자음 탈락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60ㄴ)은 어간말 ‘ㅎ’과 ‘ㅇ’을 가지는 용언 어간에서의 평파열음화를 관찰한 것이다.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경우는 ‘ㅎ’이 평파열음화 때문에 ‘ㄷ’으로 바뀐다는 것이 직접적인 관찰로는 불가능하다. 이진호(2017:533)에서처럼 어간말에 ‘ㅎ’을 가진 용언 어간과 자음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 말음 ‘ㅎ’을 가진 ‘낱+-는→남는→난는’의 활용 양상이 ‘뉯-[溫]+-는→뉯는→든는’의 경우와 같으므로 ‘ㅎ’이 ‘ㄷ’으로 평파열음화가 되었다고 유추하는 것이다.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제주방언에서 ‘ㅍ, ㅅ, ㅆ’로 끝나는 체언 어간이나 ‘ㅅ, ㅆ, ㅈ’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자음 조사나 자음 어미가 결합할 때는 어간말의 자음이 평파열음 ‘ㅂ, ㄷ’로 실현되며 후음 ‘ㅎ, ㅇ’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비음 어미가 연결될 때는 ‘ㅎ, ㅇ’가 ‘ㄷ’으로 평파열음화하는 양상을 띤다. 이 방언에서는 ‘ㄱ’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이나 용언 어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ㄱ’으로 평파열음화하는 과정은 관찰되지 않는다.

4.1.2. 경음화

경음화는 평음 ‘ㅂ, ㄷ, ㅅ, ㅆ, ㄱ’이 일정한 환경에서 경음 ‘ㅍ, ㅌ, ㅈ, ㅊ, ㅋ’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경음은 음절 종성에서 발음될 수 없으므로 초성에 놓인 평음에만 적용된다.

경음화는 적용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별개의 음운 현상이지만(이진호, 2021:158) 이 글에서는 공시적인 관점에서 관찰되는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 용언 어간말 자음 ‘ㄴ, ㄹ’ 뒤에서의 경음화를 묶어 살펴보고자 한다.

4.1.2.1.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

평파열음 뒤에서의 경음화는 어간말 자음이 처음부터 평파열음이었을 경우나 음절말에 평파열음화를 거친 경우에서 음절말의 ‘ㅂ, ㄷ, ㄱ’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하여 뒤따르는 평음을 경음으로 바꾸는 현상을 말한다. 국어에 평파열음 뒤에는 평음이 올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에 따른 현상이다.

먼저 제주방언의 곡용의 형태소 경계에서 실현되는 평파열음화 뒤 경음화의 예는 체언 어간의 경우 ‘ㅂ’, ‘ㅍ’, ‘ㅅ’, ‘ㅈ’, ‘ㄱ’일 때를 관찰할 수 있다. ‘ㄷ’, ‘ㅌ’로 끝나는 체언 어간은 없으며 이 방언에는 ‘ㅌ’, ‘ㅈ’, ‘ㄱ’로 끝나는 체언 어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의 (61)에서 ‘ㅂ’, ‘ㅍ’, ‘ㅅ’, ‘ㅈ’, ‘ㄱ’로 끝나는 체언 어간 뒤에 자음 조사가 연결될 때 나타나는 평파열음 뒤 경음화를 관찰해 본다.

(61) ㄱ. 겁+-도→겹또	[怯]
옴+-보다→옴뽀다	[側]
ㄴ. 슷+-도→숄또~수또	[炭]
낫+-보다→낫뽀다	[晝]
ㄷ. 깍+-도→깍또	[叢]

(61)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 뒤에 자음 조사 ‘-도, -보다’가 결합했을 때 경음화가 나타난 예이다. (61ㄱ)의 체언 어간 ‘겁’은 자음 조사 ‘-도’와 결합해 조사 ‘-도’가 경음화되고, ‘옴’은 ‘ㅂ’으로 음절말의 평파열음화를 거친 후 자음 조사 ‘-보다’와 만나 조사의 초성이 경음 ‘ㅌ’로 실현되었다. (61ㄴ)의 체언 어간 ‘숄’, ‘낫’ 또한 먼저 음절말에서 같은 조음 위치의 ‘ㄷ’으로 평파열음화가 된 후 이어지는 자음 조사 ‘-도’, ‘-보다’와의 결합 시 경음화가 실현되어 표면형 ‘숄또’, ‘낫뽀다’가 확인된다. (61ㄷ)는 어간 ‘깍’이 자음 조사 ‘-도’와 결합할 때 어간말 ‘ㄱ’의 영향으로 조사 ‘-도’가 경음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1ㄴ)의 경우에는 중복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이 수의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제주방언에는 용언 어간이 /Xㅍ-/ , /Xㅌ-/ , /Xㅆ-/ , /Xㅈ-/류로 끝나는 경우는 모두 ‘ㅡ’가 첨가된 형태로 재구조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것은 체언 어간과 마

찬가지로 어간의 말음이 제한적이어서 평파열음화의 적용 대상이 적게 나타난다는 뜻이다. 다음 (62)에서 활용에서의 나타나는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를 관찰해보려 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용언 어간은 ‘ㅂ’, ‘ㄷ’, ‘ㅅ’, ‘ㅈ’, ‘ㅊ’, ‘ㄱ’로 끝나는 경우이다.

(62) ㄱ. 잡-+-곡→잡꼭	[執]
ㄴ. 곧-+-곡→곧꼭	[曰]
벗-+-곡→벗꼭~벗꼭~벗꼭	[脫]
젓-+-지→젓찌~저찌	[濶]
쫓-+-지→쫓찌~쫓찌	[追]
ㄷ. 죽-+-곡→죽꼭(~조꼭)	[小]

(62)는 자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 자음 어미 ‘-곡, -지’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경음화를 보인 것이다. (62ㄱ)는 ‘ㅂ’로 끝나는 용언 어간 아래, (62ㄴ)는 ‘ㄷ’, ‘ㅅ’, ‘ㅈ’, ‘ㅊ’로 끝나는 용언 아래, (62ㄷ)는 ‘ㄱ’으로 끝나는 용언 아래에서 자음 어미 ‘-곡’이 ‘-꼭’으로 ‘-지’가 ‘-찌’의 경음화로 실현되었다. (62ㄴ)의 ‘ㅅ’, ‘ㅈ’, ‘ㅊ’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은 자음 어미의 경음화가 실현되기 전 먼저 용언 어간이 ‘ㄷ’으로 평파열음화가 적용된다. 그 이후 어미의 초성이 경음화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위 (61), (62)의 예 통해 단자음을 가지는 체언과 용언 모두 평음 뒤에서 경음화가 실현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는 체언과 용언 어간 뒤에 평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될 때 경음화가 되는 예를 따로 나누어 살펴본다.

(63) 낫+-도→넉ㄷ또→넉또	[魄]
(64) ㄱ. 몯-+-지→몯찌→몯찌	[淸]
ㄴ. 뵘-+-주→뵘쭈→뵘쭈	[踏]

(63)은 자음군 ‘ㄱㅈ’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 ‘낫’에 자음 조사 ‘-도’가 연결될 때 경음화가 실현되는 예이다. 어간말 자음군 ‘ㄱㅈ’ 뒤의 자음 조사 ‘-도’는 경음화가

적용된 ‘-또’로 나타난다.

한편 (64ㄱ, ㄴ)는 자음군 ‘ㄹ’, ‘ㄷ’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자음 어미 ‘-지, -주’가 결합했을 때 경음화가 실현되는 예들이다. 어간말 자음의 ‘ㄱ, ㄴ’에 의해 자음 어미 ‘-지, -주’는 경음 ‘-찌, -쥬’로 나타난다.

(61-64)의 예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평파열음 뒤 경음화는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강력한 음운 현상이다.

4.1.2.3. 용언 어간말 ‘ㄴ, ㄹ’ 뒤 경음화

용언 어간말 비음 ‘ㄴ, ㄹ’ 뒤의 경음화는 말 그대로 용언 어간의 마지막에 놓인 비음 뒤에서 어미의 초성이 자음일 경우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이진호, 2021:159). 용언 어간말 ‘ㄴ, ㄹ’ 뒤에서 경음화가 실현되는 것은 국어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말해 왔다. 다만 평파열음화 뒤의 경음화와는 달리 용언 어간말이라는 비음운론적 제약이 따른다. 비음이 후행하는 평음을 경음화시킨다는 음성학적인 특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음운론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운 규칙 적용에 비음운론적인 정보를 끌어들이 ‘용언 어간말’이라는 환경을 여기서는 명시해야만 하는 것이다.¹³³⁾ 다만 용언 어간말 비음 뒤에서 경음화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다.

이 방언에서 용언 어간말 ‘ㄴ, ㄹ’ 뒤의 경음화가 실현되는 양상을 다음의 (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65) 안-+-곡→안꼭	[抱]
습-+-지→습찌	[炊]

133) 용언 어간말 ‘ㄴ, ㄹ’ 뒤의 경음화를 용언 어간말이라는 비음운론적인 제약이 아닌 순수 음운 규칙으로 처리하기 위해 ‘ㄴㅎ, ㄹㅎ’ 설정을 고려할 경우 어간말 자음군 ‘ㄷ’이 ‘ㄷㅎ’으로 설정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앞서 2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주방언에서 ‘ㅎ’을 설정했기 때문에 ‘ㅎ’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있겠으나 ‘ㄷㅎ’의 경우 용언 어간말에 무려 3개의 자음이 연속되는 것을 인정해야 하므로 이것은 쉬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배주채, 1989:57). 그러므로 지금로서는 비음운론적인 정보를 제시하여 용언 어간말 ‘ㄴ, ㄹ’ 뒤 경음화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65)는 용언 어간말에 ‘ㄴ, ㄹ’을 가진 어간들이 자음 어미 ‘-곡, -지’와 통합했을 때 실현되는 양상을 보인 예이다. 용언 어간 ‘안-’과 ‘습-’ 뒤에 자음 어미 ‘-곡’, ‘-지’가 결합되면 용언 어간말 자음 ‘ㄴ, ㄹ’에 의해 뒤따르는 자음 어미가 경음화의 적용을 받아 ‘안꼭’, ‘습찌’와 같은 형태로 실현된다.

그러나 (65)와 같은 이러한 용언 어간말 ‘ㄴ, ㄹ’ 뒤의 경음화는 이 방언에서 수의적으로 실현된다. 다음 (66)에서 (65)와 같은 활용형을 제시해 본다.

- | | |
|---------------|-----|
| (66) 안-+-곡→안꼭 | [抱] |
| 습-+-지→습찌 | [炊] |

(66)는 (65)와 동일한 활용형으로 용언 어간 ‘안-’, ‘습-’ 뒤에 자음 어미 ‘-곡’, ‘-지’가 연결될 때의 예이다. 이때는 용언 어간말 ‘ㄴ, ㄹ’ 뒤 자음 어미 ‘-곡’과 ‘-지’가 연결되더라도 자음 어미는 경음화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즉 동일한 환경에서 경음화가 실현되는 것과 실현되지 않는 형태가 모두 확인되는 것이다.

위의 예를 제외하고도 이 방언 제보자의 언어 가운데는 용언 어간말 ‘ㄴ, ㄹ’ 뒤 경음화가 실현된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가 공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안-[抱]’, ‘습-[炊]’ 외에도 ‘ㄴ, ㄹ’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신-[履]’, ‘근-[刮]’, ‘곰-[洗髮, 髻]’, ‘옴-[稔]’ 등은 자음 어미와 결합할 때 수의적으로 경음화가 실현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방언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김수영(2021:70-71)에서는 ‘신-[履]’과 ‘안-[抱]’으로 모든 방언에서 용언 어간말 ‘ㄴ, ㄹ’ 뒤의 경음화가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 관찰하였다. 그 결과로 두 어간 모두에서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은 바로 경북 영덕·경산, 경남 진양·김해, 제주이며 어간말에 ‘ㄹ’을 가진 어간 가운데 어미의 두음이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은 함북, 경북과 경남의 일부¹³⁴⁾, 그리고 제주지역이라 언급한 바 있다.

비음은 후행하는 평음을 경음화시키는 음성적 특징이 없는 자음이다. 즉 원래는 (66)의 [안꼭]과 [습찌]의 표면형은 사실 특별한 음운론적 제약을 어기는 것이 아니

134) 김수영(2021)의 자료 외에도 육진 방언(곽충구 1994:202-203)과 동남 방언의 동부 지역(이진호, 2009:143)에서도 용언 어간말 ‘ㄴ, ㄹ’ 뒤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자료·논의가 있다.

라는 의미이다. 국어에서 ‘ㄴ(또는 비음)’과 ‘ㄱ(또는 평파열음)’의 배열을 허용하지 않는 음운론적 제약은 없다(이진호, 2019:6).

그렇다면 왜 이 방언(또한 일부 방언)에서는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에서 경음화가 실현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가? 이것은 사실 공시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음 ‘ㄴ, ㅁ’은 어미 초성의 자음을 경음화시킬 수 있는 자음이 아니었다면 이전 시기에는 용언 어간말 ㄴ, ㅁ 뒤의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다가 어느 시기 이후 경음화가 실현되는 규칙이 모든 방언에 걸쳐 적용되고 그 확산이 이른바 언어 섬이라고 불리는 방언들에서는 뒤늦게 적용된 것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해 용언 어간말 비음 뒤의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보수형이라면 경음화가 실현되는 것은 개신형일 테고, 이 개신형이 어느 시기에선가부터 그 확산세를 떨치게 되었으나 그 파급은 북쪽의 육진 방언, 동쪽의 동남방언의 동부 지역, 그리고 남쪽의 제주방언에 늦어져 오랜 시간 동안 간직해온 보수형이 개신형과 공존하게 된 것이다. 개신형은 하나의 비음운론적인 제약을 둔 음운 현상으로 실현되고 있지만 화자의 어휘부에 남아 있는 이전 시기의 활용형들이 화석형으로 잔재해 있는 것이지 않을까 한다.

김성규·정승철(2013)에 따르면 용언 어간 말음 ‘ㄴ, ㅁ’의 뒤의 경음화는 18세기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는데 이 논의가 앞선 추론의 뒷받침이 된다.

이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 모든 제보자로부터 용언 어간말 비음 뒤에서 경음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주 제보자 의귀리 현○○ 씨의 말에서는 소위 개신형이라고 일컬어지는 활용형보다 보수형인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표면형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씨의 경우는 의식적인 발화에서 ‘안곡’의 실현은 늘 ‘[안곡]’으로만 발화했는데 [안곡] 자체가 이 제보자의 어휘부에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 단, 이것은 이 제보자에 한한 것일 뿐 다른 제보자의 말 속, 특히 의식적인 발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음운 현상이다.

다른 관점에서 제주방언의 자연 발화 속에서 용언 어간말 ‘ㄴ, ㅁ’ 뒤의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 무엇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주로 ‘슴-’과 같이 그 어형을 대체할 중앙어의 형태가 없는 경우, 또 이 방언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형일 경우나 ‘-곡’, ‘-주’ 등과 같이 제주방언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미의 방언형일 경

우에서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경향성을 보였다.

자음 어미 ‘-곡’, ‘-주’를 대체할 형태가 없는 어형 앞에서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규칙이 적용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 것은 비음 뒤의 경음화 규칙의 조건의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활용 어미가 유추적 평준화 적용을 받는 것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규칙의 적용 영역이 확대되는 것에는 선호하는 어미가 있음을 암시한다. 또 보수적인 방언과의 접촉, 표준어 화자와의 접촉 등을 감안하면 이 방언에서 비음 뒤 경음화 현상은 경음화가 적용되는 규칙의 확산이 늦거나 혹은 일정 시기까지 정지(김수현, 2014:125)되었다가 다시 실현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사된 자료 중 흥미로운 것은 자음군 ‘ㄷ’을 가진 용언 어간 뒤에 자음 어미가 결합될 때는 늘 경음화가 필수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 예를 다음에서 관찰해 본다.

(67) ㄷ--+곡→ㄷ꼭	[似, 如]
ㅅ--+주→ㅅ쥬	[烹]
ㅈ--+곡→ㅈ꼭	[靑]

(67)은 자음군 ‘ㄷ’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자음 어미 ‘-곡’과 ‘-주’가 결합한 형태로 자음 어미 ‘-곡’, ‘-주’가 각각 경음화의 적용을 받아 ‘-꼭’, ‘-쥬’로 실현된다. (67)은 용언 어간말 ‘ㄷ’ 뒤의 경음화와 사실상 동일한 조건이다. 그런데 용언 어간말 ‘ㄷ’ 뒤의 경음화는 실현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수의적인 현상이었다면 용언 어간말 ‘ㄷ’ 뒤의 경음화는 필수적인 현상인 것이다. 제주방언의 용언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에 대한 언급은 정승철(2000:183)에서부터인데 이 논의에는 ‘ㄷ’ 뒤에서도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조사자의 역량이 부족일 수도 있겠으나 ‘ㄷ’ 뒤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모습은 한 차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을 다시 정승철(2000:183)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정승철(2000:183)에 따르면 이 방언에서는 ‘ㄴ, ㄹ, ㄷ’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자음 어미)와 결합될 때 뒤에 오는 어미의 초성을 경음화하여 발음하지

않는다고 하며 ‘신고(신--+고), 금지(금--+지), 숲계[습계](숲--+계)’와 같은 예를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젊은층이나 일부 노년층 방언 화자들에게서는 경음화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젊은층이나 일부 노년층 방언 화자라는 표현은 아마도 표준어의 영향, 즉 개신형이 확대로 경음화가 실현되는 표면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시 일부 노년층에서 실현되지 않는 용언 어간말 비음 뒤 자음화는 보수형이라는 것이다.

어간말 자음 ‘ㄴ, ㄹ’ 뒤의 경음화와 그렇지 않은 형태의 공존은 현재로서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실현되는 빈도가 적고 수의적인 현상이며 일부 노년층에 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방언에 존재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정리하고자 한다. 또 어간말 자음군이 있는 어간 ‘ㅍ’의 경우에는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용언 어간말 비음 뒤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현상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독특한 음운 현상 중 하나라 할 만하다.

4.1.3. 비음화

음절말의 평파열음 ‘ㅂ, ㄷ, ㄱ’은 ‘ㅁ, ㄴ’으로 시작하는 비음 조사나 비음 어미 앞에서 각각 같은 조음 위치의 비음 ‘ㅁ, ㄴ, ㅇ’으로 동화되어 교체된다.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평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비음화는 곡용과 활용 모두에서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며 제주방언의 체언 어간에는 조사 ‘-만’이 결합될 때, 용언 어간에는 어미 ‘-나’¹³⁵⁾, ‘-는’ 등이 결합될 때 비음화가 실현된다. 다음에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비음 조사 ‘-만’과 결합 시, 비음 어미 ‘-는, -나’와 결합 시 나타나는 제주방언 비음화의 예들을 살펴본다.

(68) ㄱ. 씹+-만→썸만	[葉]
앞+-만→암만	[前]
ㄴ. 낫+-만→늑만	[顏]
낫+-만→난만 ¹³⁶⁾	[晝]

135) 여기 제시한 ‘-나’의 활용형은 모두 문장의 끝에 사용된 예들이다.

ㄷ. 떡+-만→땡만

[餅]

(68)은 장애음 ‘ㅂ, ㅍ, ㅅ, ㅆ, ㄱ’로 끝나는 체언 어간에 비음 조사 ‘-만’이 결합했을 때 비음화가 나타난 예이다. (68ㄱ)는 체언 어간 말음이 ‘ㅂ, ㅍ’인 경우인데 체언 어간 말음이 ‘ㅍ’일 경우 ‘ㅂ’으로 평파열음화가 일어난 후 ‘ㄱ’ 앞에서 ‘ㅂ’이 ‘ㄱ’으로 바뀌었다. (68ㄴ)는 어간의 말음으로 ‘ㅅ, ㅆ’을 가진 체언 뒤에 비음 조사가 연결되면 ‘ㅅ, ㅆ’에 평파열음화가 적용되어 체언 말음이 ‘ㄷ’으로 바뀐 후 뒤따르는 비음 조사의 ‘ㄱ’에 의해 동화되어 ‘ㄷ’이 ‘ㄱ’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68ㄷ)는 어간의 말음 ‘ㄱ’이 자음 조사 ‘-만’ 앞에서 ‘ㅇ[ŋ]’으로 바뀐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활용에서 나타나는 비음화 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 | | |
|--------------------------|-----|
| (69) ㄱ. 업--+-는→엄는 | [負] |
| ㄴ. 낱--+-는→진나 | [燃] |
| 긋--+-는→근는→근는 | [劃] |
| ㄷ. 맞--+-는→만는→만는 | [適] |
| 쫓--+-는→쫓는→쫓는 | [追] |
| ㄹ. 먹--+-나→명나 | [食] |
| ㅁ. 놓--+-나→논나→논나 | [放] |
| 좃--+-는→죃는→죃는 cf. 좃+-은→조은 | [好] |
| 징--+-는→진는→진는 | [搗] |

(69)는 활용에서 나타나는 비음화 양상을 어간 말음의 조음 위치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69ㄱ)의 어간 말음 ‘ㅂ’은 비음 어미 ‘-는’ 앞에서 ‘ㄱ’으로 실현된다. (69ㄴ, ㄷ)는 용언 어간 말음이 ‘ㄷ, ㅅ, ㅆ, ㅅ’인 경우인데 비음 어미 앞에서 각각 ‘ㄷ’으로 평파열음화한 다음에 뒤따르는 비음 어미 ‘-나, -는’ 때문에 비음 ‘ㄴ’으

136) ‘낫+-만’의 결합형은 자연 발화에서는 거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대개 이 방언 화자들은 자연 발화에서 조사 ‘-이’와 ‘-만’이 연속되어 결합하는 ‘낫+-이+-만→나지만’을 잘 사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제시한 예는 체언 어간말 ‘ㅅ’ 뒤에 비음 조사 ‘-만’이 결합될 경우의 비음화를 보이기 위한 자료로 조사하였음을 밝혀둔다.

로 동화되었음을 보인다. (69ㄹ)은 ‘ㄱ’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비음 어미 ‘-는’ 앞에서 같은 조음 위치의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을 보인 것이다. 한편 눈여겨 볼 것은 (69ㄱ)이다. 후음 ‘ㅎ’, ‘ㅇ’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자음 어미와 결합할 때 실현되는 비음화를 보여주는데 제시한 ‘놓-’과 ‘놓-,’ ‘징-’ 등처럼 ‘ㅎ’, ‘ㅇ’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도출 과정은 숨어 있는 평파열음화를 먼저 언급해야만 한다. 이들의 활용 양상 가운데 비음 어미 ‘-는’과의 결합에서 ‘논는’, ‘존는’, ‘진는’의 도출과 또 다른 비음 어미 ‘-나’ 앞에서 실현되는 ‘논나’, ‘난나’ 등은 직접적인 평파열음화를 관찰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비음화가 된 과정을 다른 도출형의 과정과 비교해 ‘ㅎ’과 ‘ㅇ’이 먼저 평파열음화를 겪어 ‘ㄷ’으로 교체된 후 ‘ㄷ’이 다시 연결되는 비음 ‘ㄴ’에 동화되어 비음화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방언에서 실현되는 용언 어간 가운데 ‘놓-’은 다른 방언에서 ‘놓-+-은→조은’의 도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주방언에서 ‘놓-’은 비음 어미 ‘-는’과 결합하여 ‘존는’¹³⁷⁾의 형태로도 실현되고, ‘조은’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여기서 ‘존는’의 실현은 ‘놓-’가 중앙어의 동사처럼 쓰임을 말하는 것이고, ‘조은’의 실현은 형용사처럼 쓰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음화 현상은 어간이 자음군으로 끝나는 경우에도 관찰된다.

- | | |
|-----------------|-----|
| (70) 녀+-만→녀만→녕만 | [媿] |
| (71) 몯+-나→몯나→몯나 | [淸] |
| 몯+-는→몯는→몯는 | [踏] |

(70), (71)은 각각 자음군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 자음군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비음 조사와 비음 어미가 연결될 때 비음화가 적용된 예를 보인 것이다. (70)은 자음군 ‘ㄱㅈ’이 ‘ㄱ’으로 단순화한 후 뒤따르는 비음 조사 ‘-만’에 의해 ‘ㅇ’으로 실현되는 예이고, (71)은 자음군 ‘ㄹ’, ‘ㅍ’이 자음군 단순화 규칙을 적용받아 어간말 자음군 ‘ㄹ’을 탈락시킨 후 결과인 ‘ㄱ’과 ‘ㅍ’이 비음 어미 ‘-나, -는’에 의해 각각 ‘ㅇ’과 ‘ㅁ’으로 바뀐 것을 보이는 예이다.

137) 국립국어원(2013)에는 “개난 침 마장 조는 거도 해주게”와 같은 발화에서 ‘조는’의 형태도 한 차례 확인된 바 있으나 이 글의 제보자에게서 표면형 ‘조는’은 구할 수 없었다.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제주방언에서 비음화는 적용되는 환경만 만들어지면 어김없이 실현되는 필수적인 음운 현상이다. 비음화는 제주방언만이 아니라 다른 방언에서 확인되며 국어의 공통적인 특성을 보인다.

4.1.4. 연구개음화

연구개음화는 조음 위치 동화¹³⁸⁾의 하나로 어간 말음이 양순음 ‘ㅂ, ㅍ, ㅁ’이나 치조음 ‘ㄷ, ㄴ’에 ‘ㄱ, ㅋ’ 등이 연결될 때 어간 말음이 연구개음 ‘ㄱ, ㅇ’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연구개음화가 실현될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는 제주방언 자음 조사 ‘-광’과 ‘-꺼지~ㄱ지’, ‘-ㄱ장~ㄱ정’은 연구개음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특히 자음 조사 ‘-광’과 결합할 때 연구개음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자음 조사 ‘-꺼지~ㄱ장’와 결합에서도 아주 빠른 발화일 때만 매우 드물게 연구개음화가 적용될 뿐 곡용에서의 연구개음화는 현상을 기술할 만한 것이 아니다. 실제 조사된 곡용형을 다음 (72)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72) ㄱ. 입+-광→입궤	[口]
집+-꺼지→집꺼지	[家]
ㄴ. 윗+-광→웁궤	[側]
앞+-ㄱ장→압ㄱ장	[前]
ㄷ. 놉+-광→놉궤	[他]
숨+-꺼지→숨꺼지(~송꺼지)	(성계)
ㄹ. 돈+-광→돈궤	[錢]
손+-ㄱ장→손ㄱ장(~송ㄱ장)	[手]

138) 조음 위치 동화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발화의 정확성을 기할 때는 대개 일어나지 않는 수의적인 음운 현상이다. 조음 위치 동화에는 연구개음이 아닌 어간 말음이 연구개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와의 결합에서 연구개음으로 바뀌는 연구개음화 현상, 양순음이 아닌 어간 말음이 양순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와의 결합에서 양순음으로 바뀌는 양순음화 현상이 있는데 제주방언에서는 연구개음화만 수의적으로 관찰된다. 공식적인 음운 현상의 양순음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72)는 ‘ㅂ, ㅍ, ㄷ, ㅁ, ㄴ’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에 자음 조사 ‘-광’, ‘-꺼지’, ‘-ㄱ장’이 후행할 때 나타나는 형태를 보인 것이다. (72ㄱ, 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양순음 ‘ㅂ, ㅍ’로 끝나는 체언 어간에 자음 조사 ‘-광’, ‘-꺼지’, ‘-ㄱ장’이 결합할 때는 연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다. 다만 (72ㄷ, ㄹ)에서처럼 양순음 ‘ㅁ’이나 치조음 ‘ㄴ’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 뒤에 자음 조사 ‘-꺼지’나 ‘-ㄱ장’이 연결될 때는 매우 수의적이기는 하나 체언이 연구개음 ‘ㅇ’으로 바뀌는 연구개음화가 나타난다.

이 방언 화자들은 자음 조사 ‘-광’과 결합한 형태에서는 조사 ‘-광’을 분명히 받음하려 한다. 이 때문에 자음 조사 ‘-광’이 연결되는 곡용형은 다른 자음 조사 ‘-도’ 등과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곡용형의 발음보다 상대적으로 느린 발화처럼 들리며 아주 잠시의 휴지(#)가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자음 조사 ‘-광’의 특성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 방언에서 자음 조사 ‘-광’과의 결합에서는 연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앞서 기술한 것처럼 자음 조사 ‘-꺼지~ㄱ장’과의 결합에서 연구개음화는 빠른 발화에서 아주 수의적으로 나타나며 이것 또한 ‘ㅁ’, ‘ㄴ’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과의 결합에서만 실현될 뿐이다.

다음에서 이 방언의 양순음과 치조음을 가지는 용언 어간에 자음 어미 ‘-곡’이 결합할 때 실현되는 연구개음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73) ㄱ. चुㅅ-+-곡→츄ㅅㅅ~츄ㅅㅅ~츄ㅅㅅ	[寒]
ㄴ. ㅁㅅ-+-곡→ㅁㅅㅅ~ㅁㅅㅅ~ㅁㅅㅅ	[埋]
ㄷ. ㅅㅅ-+-곡→쑤ㅅㅅ~쑤ㅅㅅ~쑤ㅅㅅ	[拾]
ㄹ. ㅅㅅ-+-곡→ㅅㅅㅅ~ㅅㅅㅅ(~ㅅㅅㅅ)	[抱]
ㅅㅅ-+-곡→ㅅㅅㅅ~ㅅㅅㅅ(~ㅅㅅㅅ)	[紮]

(73)은 ‘ㅂ, ㄷ, ㅅ, ㄴ, ㅁ’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자음 어미 ‘-곡’이 연결되었을 때 연구개음화가 실현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¹³⁹⁾. (73ㄱ, ㄴ)는 ‘ㅂ’, ‘ㄷ’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자음 어미 ‘-곡’과 만나 ‘ㄱ’으로, (73ㄷ)는 ‘ㅅ’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자음 어미 ‘-곡’과의 결합에서 먼저 ‘ㄷ’으로 평파열음화한 뒤 경음화가 되고,

139) 이 글의 음운 현상의 예들은 보통 조음 위치를 고려해 제시하였으나 여기서는 출력형이 ‘ㄱ’인지 ‘ㅇ’인지를 명확히 보이기 위해 순서를 조금 조정하였음을 밝혀둔다.

다시 그 후 연구개음화가 적용된 것을 보여준다. (73ㄱ, ㄴ, ㄷ)은 연구개음화가 실현된 후 동일 조음 위치의 폐쇄음·파찰음의 경음이나 유기음 앞에서 수의적으로 탈락하는 중복 자음 탈락을 겪기도 한다. (73 ㄱ, ㄴ, ㄷ)은 경음화가 적용된 형태, 연구개음화가 적용된 형태, 중복 자음 탈락을 겪은 형태 즉 세 가지의 표면형을 가진다.

(73ㄴ)는 ‘ㄴ, ㄹ’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자음 어미 ‘-곡’이 연결될 때 ‘ㄱ’의 영향으로 ‘ㅇ’으로 실현되는 예이다. 여기서는 모두 1음절 어간인 경우를 제시하였으나 2음절 이상의 어간에서도 ‘다듬-+-곡→다듬곡→다듬곡’ 등과 같이 연구개음화가 나타난다. 다만 (73ㄱ, ㄴ, ㄷ)처럼 (73ㄴ)도 경음화, 연구개음화,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은 형태의 세 가지가 모두 공존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연구개음화는 발음을 쉽게 하려는 데에서부터 오는 음운 현상이며 또한 이 방언에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4.1.5.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말에 둘 이상의 자음이 놓일 때 이 중 하나를 탈락시키는 현상을 가리킨다. 음절말에 적용되는 현상에만 국한되어 쓰이는데 자음군 ‘ㄹ, ㅍ’ 등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자음 어미가 오면 세 개의 자음이 연속되므로 이 중 하나의 자음이 탈락한다는 것이다.

현대 국어의 공시론적 측면에서의 자음군 단순화는 방언에 상관없이 후행하는 자음이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ㄹ’이 선행하는 자음군 단순화의 경우 방언 차이가 상당하다(이병근, 1975).

제주방언에서의 자음군 단순화는 중부 방언과 다른 형태를 가진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제주방언에서는 자음군이 ‘ㄹ’로 시작되면 일관성 있게 앞자음 ‘ㄹ’을 탈락시키는 특징이 있다. 어간말 자음군 ‘ㄹ, ㅍ’을 가지는 용언에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면 ‘ㄹ’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방언에서 이런 자음군은 모두 재구조화되었다. 한편 제주방언에는 어간말에 자음군을 가지고 있는 체언과 용언의 수가 다른 방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다¹⁴⁰⁾. 이러한 현상이

140) 김수영(2021:142)에 따르면 용언 어간말 자음군의 경우 모든 방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자음군

나타나는 이유는 자음군을 가지고 있던 용언 어간말이 ‘ㄴ’ 첨가에 의한 확대형 어간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체언의 경우도 어간의 재구조화가 일찍이 일어나 자음군으로 끝나는 체언과 용언은 그 수가 많지 않다.

자음군 단순화와 관련된 연구는 자음군의 목록에 대한 확인,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될 때 탈락하는 자음과 그것의 음운론적 조건, 자음군 단순화와 관련 있는 규칙들(평음화, 경음화, 유음화, 비음화)과의 규칙순 문제, 자음군 단순화의 음운론적 이유 등이 검토되었다(김봉국, 2002a:72). 한 방언 내에서 같은 자음군임에도 불구하고 형태소에 따라 탈락하는 자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주방언에서는 탈락하는 자음이 동일하다. 또한 어간의 재구조화 등의 요인 때문에 형태소 경계에서 유음화가 발생할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¹⁴¹⁾. 이러한 점들은 제주방언의 자음군 단순화가 다른 방언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기술을 다음에서 예를 통해 확인해 보려 한다. 먼저 자음군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자음군 단순화 양상을 관찰해 본다.

- (74) ㄱ. 녁ㅅㅈ+-도→너ㅈ도→넉도 [魂]
 ㄴ. ㅅㅈ+-만→ㅅㅈ만→꺄만 [界]

(74)는 제주방언에서 ‘ㄱㅅ’, ‘ㅈ’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자음군 단순화의 실현 양상을 보인 예이다. (74ㄱ)를 보면 체언 어간 ‘넉ㅅ’은 자음 조사 ‘-도’가 연결될 때 어간말의 ‘ㄱㅅ’ 가운데 ‘ㅅ’이 평파열음화를 거친 뒤 자음 조사를 경음화시킨 후 탈락한다. (74ㄴ)는 체언 어간 ‘ㅅㅈ’에 비음 조사 ‘-만’이 결합된 것인데 이때 어간말 ‘ㄱ’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를 겪게 된다. 이 방언에서 ‘ㅈ’으로 끝나는 용언의 기

은 ‘ㄴ, ㅈ, ㅊ’이라 하였고 이 3개가 제주방언에서 확인된다고 하였다. 제주방언의 용언 어간말 자음군의 수가 가장 적으며 전남방언이 14개, 경남방언이 15개로 가장 많은 용언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141) 형태소 내부, 단어 경계에서의 유음화는 당연히 존재하나 이 글은 어디까지나 형태소 경계에서의 음운 현상을 다루고 있으므로 공시적인 관점에서 유음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형태소 경계에서 나타나는 유음화의 경우는 어간말 자음에 ‘ㄱC’을 가지며 ‘ㄱC-ㄴ’의 연쇄가 ‘ㄱㄱ’로 관찰되는 순행적 유음화이다. 제주방언에서는 이러한 유음화가 일어나는 기본적인 조건인 용언 어간이 ‘ㄱC’인 경우에서 ‘ㄱ’이 탈락하는 유음 탈락만이 나타나며 유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어쩌면 더 극단적으로는 유음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어간들이 모두 재구조화되었기 때문에 공시적인 관점에서의 유음화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인 노년층의 경우이며, 젊은 화자에게서는 ‘ㅈ’ 등의 용언 어간을 가질 경우 순행적 유음화가 나타난다고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저형 ‘삶’도 ‘끓’과 동일하게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다.

다음으로 자음군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자음군 단순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방언에 존재하는 어간말 자음군을 가진 용언 어간은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ㄹ’이 선행하는 /Xㄹ-/, /Xㄹ-/, /ㄹ-/류뿐이다. 이들 가운데 ‘흙-’, ‘끓-’, ‘끓-’ 뒤에 자음 어미 ‘-꼭’, ‘-지’가 결합하는 활용형을 다음의 (75)에서 관찰한다.

- | | |
|---------------------|-----|
| (75) ㄱ. 흙-+-꼭→흙꼭→흑꼭 | [飮] |
| ㄴ. 끓-+-지→끓찌→곰찌 | [膿] |
| ㄷ. 끓-+-꼭→끓꼭→뵈꼭 | [踏] |

(75)는 ‘ㄹ’, ‘ㄹ’, ‘ㄹ’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자음군 단순화를 보여주는 예이다. (75)의 표면형으로 볼 때 이 방언에서는 ‘ㄹC’의 경우에는 늘 ‘ㄹ’이 탈락한다. (75 ㄱ, ㄴ, ㄷ)에서 자음 어미 ‘-꼭’과 ‘-지’를 경음화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탈락은 언제 일어났는지 하는 규칙순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어에서 ‘ㄹ’은 자음을 경음화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때 자음 어미나 자음 조사를 경음화시키는 것은 ‘ㄹC’ 중에서 ‘C’, 즉 ‘ㄱ, ㄴ, ㄷ’이 된다. (75)의 표면형은 모두 C₁C₂ 중 C₂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74), (75)를 통해 살펴본 제주방언에서의 자음군 단순화는 외재적 규칙순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경음화 이후 자음군 단순화가 실현되는 도출 과정이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방언 가운데 ‘ㄹ’이 남는 방언에서 반드시 자음군 단순화가 비음화보다 먼저 적용되도록 자·외재적 규칙순을 정해야 하는 것(이진호, 2002:23)과 달리 이 방언에서 자음군 단순화의 규칙 적용은 비관여적이라는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4.1.6. 유음 탈락

유음 탈락은 ‘ㄹ’이 ‘ㄴ, ㄷ’ 등과 같은 [+설정성] 계열의 자음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체언 어간 뒤에 조사가 결합할 때는 유음 탈락이 나타나지 않고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 유음 탈락이 나타난다(이진호, 2021:183).

여기서는 먼저 비음 어미 ‘-나, -는’과 결합 시에 나타나는 유음 탈락과 매개모음 어미 ‘-으X’와의 결합 시에 나타나는 유음 탈락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76) 갈--+나→가나 [耕]
털--+는→터는 [振]

(76)은 ‘ㄹ’로 끝나는 어간에 비음 어미 ‘-나, -는’이 연결될 때 어간말의 ‘ㄹ’이 탈락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어간말을 ‘ㄹ’이 ‘ㄴ’ 앞에서 필수적으로 탈락한다. 이것은 동기관적 이화에 따른 유음 탈락에 속한다(이병근, 1981).

다음으로 매개모음 어미 ‘-으X’가 ‘ㄹ’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말에 연결될 때 음절 구조 제약에 의해 유음이 탈락하는 모습을 관찰해 본다.

(77) 짚--+으난→짚난 [藉]
널--+으난→너난 [鋪]

(77)은 유음 ‘ㄹ’로 끝나는 어간과 매개모음 어미 ‘-으난’와의 결합에서 매개 모음의 ‘으’가 탈락한 후 다시 어간말의 ‘ㄹ’ 탈락이 적용된 것이다. 매개모음 어미 ‘-으민’이나 ‘-으멍’과 같은 형태와 어간말을 ‘ㄹ’이 연결될 때는 ‘으’ 탈락만 나타나지만 매개모음 어미 ‘-으난’과 결합에서는 ‘으’ 탈락이 먼저 적용된 후 다시 ‘ㄹ’과 ‘ㄴ’이 만나게 되는 (77)과 동일한 환경이 나타나 ‘ㄹ’이 탈락하게 된다. 국어에서는 ‘ㄹㄴ’의 연쇄를 피하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ㄹㄴ’이 연쇄될 때는 ‘음운론→음울론’과 같이 ‘ㄴ’이 ‘ㄹ’에 동화되어 유음화가 일어나거나 앞선 어간말 자음 ‘ㄹ’이 ‘ㄴ’에 동화되어 비음화가 일어나거나 유음이 탈락하는 형태로 실현된다(김봉국, 2002a:53).

이 방언에서 ‘으’ 탈락과 ‘ㄹ’ 탈락은 필수적인 음운 현상으로 존재한다. 유음 탈락은 어간말의 ‘ㄹ’과 어미의 ‘ㄴ’이 동일한 위치에서 발음되기 때문에 그때 발생하는 조음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용된다. 덧붙여 이 방언에서 형태소 경계에서의 유음화는 그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점 또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4.1.7. 후음 탈락

후음 탈락이란 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모음 또는 매개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될 때 후음이 약화되어 탈락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언의 후음으로는 자음 체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ㅎ’과 ‘ㅎ’이 존재한다. 공시적인 관점에서 제주방언의 후음 탈락은 활용에서만 관찰할 수 있다¹⁴²⁾. 이 방언의 어미 가운데 ‘ㅎ’으로 시작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이 글의 조사에서는 자음군 어간 가운데에 ‘ㅎ’을 포함한 형태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체언의 경우에도 ‘ㅎ’으로 끝나는 어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ㅎ’,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활용형에서 관찰되는 후음 탈락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78) ㄱ. 낳+-양→나양	[産]
ㄴ. 놓+-으민→노으민	[放]
ㄷ. 징+-영→지영~정	[搗]

(78)은 ‘ㅎ’,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낳-’, ‘놓-’, ‘징-’에 각각 모음 어미 ‘-양’, ‘-으민’, ‘-영’이 결합된 예이다. 이를 통해 어간말의 후음 ‘ㅎ’, ‘ㅎ’이 모음 어미 ‘-양/영’, 매개모음 어미 ‘-으민’ 앞에서 후음 ‘ㅎ’, ‘ㅎ’이 약화되어 탈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78ㄱ) ‘징-’의 표면형은 ‘지영’, ‘정’이 관찰되는데 이때 ‘정’은 후음 탈락에 이어 반모음화까지 실현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78ㄴ)에서는 ‘놓+-으민→노으민’으로의 도출 과정까지만을 여기서 다루는 후음 탈락이 적용된 현상으로 보고자 한다. 이는 실제 자연 발화에서 더욱 자주 관찰되는 ‘노민’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노민’의 표면형을 ‘노-’로 본다. 이 방언에서 ‘노민’은 대개 보조 용언 ‘-아/어 노민’의 형태로 실현된다. ‘-아/어 노민’뿐만 아니라 ‘-으X’형을 가진 어미들에서는 ‘아/어 노명’, ‘아/어 노난’ 등도 나타난다. 즉, 기저형 ‘놓-’에서 온 ‘놓+-으민→노으민→노:민→노민’이 아니라 기저형 ‘노-’에서 온 ‘노+-으민→노민’이

142) 제주방언에서 체언 어간 가운데 형태소 내부에서 ‘ㅎ’이 탈락하는 현상이 매우 빈번한데 이것은 실제 표기에까지 이어진다. 현평효 외(2009) 『제주어 사전』에는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표제어로 실려 ‘일흔’, ‘일은’, ‘마흔’과 ‘마은’ 두 형태가 제시되었다.

라는 것이다. ‘놓--+으민’의 도출 과정은 완전 순행 동화, 보상적 장모음화 이후 다시 단모음화를 겪는 것인데 이는 매우 복잡하며 설명하기도 어렵다. 반대로 ‘노--+으민→노으민’은 매개모음 어미 ‘-으’ 탈락이 나타난 것으로만 보면 된다.

이것은 3장 기저형 설정에서 한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방언에서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쌍형 어간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만 표면형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즉 ‘놓-’과 ‘노-’가 각각의 패러다임을 가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방언에서 뒤에 오는 모음이 앞 음절의 모음과 같아지는 완전 순행 동화와 보상적 장모음화를 규칙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완전 순행 동화와 보상적 장모음화가 공시적인 음운 현상으로 관찰된다면 (78ㄱ)의 표면형 ‘나양’이 ‘냥:’, (78ㄷ)의 ‘노민’이 ‘노:민’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글에서는 이 방언의 완전 순행 동화와 보상적 장모음화를 음운 현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보자들의 발화에서는 ‘나양’과 ‘냥’, ‘노으민’과 ‘노민’이 관찰될 뿐이기 때문이다.

후음 탈락은 이 방언에서 예외 없이 일어나는 필수적인 음운 현상 가운데 하나이지만 ‘ㅎ’으로 끝나는 어간과 ‘ㅎ’이 탈락된 형태로 재구조화된 쌍형 어간의 패러다임과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4.1.8. 중복 자음 탈락

중복 자음 탈락은 평음 ‘ㅂ, ㄷ, ㄱ’가 조음 위치가 같은 폐쇄음·파찰음의 경음과 유기음 앞에서 수의적으로 탈락하는 것을 말한다(배주채, 2018:162). ‘ㅂ’은 ‘ㅃ, ㅍ’ 앞에서, ‘ㄷ’은 ‘ㅌ, ㅌ, ㅈ, ㅊ’ 앞에서 ‘ㄱ’은 ‘ㄲ, ㅋ’ 앞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중복 자음 탈락은 화자가 신경을 써서 발화할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의식하지 않은 자연 발화에서는 수의적으로 관찰된다. 제주방언에서는 곡용과 활용 모두에서 중복 자음 탈락이 관찰된다. 먼저 이 방언에서 체언 어간이 ‘ㅂ, ㅅ, ㅈ, ㄱ’으로 끝나는 경우 자음 조사 ‘-보다, -도, -꺼지’¹⁴³⁾가 연결될 때 나타나는 중복 자음 탈락 현상을 다음의 (79)에서 살펴본다.

143) ‘-꺼지’는 이 방언에서 ‘-ㄱ지’, ‘-ㄱ장’ 등으로도 실현되는데 여기서는 실제 발화된 ‘-꺼지’ 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79) ㄱ. 밥+-보단→밥뽀단~바뽀단	[食]
ㄴ. 맛+-도→맛또~마또	[味]
ㄷ. 낫+-도→낫또~나또	[晝]
ㄹ. 죽+-꺼지→죽꺼지~주꺼지	[粥]

(79)는 ‘ㅂ, ㅅ, ㅆ, ㄱ’로 끝나는 체언 어간에 자음 조사 ‘-보단’, ‘-도’, ‘-꺼지’가 연결될 때 나타나는 곡용형이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방언에는 ‘ㄷ’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은 없지만 ‘ㅅ’와 ‘ㅆ’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에 자음 조사가 결합될 때 어간말 ‘ㅅ’, ‘ㅆ’은 ‘ㄷ’으로 평파열음화가 실현되기 때문에 이때 나타나는 곡용형에서 중복 자음 탈락을 확인해 볼 수 있다.

(79ㄱ)는 ‘ㅂ’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에 자음 조사 ‘-보단’이 연결될 때로 ‘밥뽀단’과 중복 자음 ‘ㅂ’이 탈락한 ‘바뽀단’이 공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9ㄴ)과 (79ㄷ)는 ‘ㅅ’과 ‘ㅆ’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에 자음 조사 ‘-도’가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곡용형이다. 체언 ‘맛’, ‘낫’은 먼저 ‘ㄷ’으로 평파열음화를 겪고 이후 자음 조사 ‘-도’에 경음화가 적용된다. 표면형은 ‘맛또’, ‘낫또’가 나타나지만 ‘맛또’, ‘낫또’의 빠른 발화에서는 중복 자음 ‘ㄷ’이 탈락한 ‘마또’와 ‘나또’도 수의적으로 관찰된다. 즉 체언 어간 ‘ㅅ’과 ‘ㅆ’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자음 조사 ‘-도’의 결합은 수의적으로 동일 자음 ‘ㄷ’을 탈락시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말이다. (79ㄹ)은 체언 어간이 ‘ㄱ’으로 끝나는 어간에 이른바 보조사 ‘-꺼지’가 결합되었을 때 실현된 ‘죽꺼지’와 ‘주꺼지’이다. 앞서 3장에서 제시했던 /Xㄱ/류의 연구개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꺼지’가 연결되면 ‘ㄱ’이 탈락하는 발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개 2음절 이상의 어간 ‘베락[霹], ‘아침[晡]’ 등에서 ‘ㄱ’이 특히 자주 탈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중앙어의 ‘가래[槿]’에 해당하는 ‘갈레죽’ 뒤에 조사 ‘-꺼지’가 통합된 경우로 이때는 ‘ㄱ’이 탈락한 ‘갈레주꺼지’의 실현이 더욱 우세하였다.

이 방언에서는 체언의 음절수가 많을수록 중복 자음 탈락 현상이 더욱 자주 실현되는 경향을 띤다. 또한 (79ㄱ, ㄴ, ㄷ, ㄹ)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화자의 빠른 발화에서는 조음 위치가 같은 중복 자음이 탈락한 형태가 자주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용언 어간과 자음 어미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중복 자음 탈락을 관찰해

보려 한다. 이 방언에서 ‘ㅂ’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은 존재하지만 ‘ㅂ’으로 시작되는 어미는 없으므로 곡용형에서처럼 ‘ㅂㅂ’이 이어졌을 때 관찰되는 중복 자음 탈락은 없다. 이러한 이유로 ‘ㄷ, ㅅ, ㅆ, ㅈ’ 뒤에 자음 어미 ‘-지’, ‘-주’가 연결될 때와 ‘ㄱ’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 자음 어미 ‘-곡’이 연결될 때를 살펴보기로 한다.

- | | |
|--------------------|-----|
| (80) ㄱ. ㅂ--주→ㅂ쭈~지쭈 | [燃] |
| ㄴ. ㅂ--지→ㅂ찌~버찌 | [脫] |
| ㄷ. ㅂ--주→ㅂ쭈~ㅂ쭈 | [探] |
| ㄹ. ㅂ--주→ㅂ쭈~ㅂ쭈 | [追] |
| ㄷ. ㅂ--곡→ㅂ곡~ㅂ곡 | [釘] |
| ㅂ. ㅂ--곡→지곡(~ㅂ곡) | [搗] |

(80)는 ‘ㄷ, ㅅ, ㅆ, ㅈ, ㄱ,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자음 어미 ‘-지, -주, -곡’이 연결될 때의 활용형을 보인 것이다. (80ㄱ)는 ‘ㄷ’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ㅂ--’ 뒤에 자음 어미 ‘-주’가 연결된 것으로 중복 자음이 탈락한 형태 ‘ㅂ쭈’와 그렇지 않은 형태 ‘지쭈’가 공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80ㄴ, ㄷ, ㄹ)은 ‘ㅅ, ㅆ, ㅈ’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ㅂ--’, ‘ㅂ--’, ‘ㅂ--’ 등에 자음 어미 ‘-지, -주’가 결합되었을 때 용언 어간이 ‘ㄷ’으로 평파열음화되고 후행하는 자음 어미를 경음화시킨 형태 ‘ㅂ찌’, ‘ㅂ쭈’, ‘ㅂ쭈’가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ㄷ’이 탈락된 표면형 ‘버찌’, ‘ㅂ쭈’, ‘ㅂ쭈’도 함께 관찰된다. (80ㄷ)는 ‘ㄱ’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ㅂ--’에 자음 어미 ‘-곡’이 연결되었을 때 표면형 ‘ㅂ곡’, ‘ㅂ곡’을 보인 것으로 역시 중복 자음이 탈락된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 둘 다 실현된다. (80ㅂ)는 이 방언에서 ‘ㅎ’으로 끝나는 유일한 어간 ‘ㅂ--’과 자음 어미 ‘-곡’의 결합 양상을 보인 것인데 이때의 표면형은 ‘ㅎ’이 탈락한 ‘지곡’이 우세형이다. 한편 체언 어간의 경우 음절수에 따른 중복 자음 탈락을 나누어 살펴보았으나 용언 어간의 경우 2음절 이상에서 관찰되는 중복 자음 탈락은 ‘어둑--’, ‘뭉직--’의 활용형 정도이다. 이들의 활용형 역시 중복 자음이 탈락된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가 공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복 자음 탈락은 화자가 주의 깊게 발화할 경우, 발음을 또렷하게 하겠다는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자연스러운 발화 환경이 형성되거나 빠른 발화가 나타날 때는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방언에서 중복 자음 탈락은 체언과 용언에서 모두 나타나는 수의적인 음운 현상이다.

4.1.9. 유기음화

유기음화는 평음 ‘ㅂ, ㄷ, ㅅ, ㄱ’과 ‘ㅎ’, 또는 그 반대의 경우인 ‘ㅎ’과 평음 ‘ㅂ, ㄷ, ㅅ, ㄱ’이 만나서 유기음 ‘ㅋ, ㅌ, ㅍ, ㆁ’ 등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제주방언에서는 체언 어간 뒤에 자주 사용되지는 않으나 자음 조사 ‘-허곡’이 연결될 때 순행적 유기음화가 일어나며 또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자음 어미가 결합할 때 역행적 유기음화가 일어난다. 먼저 곡용에서 확인되는 유기음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 | | |
|----------------|-----|
| (81) 밥+-허곡→바퍼곡 | [食] |
| 국+-허곡→구커곡 | [湯] |

(81)은 ‘ㅂ’, ‘ㄱ’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이 자음 조사 ‘-허곡’과 결합할 때 실현되는 유기음화를 보인 예이다. 자연 발화에서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 등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의미의 이른바 접속 조사 ‘-허곡’의 사용이 잦지는 않지만¹⁴⁴⁾ 확인된 유기음화만 기술하면¹⁴⁵⁾ ‘ㅂ, ㄱ’로 끝나는 체언 어간과 조사 ‘-허곡’이 만났을 때는 후음 ‘ㅎ’이 유기음 ‘ㅍ, ㅋ’로 나타난다.

이번에는 활용에서 확인되는 유기음화를 관찰해 본다.

- | | |
|---------------|-----|
| (82) 좋-+-곡→조곡 | [好] |
| 낱-+-당→나탕 | [産] |

144) 대체적으로 ‘-허곡’이 쓰일 자리에는 ‘-이영/영’, ‘-광’이 더 잘 나타난다.

145) 제주방언에는 ‘ㄷ’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이 없으므로 이 경우 ‘ㅌ’으로의 유기음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 ‘ㅅ’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유기음화에 대해서는 (69)의 제시한 방법으로 그 표면형을 설명할 수 없을 듯하다. ‘낱+-허곡’의 결합은 늘 ‘나지허곡’으로만 나타나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다만 만약 ‘낱+-허곡’이 도출된다면 이때는 음절말 평파열음화 적용된 후에 ‘낱’에 ‘-허곡’을 연결한 형태가 실현되지 않을까 한다. ‘나치곡’이 출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놓-+-지→노치

[放]

(82)는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놓-’, ‘낱-’, ‘놓-’에 자음 어미 ‘-곡, -당, -지’가 연결되어 유기음화가 실현된 표면형이 실현되는 과정을 보인 것이다. 자음 어미 ‘-곡, -당, -지’는 같은 조음 위치의 유기음 ‘ㄱ, ㅌ, ㅈ’로 각각 축약되어 ‘조곡’, ‘나탕’, ‘노치’ 등과 같이 나타난다.

(81)과 (82)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제주방언에서의 유기음화는 조건만 갖춰지면 일어나는 필수적인 음운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4.2. 모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

4.2.1. 원순모음화

원순모음화는 평순모음이 원순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원순모음화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양순음 아래에서 평순모음 ‘ㅡ’가 원순모음 ‘ㅜ’로 바뀌는 경우나 원순모음의 영향으로 평순모음 ‘ㅡ’가 원순모음 ‘ㅜ’로 바뀌는 경우이다. 후자는 모든 평순모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후설 고모음인 ‘ㅡ’에만 적용된다. 다만 제주방언에는 이 후자에 해당하는 원순모음화가 특기할 만큼의 음운 현상으로 관찰되지는 않아 전자에 해당하는 원순모음화에 대해서만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양순음 아래에서 ‘ㅡ’가 ‘ㅜ’로 교체되는 원순모음화를 곡용과 활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 | | |
|-------------------|-----------|
| (83) ㄱ. 입+-으로→이부로 | [口] |
| ㄴ. 윙+-으로→으푸로 | [側] |
| ㄷ. 몯+-으로→므무로 | [海草, 모자반] |
| ㄹ. 삶-+-으로→살무로 | [生] |

(83)은 양순음 ‘ㅂ’, ‘ㅍ’, ‘ㅁ’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에 매개모음 조사 ‘-으로’¹⁴⁶⁾가 결합하여 원순모음화가 실현된 양상을 보인 예이다. (83ㄴ)과 (83ㄷ)의 ‘으푸로’와 ‘므무로’에서는 특히 더 원순모음화가 잘 관찰되는데 이것은 양순음과 ‘ㅜ’가 가진 음성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방언에 존재하는 ‘ㅜ’는 후설 원순 저모음으로 양순음과 만났을 때 [+원순성], [+원순성] 자질이 더욱 잘 실현되는 것이다. ‘ㅜ’도 마찬가지로 모음 ‘ㅜ’의 영향으로 양순음 ‘ㅍ’과 만났을 때 원순모음화가 더 잘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다. (83ㄹ)은 자연발화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형태이지만 어간말 자음이 ‘ㅁ’인 경우에도 매개모음 조사 ‘-으로’가 연결되면 ‘ㅁ’의 영향으

146) 여기서 사용된 매개모음 조사는 대체로 도구격으로 쓰임을 말한다. 방향격의 ‘-으로’가 쓰일 자리에는 대개 ‘-더레~드레~레’의 형태가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양순음 ‘ㅍ’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에 매개모음 조사가 연결되었을 때의 표면형을 살펴보고자 이 조사를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로 매개모음 조사 ‘-으로’가 ‘-우로’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순음을 가진 체언 아래 ‘-’를 가진 조사가 결합될 때 모두 ‘ㄱ’로 바뀌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83ㄱ)의 체언 어간 ‘입[口]’에 조사 ‘-은’이나 ‘-을’이 연결될 때는 ‘이븐’, ‘이블’로 나타난다. (83ㄴ)의 어간 ‘옆[側]’이나 (83ㄷ)의 ‘땀[海草, 모자반]’의 경우에도 조사 ‘-은, -을’이 결합하면 원순모음화가 적용되지 않는 형태로 실현된다. 물론 그 음성이 자연발화를 기준으로 할 때 완전한 ‘-’ 모음인지 ‘ㄱ’ 모음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 모음인지 청취만으로는 구분하기가 매우 모호하다. 그렇지만 (83)의 표면형과는 차이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으로’와 ‘-은’, ‘-을’ 모두 어미의 두음이 ‘으’임에도 달리 실현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원순모음화의 적용 여부는 조사가 개음절 조사인지 폐음절 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개음절 조사 앞에 양순음을 가진 체언이 연결될 때는 원순모음화가 실현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순모음화가 잘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의 자료에서는 조사의 음절 구조와 상관없이 위와 같은 곡용형을 ‘-’와 ‘ㄱ’의 중간음인 ‘ㅈ’로 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조사된 자료에 기대어 매개모음 조사 아래에서 실현되는 원순모음화 현상만을 인정하고 그 외 ‘-은, -을’과 같은 폐음절 조사 아래에서의 원순모음화는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보려 한다.

다음으로 활용에서 나타나는 양순음 아래의 원순모음화를 관찰해 본다. 활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순모음화는 매개모음 어미 ‘-으X’가 용언 어간에 연결될 경우이다.

- | | |
|--------------------|--------|
| (84) ㄱ. 꼽-+-으민→꼬부민 | [插] |
| 심-+-으난→시무난 | [植, 執] |
| ㄴ. 뽀-+-으명→뽀부명 | [踏] |
| 꺾-+-으민→꺾무민 | [膿] |

(84)는 양순음 ‘ㅂ’, ‘ㅅ’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과 자음군 ‘ㅃ’, ‘ㅆ’으로 끝나는 어간에 매개모음 ‘-으민, -으난’, ‘-으명’ 등이 연결될 때 원순모음화가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⁴⁷⁾. (84ㄱ)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양순음 ‘ㅂ’, ‘ㅅ’과 매개모

147) 이 방언에서 양순음 ‘ㅍ’으로 끝나는 어간은 모두 ‘ㄱ’을 말음으로 가진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었다.

음 ‘ㄴ’이 연결되면 ‘ㄴ’이 ‘ㄷ’로 교체되는 원순모음화가 적용된다. 이 결과로 ‘꼬부민’과 같은 활용형이 실현되는 것이다.

(84ㄴ)는 어간이 ‘ㅃ’, ‘ㅍ’으로 끝나는 경우인데 이때도 매개모음 ‘ㄴ’은 ‘ㄷ’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ㅃ’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가운데 ‘닭-’의 경우는 3장에서 쌍형 어간 ‘달무-’가 공존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것은 이전 시기부터 어간말 자음군이 존재하는 경우 ‘ㄴ’이 첨가된 확대형의 실현이 ‘닭-’에까지 영향을 미쳐 ‘닭->달므->달무-’의 변화 과정을 보이는 예다. 제주방언에서는 이전 시기 양순음을 가졌던 많은 어형들이 재구조화되어 현재 이 방언에서 음절수와 상관없이 ‘양순음+ㄴ’형으로 존재한다. 이런 측면에서 ‘닭-∞달무-’의 공존은 더욱 그 변화 과정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한편, 양순음 ‘ㅂ, ㅁ’으로 끝나는 어간과 자음군 ‘ㅃ’, ‘ㅍ’으로 끝나는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은’, ‘-을’이 연결될 때는 곡용형과 마찬가지로 원순모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84ㄱ)은 ‘뽕+--은→꼬븐’, ‘뽕+--을→꼬블’, ‘심+--은→시믄’, ‘심+--을→시믈’, (84ㄴ)은 ‘뽕+--은→뽕븐’, ‘뽕+--을→뽕블’, ‘꺾+--은→꺾믄’, ‘꺾+--을→꺾믈’처럼 확인된다.

정리하면 제주방언에서의 원순모음화는 양순음을 가진 체언, 용언 어간(어간말 자음군 C₂가 양순음인 경우도 포함)에 매개모음 조사·어미 ‘ㄴ’이 연결될 때 ‘ㄴ’이 ‘ㄷ’로 바뀌는 원순모음화가 나타난다. 다만 매개모음 조사나 매개모음 어미가 폐음절 구조일 경우에는 원순모음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4.2.2. 전설고모음화

전설고모음화는 치조음 ‘ㅅ, ㅆ’, 경구개음 ‘ㅈ, ㅊ, ㅉ’ 뒤에서 후설 평순 고모음인 ‘으’가 전설 고모음인 ‘이’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제주방언에서는 치조음 ‘ㅅ’으로 끝나는 어간과 경구개음 ‘ㅈ, ㅊ’으로 끝나는 어간이 매개모음 어미 ‘ㄴ’과 결합할 때 매개모음 ‘ㄴ’이 ‘ㄷ’로 바뀌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이 방언에는 치조음 ‘ㅆ’, 경구개음 ‘ㅉ’로 끝나는 어간이 없으므로 이들에서는

형태소 내부의 원순모음화를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은 논외로 한다.

전설고모음화를 확인할 수 없다.

제주방언에서 전설고모음화 현상은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는 나타나지 않고 용언과 어미가 결합할 때만 그 모습을 보인다. ‘체언+조사’의 경우에는 ‘빚+-으로→비스로’, ‘낫+-으로→나즈로’가 실현될 뿐 ‘*비시로’, ‘*나지로’ 등의 표면형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활용에서만 이 음운 현상이 관찰되기 때문에 비음운론적 제약을 수반하는 음운 규칙인 셈이다(김봉국, 2002a:160). 다만 형태소 내부에서 전설고모음화를 겪은 예는 ‘ㄹ심[料]’, ‘쫓-[掃]’ 등 체언, 용언 모두에서 관찰된다.

다음에서 제주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전설고모음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 | | |
|-------------------------|-----|
| (85) ㄱ. ㄷ+-으난→ㄷ시난(~ㄷ스난) | [溫] |
| ㄴ. ㅁ+-으멍→ㅁ지멍(~ㅁ즈멍) | [適] |
| ㄷ. ㅈ+-으민→ㅈ치민 | [追] |

(85)는 치조음 ‘ㅅ’으로 끝나는 어간, 경구개음 ‘ㅈ, ㅊ’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에 매개모음 어미 ‘-으난, -으멍, -으민’이 결합할 때 매개모음 어미 ‘-’가 ‘ㅣ’로의 전설모음화를 겪은 표면형의 도출 과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 방언에서 전설고모음화는 (85ㄱ)과 (85ㄴ)처럼 전설고모음화가 일어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공존하는 수의적인 현상이다. 다만 그 실현 빈도를 확인해 보면 전설고모음화를 겪은 활용형이 훨씬 더 관찰된다. 한 제보자에게는 모든 발화에서 전설고모음화가 실현되는 반면, 일부 제보자에게는 전설고모음화를 입은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가 모두 다 조사되었기에 이것을 필수적인 현상이라고 기술할 수는 없다.

정승철(2000:184-185, 각주 3)에서는 제주방언 노년층 화자에게서는 ‘ㅅ’ 아래의 ‘으→이’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이 조사에서는 전설고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현상도 관찰된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필수적이었던 음운 현상이 표준어의 영향으로 점차 수의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놓인 것인지도 모른다. 정승철(2000:183)에서처럼 대부분의 젊은 방언 화자들은 ‘으’를 ‘이’로 바꾸지 않고 발음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기술에 기대서다¹⁴⁸⁾.

148) 전설고모음화의 세대별 변이 양상을 관찰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이를 추후 과제로 삼는다.

배주채(1994), 이상신(2008), 김경표(2008), 이진숙(2010) 등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남방언에서 전설고모음화는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다. 또 강원도 영동 남부 지역에서도 ‘읍ㅅ-+-으문→읍씨문’처럼 ㅅ 뒤 ‘ㅡ’가 ‘ㅣ’로 변화한 경우, ‘꽃-+-으면→꼬지면, 땃-+-으면→매지면’처럼 ‘ㅈ’ 아래에서 ‘ㅡ’가 ‘ㅣ’로 변화한 예 등도 관찰된다(방언연구회 편, 2011:33).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더라도 전설고모음화는 방언에서 공식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현상 가운데 하나다.

덧붙여 한 가지 원순모음화와 전설고모음화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남방언에서는 ‘ㅅ’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매개모음 어미가 연결되면 ‘벗-+-으면→부스면~부수면’, ‘젓+-으께→주승께~주승께’처럼 원순모음화를 일으킨다고 보고되었다. 제주방언에서는 4.2.3에서 확인할 수 있듯 동일한 환경에서 원순모음화는 특기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제주방언에서는 서남방언과 같은 ‘벗-+-으면’의 결합에서는 ‘부시민’, ‘젓-+-으면’의 결합에서는 ‘주시민’과 같은 전설고모음화가 실현된다. ‘ㅈ’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꺾-’ 등의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제주방언에서 원순모음화보다 전설고모음화가 강력하며 먼저 적용되는 현상이라고 본다. 물론 제주방언에서 전설고모음화는 거의 필수적인 음운 현상에 가깝고, 원순고모음화는 현상을 규칙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또한 전설고모음화는 직접 동화, 원순모음화는 동화주인 ‘ㄴ’과 피동화주인 ‘ㅡ’ 사이에 자음이 끼어 있는 간접 동화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으나 다른 방언에서 전설고모음화와 원순모음화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이것 또한 제주방언이 가지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2.3. 반모음화

단모음이 서로 인접할 때 모음과 모음 사이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두 모음 중 하나를 반모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음운 현상을 반모음화라고 한다(이진호, 2017:186). 이것은 일종의 자질 변경 규칙에 해당한다. 반모음화의 유형은 반모음의 종류와 관계가 있는데 제주방언에는 반모음 ‘y’와 ‘w’가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y’ 반모음화와 ‘w’ 반모음화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4.2.3.1. 'y' 반모음화

'y' 반모음화는 'ㅣ'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모음 어미 '-어X'가 연결되면 용언 어간의 'ㅣ'가 단모음 'ㅣ'에서 반모음 'y'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제주방언에서 'y' 반모음화는 모든 'ㅣ' 모음을 가지고 있는 용언 어간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또 그 실현 양상은 음절수, 음절의 성격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y' 반모음화보다 오히려 이 방언에서는 'y' 첨가가 더욱 활발히 나타난다. 다음에서 음절수와 선행 자음의 유무에 따라, 선행 자음의 성격에 따라 실현되는 'y' 반모음화를 관찰해 본다.

(86) ㄱ. 이-+-영→이영	[載]
ㄴ. 비-+-영→비영	[割, 空]
피-+-영→피영	[開]
기-+-영→기영	[匍]
ㄷ. 지-+-영→지영~정	[負]
치-+-영→치영~청	[蒸, 打]
찌-+-영→찌영~짚	[插]
ㄹ. 시-+-어→시여	[酸]
시-+-어→셔(~서)	[有]

(86)은 전설모음 'ㅣ'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모음 어미 '-영', '-어(종결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이다. (86ㄱ)을 보면 선행 자음이 없는 용언 어간 '이-'에 모음 어미 '-영'이 연결될 때 반모음 y 첨가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86ㄴ)는 선행 자음이 'ㅂ, ㅍ, ㄱ'인 용언 어간에 모음 어미 '-영'이 연결될 때인데 이들은 '병, 평, 경'처럼 반모음화가 적용된 형태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y'가 첨가된 '비영', '피영', '기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방언에서는 모음이 연속될 때 모음 충돌 회피 방법으로 반모음화보다는 'y'가 첨가를 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86ㄷ)는 제 방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경구개음 'ㅈ, ㅊ, ㅍ'를 선행 자음으로 가지는 용언 어간 뒤에 모음 어미 '-영'이 통합될 때 실현되는 예다. '지-+-영→정→정'의 도출 과정을 보면 반모음화가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경구개음이 선행하는

모음 어간과의 결합에서 반모음이 탈락하는 이유는 ‘스, 츠, 썩’ 뒤에 조음 위치가 같은 반모음 ‘y’가 이어지면서 [+전설성]이 중복되었기 때문이며, ‘스, 츠, 썩+ y’의 부자연스러운 연쇄를 피하기 위해서다(김봉국, 2002a:132). 단 (86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방언에서는 반모음화가 적용되지 않는 ‘지영’, ‘치영’, ‘찌영’ 등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86ㄱ, ㄴ)처럼 반모음 ‘y’ 첨가가 적용되는 것이다. 선행 자음이 ‘스, 츠, 썩’이고 어간말 모음이 ‘이’인 경우에 반모음화가 필수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으나 제주방언은 두 개의 형태가 공존하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86ㄴ)은 매우 흥미로운 자료로 어간의 형태가 같은 ‘시-’의 활용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적인 관점에서는 ‘ㅣ’ 모음을 가진 ‘시-’이지만 ‘시-[酸]’의 표면형에서는 반모음화가 나타나지 않고 ‘y’-첨가만 나타나는 데 반해 ‘시-[有]’에서는 반모음화가 적용된 형태와 이후 반모음 탈락이 적용된 형태까지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시-[有]’와 ‘시-[酸]’가 이렇게 모음 어미와의 결합에서 다른 표면형을 보이는 것은 공시적인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다. 각각의 형태는 원래 ‘ㅣ’ 모음을 가졌던 것과 다른 모음에서 변화한 것으로 이전 시기 모음 어미의 결합의 활용형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라고 해야만 각각의 표면형을 받아들일 수 있다. ‘시-[酸]’는 기원적으로 ‘식-’에 소급한다(정승철, 1988:49).

마지막으로 1음절 어간이 ‘ㅣ’로 끝나는 경우 반모음화가 일어나면 반모음화에 따른 보상적 장모음화가 필수적으로 실현된다고도 하는데 이 방언에서 보상적 장모음화는 필수적이지도 않으며 관찰되지도 않는다. 제주방언에서 보상적 장모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이 방언이 무음장, 무성조 방언이라는 점에 기대어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다음으로 2음절 이상의 ‘ㅣ’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모음 어미 ‘-영’이 통합될 때 나타나는 표면형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 | | |
|-------------------|-----|
| (87) ㄱ. 다이--+영→다영 | [抗] |
| ㄴ. 부비--+영→부병 | [刮] |
| 술피--+영→술평 | [察] |
| 전디--+영→전뎡 | [耐] |

거리-+-언→거령	[掄]
넝기-+-엥→넝경	[餘]
ㄷ. 녹찌-+-엥→녹쯔	[匱]
고치-+-엥→고칭	[改]
바찌-+-엥→바쯔	[賁]
ㄹ. 모시-+-엥→모성	[侍]

(87)는 (86)의 활용형 제시 순서와 같다 (87ㄱ)은 2음절이 ‘ㅣ’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모음 어미 ‘-엥’이 결합된 경우이고, (87ㄴ)은 2음절 어간이 양순음 ‘ㅂ, ㅍ’, 치조음 ‘ㄷ, ㄹ’, 연구개음 ‘ㄱ’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모음 어미 ‘-엥’이 연결된 경우이다. (87ㄷ)은 2음절 어간이 경구개음 ‘ㅈ, ㅊ, ㅉ’인 경우이며 (87ㄹ)은 2음절 어간이 ‘ㅅ’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모음 어미 ‘-엥’이 결합될 때 나타나는 표면형을 관찰하고자 제시한 경우이다. 모두 2음절 어간에서 나타나는 반모음화의 양상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87ㄱ)은 (86ㄱ)의 표면형 ‘이엥’과 달리 달리 선행 음절에 두음이 없는 경우 모음 어미 ‘-엥’이 연결될 때 반모음화가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87ㄴ)은 모음 어미 ‘-엥’과의 통합에서 모두 반모음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87ㄷ)은 경구개음 ‘ㅈ, ㅊ, ㅉ’를 선행 음절의 두음으로 가진 ‘ㅣ’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86ㄷ)의 ‘지-, 치-, 찌-’와 마찬가지로 반모음화가 적용된 이후 반모음 ‘y’가 탈락한 예이다. (87ㄹ)은 선행 자음이 ‘ㅅ’이고, 모음 ‘ㅣ’로 끝나는 2음절 어간의 활용형인데 (87ㄹ)에서 ‘시엥’이 존재했던 것과 다르게 단일형 ‘모성’만이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역시 반모음화가 관찰되는 것이다.

(86)과 (87)을 비교해보면 용언 어간의 음절 수에 따라 선행 음절의 두음이 무엇이냐에 따라 또 어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반모음화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2.3.2. ‘w’ 반모음화

‘w’ 반모음화는 ‘ㄱ’ 또는 ‘ㄷ’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모음 어미 ‘-아/-어X’가 연결될 때 반모음 ‘w’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이 방언에서는 초성이 양순음이고 ‘ㄷ’

로 끝나는 어간에서는 ‘w’ 반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제주방언에서 나타나는 ‘w’ 반모음화를 모음의 성격, 음절 수에 따라 나눠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1음절, 2음절에 ‘ㄴ’을 가진 어간의 예를 살펴본다.

(88) 가. 오-+-양→왕	[來]
나. 보-+-양→보양~뵤(~방)	[見]
쏘-+양→쏘양~쑤	[射]
다. 초-+-양→초양~초왕	[場]
호-+-양→호양~호왕 ¹⁴⁹⁾	[縫]
르. 나오-+-양→나왕	[出]

(88)은 ‘ㄴ’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모음 어미 ‘-양’이 연결될 때 나타나는 반모음화의 예를 보인 것이다. 선행 자음이 없는 경우, ‘ㅂ, ㅃ’인 경우, ‘ㅈ, ㅎ’인 경우로 나눠 (88가, 나, 다, 르)로 제시하였다. (88가)의 ‘왕’은 선행 음절 두음이 없는 ‘오-’에 모음 어미 ‘-양’이 결합할 때 반모음화가 필수적으로 적용됨을 보여준다. (88나)의 용언 어간 ‘보-’는 그 표면형이 세 가지 형태로 공존하는데 그 가운데 어간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려는 표면형 ‘보양’과 반모음화 이후 반모음 탈락을 거친 ‘뵤’의 표면형이 흥미롭다. 정승철(1995:98)은 제주방언의 용언 어간 가운데 단음절의 경우에는 ‘보안(보-+-안→보아서)’에서와 같이 부사형 어미 ‘-아/어’와의 결합에서 어간 말모음이 반모음화하지 않는다고 기술한 바 있으나 이 글의 조사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경우, 반모음화한 경우, 반모음화 이후 반모음 탈락이 일어난 세 가지 형태가 모두 확인되었다. (85나)의 ‘호-’나 ‘초-’의 경우는 음절 구조와 한 단어 내의 음절들이 연속된 구조를 지향한다고 전제할 때(강창석, 1984:207). 모음 충돌 회피 현상을 반모음화가 아닌 반모음 첨가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이와 함께 앞선 ‘y’ 반모음화에서 두드러졌던 1음절에서의 ‘y’ 첨가는 제주방언에서는 반모음화 보다는 반모음 첨가의 경향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뒷받침해주는 근거

149) 유필재(2001:190)에서는 ‘호:--+아서→화:서’로 w 반모음화를 보이고 있으나 제주방언에서는 ‘호-’의 경우 ‘화’로 실현되지 않는다. 김광웅(1989:140)에는 (88다)의 ‘호-’ 활용형으로 ‘황[hwa ŋ]’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 실현되는 형태인지는 의문스럽다. 또한 서울방언의 경우 1음절 어간이기 때문에 장모음화를 수반하고 있는데 제주방언은 ‘호-’가 장음으로 실현되지도 않는다.

이다. (88ㄴ)의 반모음화를 경험한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가 공존하는 것은 크게 멀지 않은 시기에는 정승철(1995:98)의 지적에서처럼 반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지금은 앞서 살펴본 ‘y’ 반모음화보다 실질적인 활용형 사용 빈도수에 의해 더 빨리 ‘w’ 반모음화 세력이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려고 한다.

다음으로는 1음절에 ‘ㄴ’ 모음을 가진 어간이 모음 어미와 결합했을 때의 활용 양상을 살펴본다.

(89) 두-+-영→두영(~똥)	[置]
쭈-+-영→쭈영(~썰)	[粥]
주-+-영→주영(~쥬~쥬)	[與]
추-+-영→추영(~춤)	[舞]
꾸-+-영→꾸영	[借]

(89)은 ‘ㄴ’로 끝나는 1음절 용언 어간에 모음 어미 ‘-영’이 결합할 때 나타나는 형태를 보인 것이다. (89)에서 공통적으로 반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형태가 존재하며 수의적으로 반모음화가 적용된 형태가 함께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모음화를 경험한 표면형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은 표면형보다 자주 실현되지 않으므로 괄호 () 안에 넣어 제시하였다. (89)의 ‘두-’나, ‘주-’는 보조 용언의 어간으로 쓰일 경우에는 반모음화가 일어난 형태로 활발히 사용되지만¹⁵⁰⁾ 보조 용언이 아닐 경우에는 반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형태로 쓰이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88)과 마찬가지로 ‘w’ 반모음화가 이 방언에서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드러내준다. 최명옥(2006:203)에서도 경북 상주 지역어에서 ‘두-[置]’, ‘주-[與]’, ‘누-[尿]’ 등과 같이 ‘ㄴ’로 끝나는 1음절 어간의 경우에 어간말의 ‘ㄴ’은 어미초 ‘아’ 앞에서 반모음화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곽충구(1994:117)는 어간 모음의 ‘ㄴ’가 반모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간의 손상으로부터 오는 의미의 불투명함을 예방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음운 행위상의 제약에서 비

150) “므물꺠루 해당 뉘 똥(메밀가루 해다가 뉘 두고)”이나 “꺠기 쫄망 건져 똥(고기 삶아서 건져 두고)”과 같은 발화에서 ‘두-’가 보조 용언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고, “동네 하르방이 중신 사 쥬 (동네 할아버지가 중매를 서 줘서)” 등과 같은 발화에서 ‘주-’가 보조 용언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롯된 것으로도 판단된다고 하며 이것이 체언 어간과 용언 어간의 차이점이라 지적하였다. 제주방언도 1음절 어간에서 반모음화한 형태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또한 어간의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이번에는 2음절에서 ‘ㄴ’을 가진 어간이 모음 어미와 결합했을 때를 관찰해 본다.

(90) ㄱ. 꺾우--+-양→꺾왕	[湯]
다우--+-양→다왕	[築]
폐우--+-양→폐왕	[布, 使布]
ㄴ. ㄹ꾸--+-양→ㄹ꿩	[畜]
가두--+-양→가똥	[囚]
질루--+-양→질룻	[飼]
ㄹ추--+-양→ㄹ췌	[備]

(90)은 ‘ㄴ’로 끝나는 2음절 용언 어간에 모음 어미 ‘-양’, ‘-안’이 연결될 때를 제시한 것이다. (90ㄱ)은 2음절이 ‘우’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꺾우-’, ‘다우-’, ‘폐우-’에 모음 어미 ‘-양’이 결합한 형태, (90ㄴ)은 2음절 용언 어간 ‘ㄹ꾸-’, ‘가두-’, ‘질루-’, ‘ㄹ추-’에 모음 어미 ‘-양’이 결합한 형태이다. (90ㄱ, ㄴ) 모두 1음절, 2음절 모음의 성격과 상관없이 모음 어미 ‘-아X’가 연결되고, ‘ㄴ’은 ‘w’로 반모음화하여 ‘꺾왕’, ‘다왕’, ‘폐왕’, ‘ㄹ꿩’, ‘가똥’, ‘질룻’, ‘ㄹ췌’이 나타난다. (89)와는 달리 (90)에서는 반모음화가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제주방언의 용언 어간은 음절 수에 따라 반모음화가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특히 1음절에서 ‘y’ 반모음화, ‘w’ 반모음화가 잘 실현되지 않는 원인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제주방언에서는 활용형에 반모음화가 적용이 되면 특히 1음절의 형태소 인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기세관 1984:428) 심리로부터 반영된 저지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방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제주방언에서도 역시 어간 보존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많은 음운 현상 가운데 반모음화가 한 방법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겠다.

4.2.4. ‘ㅏ’ 탈락

동일 모음이 연쇄될 때는 하나의 모음이 탈락하게 된다. 대부분의 방언에서 어간과 어미에 동일한 모음이 출현했을 때 동일 모음 탈락을 관찰할 수 있다.

동일 모음 탈락은 대개 부사형 어미 ‘-아/어X’ 앞에서 어간말의 ‘ㅏ’가 탈락되는 경우와 ‘ㄷ’가 탈락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제주방언에서 동일 모음 탈락은 ‘ㅏ’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방언에서는 ‘ㅏ, ㅓ’가 모두 탈락하여 이를 동일 모음 탈락 규칙으로 설정하지만 제주방언에는 ‘ㄷ’로 끝나는 규칙 용언 어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 모음 탈락은 어간말에 ‘ㅏ’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ㄷ’를 가지고 있는 용언 어간 ‘허-’는 모음 어미 앞에서 ‘허영’ 또는 ‘헤’로 실현되므로 이 역시 동일 모음 탈락과는 관련이 없다. 또 이 방언에서 동일 모음끼리의 연쇄에서 어느 하나가 탈락하는 경우에는 보상적 장모음화는 실현되지 않는다는 조건(이진호, 2002:118)이 따른다.

다음 (91)을 통해 이 방언에서 관찰되는 어간말 ‘ㅏ’의 탈락을 살펴본다.

(91) ㄱ. 가--양→강	[去]
짜--양→쌍	[點燈, 汐, 低]
나--양→낭	[產]
ㄴ. 하--아→하	[多]
ㄷ. 만나--아도→만나도	[遇]
트나--아도→트나도	[異]

(91)은 제주방언에서 관찰되는 모음 어미 ‘ㅏ’ 탈락을 보이는 예이다. (91ㄱ)는 ‘가-’, ‘짜-’, ‘나-’로 끝나는 1음절 용언 어간에서 모음 어미 ‘ㅏ’가 탈락한 것이다. 이때 ‘나-’는 ‘낭-[產]’의 쌍형 어간인데 ‘낭’의 표면형은 ‘나-’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낭-’에 모음 어미 ‘-양’이 연결되면 앞서 4. 1 .7.의 후음 탈락에서 다른 바와 같이 ‘낭--양→나양’처럼 ‘나양’이 출현하는 것으로 본다.

(91ㄴ)는 ‘하-’ 어간 뒤에 모음 어미 ‘-아’가 결합한 것이다. ‘하-’는 ‘-양’과는 잘 연결되지 않는다. 즉, ‘하-’는 연결 어미 자리에서 잘 쓰이지 않는 것이다. 만약 ‘하

-’가 사용된다면 ‘항’¹⁵¹⁾ 정도로 실현될 텐데 이 방언에서 그런 표면형이 실현되는 거의 없다. 종결 어미 ‘-아’와의 결합에서는 ‘하’로 나타난다. 이때 역시 모음 어미 ‘-아’가 탈락한 것이다.

(91ㄷ)는 ‘ㅏ’로 끝나는 2음절 용언 어간에 모음 어미 ‘-아도’가 결합된 것이다. 여기에서도 모음 어미 ‘-아’가 탈락해 ‘만나도’, ‘튼나도’와 같은 형태가 실현된다.

(91)의 활용형은 ‘어간+어미’의 동일 모음이 연쇄되기 때문에 탈락하는 모음이 어간말의 모음인지 어미의 모음인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임석규(2002:115-126)에서는 현대 성조 방언의 자료와 중세국어의 자료, 제주방언의 자료를 통해 어간말 모음이 탈락한 것¹⁵²⁾이라고 보고 있다. 이 글 또한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 사이의 교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려면 모음 어간이 탈락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어간말 모음 ‘ㅏ’가 탈락한 것으로 본다.

4.2.5. ‘ㅡ’ 탈락

제주방언에서 ‘ㅡ’ 탈락은 어간말 ‘ㅡ’ 탈락과 매개모음 조사·어미의 ‘ㅡ’ 탈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어간말 ‘ㅡ’ 탈락은 어간말의 ‘ㅡ’가 모음 어미 ‘-아/어’와의 결합에서 탈락하는 것이며 매개모음 조사·어미의 ‘ㅡ’ 탈락은 매개모음 어미 ‘ㅡ’가 유음이나 개음절 어간과의 결합에서 탈락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서 ‘ㅡ’ 탈락을 둘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4.2.5.1. 어간말 ‘ㅡ’ 탈락

‘ㅡ’로 끝나는 어간의 말음 ‘ㅡ’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어X’ 앞에서 어간말의 모음 ‘ㅡ’가 탈락하는데 이를 매개모음 조사·어미의 ‘ㅡ’ 탈락과 구분하기

151) ‘하-’의 활용형을 ‘하영’으로 보는 논의들이 있다. ‘하영’은 부사로 ‘하-’에서 온 것이지만 그 쓰임이 ‘하-+아→하’와도 다르며 의미도 완전히 달라진다.

152) 김완진(1972:290)과 최명옥(1976:6066)에서도 어간말 ‘으’ 탈락과 일관성을 고려하는 관점, 어미초 모음과 어간말 모음의 음운론적 강도에 따라 어간말 모음이 탈락한 것으로 보았고, 배주채(1994:99)는 어미초 모음이 탈락했을 경우의 형태 분석을 근거로 어미초 모음이 탈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임석규, 2002:115 재인용).

위해 어간말의 ‘ㄴ’ 탈락이라고 한다. 어간말의 ‘ㄴ’ 탈락은 체언 어간과 조사가 결합할 때에는 관찰되지 않으므로 보통 용언 어간말 ‘ㄴ’ 탈락이라고 부른다. 어간말 ‘ㄴ’ 탈락도 모음과 모음이 충돌할 때 회피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제주방언에는 ‘ㄴ’ 용언이 역사적으로 더욱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많은 용언 어간의 활용에서 ‘ㄴ’ 탈락을 관찰할 수 있다. 다음에서 용언 어간이 모음 어미 ‘-양/영’과 결합할 때 나타나는 용언 어간의 ‘ㄴ’ 탈락을 살펴본다.

(92) ㄱ. ㄲ--+-영→ㄲ	[消]
쓰--+-영→썩	[苦, 用]
트--+-영→텅	[浮]
ㄴ. 시ㄲ--+-영→시ㄲ	[載]
더ㄲ--+-영→더ㄲ	[蓋, 開]
따르--+-양→따랑	[酌]
푸ㄲ--+-영→푸ㄲ	[吹]
봣뜨--+-양→봣땅	[短]
야트--+-양→야탕	[淺]
여ㄲ--+-영→여ㄲ	[篇]
흘르--+-영→흘렁	[流]
할트--+-양→할탕	[舐]
흘트--+-양→흘탕	[擻]
중그--+-양→중강	[閉]

(92)는 용언 어간의 ‘ㄴ’가 모음 어미 ‘-양/영’과 연결될 때 탈락하는 예를 보인 것이다. 모두 용언 어간의 ‘ㄴ’가 탈락했으나 선행하는 모음이 무엇이나에 따라 ‘-양/영’의 교체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도 함께 보이고자 많은 예를 제시하였다¹⁵³⁾. (92ㄱ)은 단모음 ‘ㄴ’로 끝나는 1음절 용언 어간에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 ‘ㄴ’가

153) 이 글에서는 부사형 어미 ‘-아/어X’의 교체에 대해 별도의 장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방언의 부사형 어미 ‘-아/어X’의 교체 양상에 대해 이 글의 후속 과제로 논의하고자 한다.

탈락한 것이고, (92)는 단모음 ‘ㅡ’로 끝나는 2음절 어간에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이다. ‘ㅡ’가 첨가되어 어간이 재구조화된 용언 어간들에도 ‘ㅡ’ 탈락이 적용된다. ‘ㅡ’가 첨가되어 어간이 확대된 용언 어간은 2장 용언 어간의 기저형에서 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92ㄴ)의 ‘할트-’, ‘홀트-’ 등의 어간은 이전 시기 ‘ㅈ’의 어간말 자음군이었던 어간에 ‘ㅡ’가 첨가되어 재구조화가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ㅈ’ 어간말 자음군의 재구조화로 이 방언에서 ‘ㅈ’을 가지는 자음군은 존재하지 않는다.

(92)은 음절수에 관계없이 모두 ‘ㅡ’가 탈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방언에서 ‘ㅡ’로 끝나는 어간은 모음 어미 ‘-아/어X’와 연결되면 예외없이 탈락하는 공시적인 음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4.2.5.2. 매개모음 조사·어미의 ‘ㅡ’ 탈락

매개모음 조사·어미의 ‘ㅡ’ 탈락은 개음절로 된 체언 어간이나 개음절 또는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매개모음 조사나 매개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 매개모음 조사·어미의 ‘ㅡ’가 탈락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먼저 곡용에서 실현되는 매개모음 조사 ‘ㅡ’ 탈락을 관찰해 본다.

(93) ㄱ. 꿩이+-으로→꿩이로	[屬]
대폐+-으로→대폐로	[鉤]
매+-으로→매로	[鞭]
ㄴ. 술+-으로→술로	[酒]
낙물+-으로→낙물로	[采]

(93)는 모음 ‘ㅣ’, ‘개’, ‘개’로 끝나는 체언 어간과 ‘ㄹ’로 끝나는 체언 어간에 매개모음 조사 ‘-으로’가 연결될 때를 보인 것이다. 매개모음 조사 ‘-으로’는 매개모음 어미 ‘-으X’와 함께 이 방언에서 ‘-으X’형을 기저형으로 삼고 ‘ㅡ’ 탈락을 설정한 바 있다. 매개모음 조사 ‘-으로’에서 ‘ㅡ’ 탈락은 (9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 뒤에서나 ‘ㄹ’로 끝나는 체언 어간 뒤에서 필수적으로 탈락한

다. 매개모음 조사가 없는 ‘X형’을 설정하여 어떤 환경에서 ‘ㅡ’가 첨가되는 것으로 기저형을 설정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ㅡ’ 첨가보다 ‘ㅡ’ 탈락이 공식적인 음운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더욱 합리적으로 보고 곡용형에서 매개모음 조사 ‘ㅡ’ 탈락을 적용하였다.

한편 조사 ‘-으로’일 때는 ‘ㅡ’가 탈락하지만 또 다른 매개모음 조사 ‘-을, -은’이 체언 어간에 결합할 경우에는 ‘ㅡ’가 탈락하지 않는다. 다음에서 매개모음 조사 ‘-은’과 ‘-을’이 체언과 통합할 때의 예를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 | | |
|-----------------|-----|
| (94) ㄱ. 물+-은→무른 | [水] |
| ㄴ. 쌀+-을→쓰를 | [米] |

(94)는 ‘ㄹ’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에 매개모음 조사 ‘-은’과 ‘-을’이 연결될 때 나타나는 곡용형이다. (94ㄱ)과 (94ㄴ)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은’, ‘-을’ 앞에서 ‘ㄹ’은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실현된다. 즉 조사가 ‘-으로’와 같이 2음절 이상의 조사일 때는 탈락하지만 1음절 조사일 때는 탈락하지 않는 것이다. 조사가 2음절 이상일 때 ‘ㅡ’의 기능 부담량은 낮아지므로 이때 ‘ㅡ’는 탈락하기가 비교적 쉬워진다. 또 한편으로 ‘ㅡ’를 포함한 음절이 폐음절일 때 ‘ㅡ’ 탈락이 일어나면 음절 구조 제약에 의해 체언의 형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므로 폐음절 매개모음 조사 ‘-은’, ‘-을’에서는 ‘ㅡ’가 탈락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체언의 형태를 가능한 한 고정시키려는 화자들의 의식에는 위배된다. 그래서 곡용형에서 어미가 1음절일 때는 탈락하지 않고 2음절 이상일 때만 필수적으로 탈락하는 것이다. 이 점이 곡용과 활용의 차이를 보인다(정인호, 1995:66). 이 장에서 보이는 매개모음 조사 ‘ㅡ’의 탈락은 정리하면 조사 ‘-으로’에 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에는 활용에서 나타나는 매개모음 어미의 ‘ㅡ’ 탈락에 대해 검토해 본다.

- | | |
|-------------------|----------------|
| (95) ㄱ. 사-+-으난→사난 | [買, 立] |
| 나-+-으민→나민 | cf. 낱-+-으민→나으민 |
| 주-+-으명→주명 | [産] |
| 오-+-으난→오난 | [與] |
| | [來] |

ㅂ--+-으민→ㅂ민	[散]
ㅅ--+-으난→ㅅ난	[强]
깨--+-으명→깨명	[破]
ㄴ. 꺾--+-으민→꺾민	[屁]
뒤--+-으난→뒤난	[化]
아녀--+-으난→아녀난	[否]
ㄴ류--+-으민→ㄴ류민	[使降]

(95)는 제주방언에서 단모음 ‘ㅏ, ㅑ, ㅓ, ㅣ, ㅕ, ㅖ’로 끝나는 용언 어간과 이중모음 ‘꺾, ㅅ, ㅈ, ㅊ, ㅌ’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매개모음 어미 ‘-으난’, ‘-으민’, ‘-으명’이 연결된 예를 보인 것이다. (95ㄱ)에서 매개모음 어미가 탈락한 ‘사난’, ‘주명’, ‘오난’, ‘ㅂ민’, ‘ㅅ난’, ‘깨명’의 활용형이 확인되고, (95ㄴ)을 통해 ‘꺾민’, ‘뒤난’, ‘아녀난’, ‘ㄴ류민’이 관찰된다. 이들은 모두 선행 모음의 성격과 상관없이 매개모음 어미의 ‘ㄴ’이 탈락하는 것이다. 제주방언에서 모음이 탈락, 교체, 축약 등을 거칠 때 음이 장음으로 실현되는 이른바 보상적 장모음화는 실현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앞서서도 이 방언이 무성조, 무음장 방언이기 때문에 보상적 장모음화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보상적 장모음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주방언에는 완전 순행 동화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어간말 ‘ㄴ’이 탈락될 때와도 동일하다.

한편 매개모음 어미 ‘ㄴ’ 앞에 ‘ㄹ’로 끝나는 어간이 연결될 경우에는 매개모음 어미의 ‘ㄴ’ 탈락과 어간말의 ‘ㄹ’ 탈락이 실현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서 유음 탈락에서 한 차례 자세히 살펴본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번에는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매개모음 어미 ‘-으X’형이 결합될 때 매개모음 어미 ‘ㄴ’이 탈락되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단, 자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인 ‘ㄹ’ 탈락에서 ‘ㄹ’로 끝나는 어간 뒤에 ‘-으난’이 결합한 형태를 제시했으므로 여기서는 매개모음 어미 ‘-으민’, ‘-으명’이 연결될 때 나타나는 ‘ㄴ’ 탈락에 대해서만 관찰해 본다.

(96) ㄱ. 널-+-으멍→널멍	[鋪]
썰-+-으민→썰민	[掃]
들-+-으민→들민	[懸]
괘-+-으멍→괘멍	[大聲]
을-+-으민→을민	[開]
ㄴ. 멘들-+-으멍→멘들멍	[造]
수눌-+-으민→수눌민	(품앗이)

(96)은 ‘ㄹ’로 끝나는 어간과 매개모음 어미 ‘-으멍’, ‘-으민’이 결합할 때 매개모음 어미 ‘-’가 탈락한 예이다. (96ㄱ)의 표면형 ‘들민’과 ‘을민’은 ‘-’ 탈락에 의해 장모음화가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나 이 방언에서 보상적 장모음화는 음운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발음이 (96ㄱ)의 ‘널멍’, ‘썰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게 들리는 것은 그 때문은 아니다. 이 방언 화자들이 ‘·’와 ‘..’가 있는 음절을 발음할 때는 다른 모음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들린다. 예를 들어 ‘돌-[回], 들-[懸, 甘]’의 표면형을 비교해 보면 ‘돌곡, 돌주, 돌민’의 소리보다 ‘들곡, 들주, 들민’의 소리가 더 길게 나타나는 것이다. 모음이 ‘고’냐 ‘·’냐의 차이일 뿐이지만 ‘·’가 있는 ‘들-’의 활용형이 상대적으로 길게 느껴진다. 이는 이 방언 화자들이 후설 원순 저모음인 ‘·’와 ‘..’의 조음 위치를 ‘고’, ‘·’와는 차이를 두고 발음하기 위한 노력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¹⁵⁴⁾.

4.2.6. ‘ㄱ’ 탈락

‘ㄱ’ 탈락은 ‘양순음+ㄱ’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모음 어미 ‘-아/어X’가 결합하면 ‘ㄱ’이 탈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용언의 활용에 적용되는 비음운론적인 제약이 따른다. 이 글에서는 용언 어간의 1, 2음절 ‘양순음+ㄱ’형이 직접 모음 어미와 결합하는 것으로 공시적인 ‘ㄱ’ 탈락 규칙을 설정하고자 한다. ‘양순음+ㄱ’ 어간에 대해서는

154) ‘·’와 ‘..’ 발음을 간직하고 있는 노년층 화자들을 대상으로 주변 모음과의 차이, 음성적 길이를 보다 정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용언 어간의 기저형 설정에서 논의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양순음+ㄱ’ 어간이 모음 어미 ‘-아/어X’와 결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97) ㄱ. 푸--+영→핑	[汲]
ㄴ. 가푸--+앙→가팡	[返]
아푸--+앙→아팡	[痛]
고푸--+앙→고팡	[餓]
노푸--+앙→노팡	[高]
얄부--+앙→얄방	[薄]
ㄷ. 더푸--+영→더핑	[蓋]
어푸--+영→어핑	[泛]
실푸--+영→실핑	[厭]
지푸--+영→지핑	[深]
지뿌--+영→지뽕	[喜]

(97)은 ‘양순음+ㄱ’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모음 어미 ‘-양/영’이 연결될 때 그 활용형을 보인 것이다. (97ㄱ)는 단음절 어간 ‘푸-’에 모음 어미 ‘ㄱ’이 결합하여 ‘핑’으로 실현되었는데 이것은 ‘ㄱ-’나 ‘트-’ 등의 단음절 어간에서 용언 어간의 모음 어미 ‘ㄱ’를 취하는 것과 동일한 양상이다. ‘ㄱ-’, ‘트-’는 용언 어간의 ‘-’가 ‘푸-’는 용언 어간의 ‘ㄱ’가 탈락한 것이다. (97ㄴ)는 ‘양순음+ㄱ’로 끝나는 2음절 어간으로 1음절이 ‘ㅏ, ㅑ, ㅓ’인 경우이다. 이들 어간에 모음 어미가 결합될 때는 앞 음절 모음이 성격을 따라 ‘ㅏ’ 또는 ‘ㅑ’가 선택된다. (97ㄴ)의 1음절이 ‘ㅏ, ㅑ, ㅓ’이므로 모음 어미는 1음절의 성격에 따라 ‘-양’이 연결되고 각각은 ‘ㄱ’ 탈락을 거쳐 ‘가팡’, ‘아팡’, ‘고팡’, ‘노팡’으로 실현된다. (97ㄷ)는 (97ㄴ)과 마찬가지로 ‘양순음+ㄱ’로 끝나는 2음절 어간인데 (97ㄴ)과 1음절의 모음의 성격이 달라 따로 설명하고자 한다. (97ㄷ)는 1음절에 ‘ㄱ, ㄴ’를 가지는 어간이기 때문에 1음절 모음의 성격에 따라 모음 어미 ‘-영’이 연결된다. 역시 모음 어미와의 결합에서 ‘ㄱ’가 탈락하며 표면형 ‘더핑’, ‘어핑’, ‘실핑’, ‘지핑’, ‘지뽕’이 실현된다.

‘ㄱ’ 탈락은 이전 시기 ‘양순음+ㄱ’ 어간이었거나 어간말 자음이 양순음이었던 어

간에 ‘ㅡ’가 첨가된 후 다시 양순음화를 겪어 재구조화된 어간이면 모두 ‘ㄷ’ 탈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주방언에는 특히 ‘양순음+ㅡ→양순음+ㄷ-’로 재구조화된 어간이 많고 이들의 공시적인 관점에서 형태소 경계에서 실현되는 표면형을 설명하기 위해 ‘ㄷ’ 탈락을 음운 현상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4.2.7. 반모음 탈락

반모음 탈락은 특정 자음과 이중모음의 연쇄에서 이중모음을 구성하는 반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가리킨다(김성규·정승철 2013:256). 반모음은 ‘y’, ‘w’가 존재하므로 각각 ‘y’ 탈락과 ‘w’ 탈락으로 기술할 수 있겠지만 제주방언에는 반모음 ‘y’ 탈락만 관찰된다. ‘w’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표면형 ‘방’은 ‘보-+-양→보양~방(~방)’의 활용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보양’, ‘방’에 비해 그 관찰은 쉽지 않다¹⁵⁵⁾. ‘w’ 탈락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제주방언은 다른 방언과 마찬가지로 경구개음 ‘스, 츠, 썩’ 뒤에 반모음 y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 음운 배열 제약이 존재한다. 이것은 경구개음과 반모음 ‘y’의 조음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선행 자음이 경구개음일 경우 이 제약에 따라 반모음 ‘y’가 필수적으로 탈락한다. 앞서 4.2.3.1 ‘y’ 반모음화에서 보였던 예를 모음 어미 ‘-아/어사’의 결합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 | |
|-------------------------|--------|
| (98) ㄱ. 지-+-어사→저사(~지여사) | [負] |
| 치-+-어사→쳐사(~치여사) | [蒸, 打] |
| 찌-+-어사→찌사(~찌여사) | [插] |
| ㄴ. 눅찌-+-어사→눅찌사 | [匱] |

155)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이 1음절인 경우 더욱 이 방언에서는 그 형태를 보존하고자 모음 어미와의 결합에서도 반모음화, 반모음 탈락, 반모음 첨가 등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한데 ‘방’의 실현은 반모음화에 ‘w’ 탈락의 과정까지 거친 것이다. 다만 이러한 형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해석을 해 본다. 이것은 실제 ‘보-’의 사용 빈도수가 다른 모음으로 끝나는 1음절 어간 예컨대, ‘호-’, ‘초-’보다 많은 데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또한 이 방언의 젊은 층에서는 ‘보양’, ‘방’의 형태보다 ‘방’의 표면형이 자주 도출되므로 이 또한 ‘방’의 실현을 가능케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 제주지역 내에 붙여진 현수막을 보면 ‘왕 방 갑제’라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 ‘오-+-양→왕’처럼 똑같은 조건에서 ‘왕’은 반모음화된 형태로 실현되지만 ‘방’은 w가 탈락한 형태로 표기된 것이다.

고치--+어사→고쳐사

[改]

바찌--+어사→바찌사

[貢]

(98)은 ‘경구개음+ㅣ’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모음 어미 ‘-어사’와 결합할 때를 제시한 것이다. (98ㄱ)은 ‘경구개음+ㅣ’로 끝나는 1음절의 용언 어간, (98ㄴ)은 ‘경구개음+ㅣ’로 끝나는 2음절 용언 어간의 활용형이다. (98ㄱ)은 용언 어간 ‘지-’, ‘치-’, ‘찌-’에 모음 어미 ‘-어사’가 결합하면 ‘져사’, ‘쳐사’, ‘찌사’와 같이 반모음화가 먼저 적용되고 이후 반모음 탈락이 적용되어 ‘저사’, ‘쳐사’, ‘찌사’와 같은 표면형이 나타난다. 또한 반모음 ‘y’ 첨가가 실현된 ‘지여사’, ‘치여사’, ‘찌여사’도 나타난다. 이 둘이 공존하는 것은 앞서 ‘y’ 반모음화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방언에서 어간을 보존하려는 화자의 심리가 개입되어 나타난 형태라고 본다. 제주방언에서는 1음절에서 모음 충돌을 피하는 방법으로 반모음화보다 ‘y’ 첨가가 더 선호됨은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한편, (98ㄴ)은 ‘늑찌-’, ‘고치-’, ‘바찌-’ 어간에 모음 어미 ‘-어사’가 통합되어 ‘늑찌사’, ‘고쳐사’, ‘바찌사’와 같은 반모음화 이후 반모음이 탈락된 ‘늑찌사’, ‘고쳐사’, ‘바찌사’의 표면형만 확인된다. 1음절 ‘경구개음+ㅣ’의 어간과 달리 2음절 이상의 ‘경구개음+ㅣ’로 끝나는 용언 어간은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 반모음화 탈락이 필수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제주방언에는 ‘용언 어간+-아/어지다’의 쓰임이 많은데 이때 ‘-아/어지다’는 항상 ‘-아/어정’으로 실현되는 것이 당연하다. 음절수와 관계없이 ‘경구개음+ㅣ’에서 반모음 탈락은 [+전설성] 중복을 중복을 피하려는 강력한 음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4.2.8. 반모음 첨가

반모음 첨가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반모음 ‘y’나 ‘w’가 첨가되는 현상이다. 반모음 첨가는 즉 두 개의 모음이 인접하여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인데 제주방언에서 곡용형에서 실현되는 반모음 첨가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곡용에서 나타나는 반모음 ‘y’ 첨가부터 살펴본다.

(99) ㄱ. 잘리 ¹⁵⁶ +--에→잘리에	[袋]
질레+--에→질리에	[道]
대+--에→대예	[竹]
ㄴ. 포+--에→포예	[褌]
우+--에→우예(~우에~우이)	[上]
무수+--에→무수예	[葡]

(99)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에 모음 조사 ‘-에’가 연결된 것이다. (99ㄱ)는 ‘ㅣ’, ‘ㅑ’, ‘ㅓ’로 끝나는 체언 어간에 모음 조사 ‘-에’가 결합할 때 ‘y’ 첨가되어 표면형이 ‘잘리에’, ‘질리에’, ‘대예’로 나타난다. (99ㄴ)은 ‘ㄴ’, ‘ㄷ’로 끝나는 체언 어간에 모음 조사 ‘-에’가 결합하여 ‘y’가 첨가된 ‘포예’, ‘우예’, ‘무수예’가 나타난다. ‘우 [上]’에 모음 조사 ‘-에’가 결합할 경우에는 ‘우에’와 ‘우이’도 수의적으로 실현된다.

이 글의 보조 자료인 국립국어원(2013)에 보면 “꿀뚜긴 모싯포예 가며는(꿀뚜기는 모슬포예 가면)”, “그거 이제 막 베 포예 넣으네 이러케 문질러 가며는(그거 이제 베 보자기에 넣어서 이렇게 문질러 가면)”처럼 ‘포’ 뒤에서 모음 조사 ‘-에’에 반모음 ‘y’가 첨가된 형태의 ‘-예’가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방언의 화자에게서 ‘서구 포+--에’의 곡용형 ‘서구포예’는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송철의(1995:273)는 원칙적으로 ‘y’가 첨가되는 경우는 두 모음 가운데 선행모음이 ‘ㅣ’일 때라고 하였으나 제주방언에서는 선행 모음이 ‘ㅣ’가 아닌 ‘ㄴ’, ‘ㄷ’인 경우에도 ‘y’ 첨가가 관찰된다. 이때의 ‘y’ 첨가는 영주 지역어에서 확인되는 것(임석규, 1999:61-62)과 마찬가지로 앞 모음 자질과는 관계없이 반모음이 첨가될 위치에 후행하는 모음이 전설모음이면 ‘y’가 첨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번에는 활용에서의 ‘y’ 첨가를 살펴본다.

(100) 피+--영→피영	[開]
세+--영→세영	[算]

156) ‘잘리레’처럼 표면형이 도출되기도 한다. 체언 어간 ‘잘리’에 처격 조사 ‘-레’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여기서는 ‘-에’와의 결합형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개-+-영→개영	[霏, 糝, 混]
쉬-+-영→쉬영	[休]
뒤-+-영→뒤영~뒤	[化]

(100)은 앞서 반모음화를 확인할 때 한 차례 봤던 형태들로 ‘ㅣ, ㅑ, ㅓ, ㅕ, ㅗ’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모음 어미 ‘-영’이 연결될 때 그 사이에 반모음 ‘y’가 첨가된 현상을 보여준다. 다만 어간 ‘뒤-’에서만 ‘뒤영’과 ‘뒤’의 표면형이 공존하는 것이 흥미로운데 반모음화가 실현된 ‘뒤’은 주로 빠른 발화에서 관찰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언에서 나타나는 ‘w’ 첨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w’ 첨가는 활용에서만 관찰된다.

(101) 좋-+-양→조왕~조앙	cf. 조-+-양→조앙	[好]
-------------------	--------------	-----

(101)은 후음 ‘ㅎ’로 끝나는 용언 어간 ‘좋-’에 모음 어미 ‘-양’이 연결될 때의 예를 보인 것이다. 이때는 ‘좋-’의 어간말 자음 ‘ㅎ’이 탈락한 ‘조앙’이 실현된다. ‘ㄱ’ 모음과 ‘ㅏ’ 모음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개 반모음화나 반모음 첨가가 선택되는데 어간 ‘좋-’가 가진 성격 때문에 ‘조앙’이 *‘좡’처럼 반모음화가 적용되는 경우는 없으며 반모음 ‘w’가 첨가된 ‘조왕’이 나타날 뿐이다.

‘ㅎ’으로 끝나는 다른 용언 어간 ‘놓-[放]’는 ‘노왕~노앙~냥’의 세 형태가 실현되지만 ‘좋-’는 반모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국어 모든 방언의 공통적인 특성이다.

5. 결론

이 글은 제주 남원읍 지역의 노년층 화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대상으로 제주방언의 공시 음운론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반언어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이 방언의 체언과 용언 어간의 기저형 설정하고, 형태소 경계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다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남원읍 지역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해 직접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방언의 음소 목록을 확정하였다. 제보자는 모두 남원읍 지역에서 3대째 거주하고 있는 여성 3명과 남성 1명이었다. 이들의 말을 통해 제주방언에 존재하는 자음 20개(ㅂ, ㅃ, ㅍ, ㅌ, ㅍ, ㅌ), 단모음 9개(ㅣ, ㅘ, ㅙ, ㅚ, ㅛ, ㅜ, ㅠ, ㅡ, ㅝ), 반모음 2개(y, w), 이중모음 12개(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ㅛ, ㅜ, ㅠ, ㅡ, ㅝ)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자음의 ‘ㅎ’인데 기존 연구에서는 한 번도 설정되지 않았던 ‘ㅎ’을 이 방언의 자음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이 방언에는 하향 이중모음 ‘ㄴ’은 존재하지 않음도 밝혔다.

3장에서는 제주방언의 어간의 기저형을 확정하였다. 기저형은 도출 과정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어간의 기저형은 체언 어간의 기저형과 용언 어간의 기저형 설정으로 나누고 각각의 단수 기저형을 설정하였다. 단수 기저형 설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표면형들은 복수 기저형으로, 또 이 역시 공시적인 기술로 해석이 불가능해 화자의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라는 결론에서는 그 설명을 최대한 덧붙이려 하였다. 기저형은 다시 세부적으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기저형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기저형으로 나누어 살폈으며 조음 위치에 따라 구분하여 그 활용형과 기저형 목록을 보이고자 하였다.

2장의 기저형 설정을 통해 구한 제주방언 어간의 기저형을 간략하게 밝히면 다음과 같다.

■ 체언 어간의 기저형

① 단수 기저형

- ㉠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X{ㅂ, ㅍ, ㅁ, ㅅ, ㄴ, ㄹ, ㅈ, ㅊ, ㅇ}/류
- ㉡ 자음군으로 끝나는 어간: /X{ㅃ, /, /ㅆ, /ㅊ}/
- ㉢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X{ㅣ, ㅐ, ㅑ, ㅡ, ㅓ, ㅕ, ㅗ, ㅛ, ㅜ, ㅠ}/류
- ㉣ 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X{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ㅞ}/류

② 복수 기저형: 없음.

■ 용언 어간의 기저형

① 단수 기저형

- ㉠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X{ㅂ, ㅁ, ㄷ, ㅅ, ㄴ, ㄹ, ㅈ, ㅊ, ㅎ, ㅎ, ㅎ}/류
- ㉡ 자음군으로 끝나는 어간: /X{ㄹ, ㅍ, ㅃ}/류
- ㉢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X{ㅣ, ㅐ, ㅑ, ㅡ, ㅓ, ㅕ, ㅗ}/류
- ㉣ 이중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X{ㅑ, ㅓ, ㅕ, ㅗ}/류

② 복수 기저형: /Xㅂ-~X우-/류, /Xㅂ-~X오-~X우-/류, /Xㄷ-~X르-/류,
/Xㄷ-~X르르-/류, /허-~허여(헤)-/류

4장에서는 3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제주방언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에 대해 기술하였다. 공시적 관점에서의 음운 현상은 형태소 경계에서 나타난다. 이에 다시 형태소 경계에서 확인되는 자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과 모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방언에 자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에는 평파열음화, 경음화, 비음화, 연구개음화, 자음군 단순화, 유음 탈락, 후음 탈락, 유기음화 등이 있다. 모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은 원순모음화, 전설고모음화, 반모음화, ‘ㅓ’ 탈락, ‘ㅡ’ 탈락, ‘ㅛ’ 탈락, 반모음 탈락, 반모음 첨가가 확인되었다. 자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 가운데 용언 어간말 ‘ㄴ, ㅁ’ 뒤의 경음화는 이 방언에서 수의적인 현상임 밝혔고, 이 방언에서 ‘ㄷ’의 어간말 자음군이 단순화는 늘 ‘ㄷ’가 남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 방언의 모음과 관련된 현상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은 모음과 모음이 충돌할 때 회피하는 전략으로 반모음 첨가나 반모음화를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그 둘 가운데 반모음 첨가가 우선시 됨을 기술하였다. 물론 1음절의 경우 다른 방언과는 달리 어간을 보존, 유지하여 실현하려는 화자의 인식도 확인하였다.

개별 음운 현상의 기술은 최대한 국어와의 공통성을 찾으면서도 제주방언에만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그런 시도를 하려 한 데에는 국어 음운론 연구가 개별 방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짐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어의 하위 방언인 각 방언의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이 명확해졌을 때야 국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어 음운론 연구가 가능해진다. 국어학의 연구 대상은 늘 자연어여야 하며 그것은 실제 조사 자료를 통해서 밝힐 수 있다. 조사 자료를 최대한 풀어 내어 제주방언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은 어간의 기저형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제대로 기술해내지 못한 부분이 많다. 다만 지금까지 제주방언의 공식 음운론적 연구가 매우 부족했던 실정이었기에 이 글이 제주방언의 현재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담아내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백을 채웠다고 보려 한다.

이 글에서는 남원읍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방언의 음운론적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제주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글의 논의가 어미의 기저형 설정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제주의 다른 지역의 말 또한 음운 체계를 설정하고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을 설정, 음운 현상을 밝히는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렇게 된다면 제주방언 내에서의 지역 간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개별 음운 현상의 빈 공간도 확인된다. 부분, 부분 각주로 달아 놓았으나 해결하지 못한 내용들은 후속 과제로 삼는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강근보·김홍식·현평효(1974), 「제주도 방언의 활용 어미에 대한 연구」, 『논문집』6, 제주대학교, 15-48.
- 강근보(1978), 「제주도 방언의 곡용에 대하여」, 『논문집』 10, 제주대학교, 55-83.
- 강영봉(1983), 「제주도 방언의 후음」, 『탐라문화』 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9-43.
- 강정희(1980), 「제주방언의 처격 ‘-디’에 관한 일고찰」, 『방언』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강정희(1988), 『제주방언 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 강정희(1992), 「제주방언 연구 개관」, 『남북한의 방언 연구: 그 현황과 과제』, 경운출판사, 289-308.
- 강창석(1984), 「국어의 음절구조와 음운현상」, 『국어학』 13, 국어학회, 199-228.
- 강창석(1985), 「활용과 곡용에서의 형태론과 음운론」, 『울산어문논집』 2,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47-67.
- 고동호(1991), 「제주방언의 구개음화와 이중모음의 변화」, 『언어학』 13,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33-49.
- 고동호(1995a), 「제주방언의 움라우트 연구-형태소 내부를 중심으로」, 『언어학』 17,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3-24.
- 고동호(1995b), 「국어 마찰음의 통시적 연구-제주도 방언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동호(1996), 「제주방언의 유기음과 경음의 형성 과정」, 『한글』 234, 한글학회, 148-176.
- 고동호(1997), 「제주방언의 모음 조화 연구」, 『언어학』 21, 한국언어학회, 3-48.
- 고동호(2008), 「제주방언 ‘·’의 세대별 변화 양상」, 『한국언어문학』 65, 한국언어문학회, 55-74.
- 고동호(2014), 「제주방언 연구 개관」, 『제주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1-28.

- 고재환 외(2014), 『제주어 표기법 해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곽충구(1994), 『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20세기 러시아의 Kazan에서 간행된 문헌자료에 의한-』, 태학사.
- 국립국어원(2006), 『지역어 조사 질문지』, 태학사.
- 김경아(1990), 「활용에서의 기저형 설정과 음운현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표(2008), 「해남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표(2015), 「전남 도서 방언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광웅(1984), 「제주도 남부어의 경음화에 대한 연구」, 『논문집』 17-1, 제주대학교, 99-128.
- 김광웅(1986), 「제주지역어의 중화 현상에 대한 연구」, 『논문집』 22-1, 제주대학교, 47-66.
- 김광웅(1989), 「제주도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광웅(2001), 『제주 지역어의 음운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동은(2018), 「사천 지역어의 공시 음운론」, 『방언학』 27, 한국방언학회, 39-69.
- 김미진(2015), 「제주도 방언의 여성 발화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보향(2015), 「재일제주인의 언어 변화와 언어 전환 과정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국(2001), 「강릉·삼척 지역어 ‘-어/아’계 어미의 교체와 음운현상」, 『어문연구』 29-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71-92.
- 김봉국(2002a), 「강원도 남부지역 방언의 음운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국(2002b), 「강원도 남부지역 방언 어간말 자음군의 음운론」, 『국어학』 39, 국어학회, 173-200.
- 김봉국(2003a), 「복수기저형의 설정과 그 타당성 검토」, 『어학연구』 39-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559-578.
- 김봉국(2003b), 「복수기저형의 유형」, 『진단학보』 95, 진단학회, 165-199.
- 김봉국(2004), 「함북 육진방언의 ‘-어/아’ 교체 양상과 중립모음의 성격」, 『배달말』 35, 배달말학회, 321-341.
- 김봉국(2006), 「경기도 방언의 음운론적 특징」, 『어문연구』 51, 어문연구학회, 253-278.

- 김성규(1988), 「비자동적 교체의 공시적 기술」, 『관악어문연구』 1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5-44.
- 김성규(1989), 「활용에 있어서의 화석형」, 『주시경학보』 3, 탑출판사, 159-165.
- 김성규·정승철(2013), 『개정판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김소영(2017), 「쌍형어의 개념과 분류」, 『어문연구』 45, 한국어문교육연구회, 99-123.
- 김수영(2014), 「현대국어 어간말 자음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영(2021), 「한국어 자음 말음 어간의 형태음운론적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현(2014), 「중양아시아 고려말의 공시 음운론-원 함남 단천 지역어를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순자(2011), 「제주도 방언의 언어지리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선(2019), 「경남 방언의 완전동화 현상」, 『한글』 80-4, 한글학회, 705-743.
- 김옥화(2001), 「부안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원보(2006), 「제주방언 화자의 세대별(20대, 50대, 70대) 단모음의 음향 분석과 모음 체계」, 『언어과학연구』 39, 언어과학회, 125-136.
- 김 현(2006), 『활용의 형태음운론적 변화』, 태학사.
- 남제주군(2006), 『군제 60주년 남제주군지 I』, 남제주군.
- 문순덕 외(2015), 『‘제주어 표기법’ 자모의 실제 발음과 음성 분석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방언연구회 편(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 배영환(2002), 「후기 중세국어 쌍형어에 대하여」, 『개신어문연구』 19, 개신어문학회, 55-86.
- 배영환(2005), 「어간 재구조화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 『개신어문연구』 23, 개신어문학회, 19-58.
- 배영환(2006), 「‘끊-’ (斷)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249-272.
- 배영환(2008), 「국어 음운론에서의 ‘패러다임’의 성격에 대하여」, 『새국어교육』 78, 한국국어교육학회, 319-342.

- 배영환(2009), 「광주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개신어문연구』 29, 개신어문학회, 28-60.
- 배영환(2011), 『‘ㅎ’-말음 어간의 재구조화』, 지식산업사.
- 배영환(2012), 「16세기 국어 어미의 양성모음화 연구」, 『한국학』 35-4, 한국학중앙연구원, 297-321.
- 배영환(2013), 「‘똥-’[穿]의 형성과 방언 분화」, 『어문론집』 56, 중앙어문학회, 63-91.
- 배영환(2015), 「국어 후음 계열의 축약 현상에 대하여」, 『개신어문연구』 40, 개신어문학회, 5-31.
- 배영환(2018), 「제주방언 ‘올레’의 어휘사」, 『인문사회과학연구』 19-3,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27.
- 배윤정(2017), 「모음순행동화의 지역 분포와 형성 과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주채(1989), 「음절말 자음과 어간말 자음의 음운론」, 『국어연구』 91, 국어연구회.
- 배주채(1991), 「고흥방언 ‘-아’ 활용형의 음운론적 고찰」,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김완진 선생 회갑기념논총)』, 민음사, 373-398.
- 배주채(1994), 「고흥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주채(1998), 『고흥방언 음운론』, 태학사.
-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배주채(2015), 『한국어 음운론의 기초』, 삼경문화사.
- 배주채(2018), 『제3판 국어 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 백은아(2013), 「용언 어간말 ‘—’ 삽입 현상」, 『한글』 299, 한글학회, 49-75.
- 백은아(2016), 「전북 방언의 /—/ 삽입과 어간 재구조화」, 『방언학』 23, 한국방언학회, 107-126.
-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2012), 『의귀리지』,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 서정범(1964), 「제주방언의 음운변화고」, 『논문집』 4, 경희대학교, 11-38.
- 송철의(1991), 「국어 음운론에 있어서 체언과 용언」,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김완진 선생 회갑기념논총)』, 민음사, 278-296.
- 신승용(2012), 「음운사와 방언, 방언과 공시음운론」, 『방언학』 16, 한국방언학회, 7-41.

- 신승용·안미애(2012), 「유성 자음 뒤 경음화의 특성 및 원인에 대한 고찰」, 『동아 인문학』 22, 동아인문학회, 119-140.
- 신우봉(2015), 「제주방언 단모음과 어두 장애음의 음향 음성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우봉(2020), 「제주방언 음성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글』 329, 한글학회, 585-615.
- 엄태수(2014a), 「현대국어의 수의적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 『국제어문』 60, 국제어 문학회, 7-28.
- 엄태수(2014b), 「현대국어 음운현상의 상대적 강도에 대하여」, 『새국어교육』 99, 한국국어교육학회, 345-374.
- 오창명(2000), 「제주도 방언 연구 동향과 과제」, 『탐라문화』 2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29-246.
- 오창명(2007), 『제주도 오름 이름의 종합적 연구』, 도서출판 보고서.
- 오창명(2018), 「제주방언에 대한 관심, 연구 동향과 과제」, 『제주도연구』 50, 제주학회, 45-78.
- 유필재(2001),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필재(2006), 『서울방언의 음운론』, 월인.
- 이금화(2007), 「평양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문(1977a), 「제주도 방언의 ‘으’와 관련된 몇 문제」, 『이승녕 선생 고회 기념 국어학 논총』, 탑출판사.
- 이기문(1977b), 『국어 음운사 연구』, 탑출판사.
- 이기문(1993), 「동아시아 문화에 있어서 제주도제의 위치: 제주방언과 국어사 연구」, 『탐라문화』 1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45-154.
- 이병근(1975), 「음운규칙과 비음운론적 제약」, 『국어학』 3, 국어학회, 17-44.
- 이병근(1976), 「19세기 국어의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국어국문학』 72·73, 국어국 문학회, 1-14.
- 이상신(2007a), 「‘아’ 말음 처격형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경주지역어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5-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9-61.
- 이상신(2007b), 「영암지역어의 활음소화 및 관련 음운현상」, 『방언학』 6, 한국방언학

- 회, 139-162.
- 이상신(2008), 「전남 영암지역어의 공시 음운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신(2010), 「이중모음 어간의 공시 음운론」, 『어문학』 110, 한국어문학회, 91-112.
- 이승녕(1957),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동방학지』 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39-193.
- 이승재(2004), 『방언 연구-자료에서 이론으로』, 태학사.
- 이익섭(1972), 「강릉 방언의 형태음소론적 고찰」, 『진단학보』 34, 진단학회, 96-119.
- 이진숙(2010), 「진도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2013), 「고흥 지역어와 진도 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진호(2002), 「음운 교체 양상의 변화와 공시론적 기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진호(2006), 「국어 음운론 연구의 성과와 전망」, 『배달말』 39, 배달말학회, 143-166.
- 이진호(2007a), 「국어의 기저형 설정 조건」, 『어문학』 96, 한국어문학회, 139-160.
- 이진호(2007b), 「음운 변화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 『어문연구』 35-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93-112.
- 이진호(2008), 『통시적 음운 변화의 공시적 기술』, 삼경문화사.
- 이진호(2010a), 「국어 최소대립쌍의 설정에 대하여」, 『어문학』 107, 한국어문학회, 119-137.
- 이진호(2010b), 「국어 자음군단순화에 대한 종합적 고찰」, 『최명옥 선생 정년퇴임기념 국어학 논총』, 태학사, 561-584.
- 이진호(2012a), 「국어 PK-교체에 대한 종합적 고찰」, 『국어학』 63, 국어학회, 247-273.
- 이진호(2012b), 『河野六郎과 국어 음운론』, 지식과교양.
- 이진호(2014a), 『개정판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 이진호(2014b), 「형태소 교체의 규칙성에 대하여」, 『국어학』 69, 국어학회, 3-29.
- 이진호(2017), 『국어 음운론 용어 사전』, 역락.

- 이진호(2019), 「자동적 교체는 항상 규칙적 교체인가?」, 『국어학』 89, 국어학회, 3-24.
- 이진호(2021), 『개정 증보판 국어 음운론 강의』, 집문당.
- 이혁화(2002), 「국어 반모음 ‘ㄴ’의 음성학과 음운론」, 『어학연구』 38-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339-364.
- 이혁화(2005), 「무주·영동·김천 방언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임석규(1999), 「영주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석규(2002), 「음운탈락과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 40, 국어학회, 113-138.
- 임석규(2007), 「경북 북부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석규(2009), 「방언 조사 방법론의 어제와 오늘」, 『국어학』 54, 국어학회, 325-352.
- 임석규(2021), 『국어음운론의 기초』, 역락.
- 의귀리지 편찬위원회(2016), 『말과 곁의 고장 의귀』, 의귀리.
- 정승철(1988), 「제주도 방언의 모음 체계와 그에 관련된 음운현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승철(1991), 「음소연쇄와 비음운론적 경계-제주도 방언을 중심으로」,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김완진 선생 회갑기념논총)』, 민음사, 360-372.
-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태학사.
- 정승철(1996), 「제주도 방언 ‘ㅎ’ 말음 용언 어간의 통시론」, 『이기문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집』, 신구문화사, 738-753.
- 정승철(1999), 「제주방언의 음조와 음조군」, 『진단학보』 88, 진단학회, 543-554.
- 정승철(2000), 「제주방언의 음운론」, 『탐라문화』 2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79-189.
- 정승철(2003), 「어두자음군의 경음화와 격음화」, 『한국문화』 3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1-48.
- 정승철(2004), 「j계 상향이중모음의 변화-형태소 내부를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9-1, 제주언어학회, 43-58.
- 정승철(2008), 「방언형의 분포와 개신파-양순음 뒤 j계 상향이중모음의 축약 현상을

- 중심으로-], 『어문연구』 36-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99-116.
-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 정승철(2014), 「제주방언의 음운론 연구사: ‘으’ 관련 업적을 중심으로」, 『제주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29-60.
- 정인호(1995), 「화순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인호(1997), 「ㅁ-불규칙 용언 어간의 변화에 대하여」, 『애산학보』 20, 애산학회, 145-178.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1988),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 현지 학술 조사 보고: 지도·조사 경위·사회 배경·방언·민요·설화·신앙」, 『백록어문』 5,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249-360.
- 제주특별자치도(2008), 『남원읍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2020),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VIII(남원읍 편)』,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 조성문(2008), 「산포이론에 의한 제주방언의 음운적 특성 분석」, 『동북아문화연구』 제14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123-142.
- 채현식(1994), 「국어 어휘부의 등재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명옥(1978), 「동남방언의 세 음소」, 『국어학』 7, 국어학회, 71-89.
- 최명옥(1980), 『경북 동해안 방언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명옥(1990), 「방언」,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667-675.
- 최명옥(1991), 「어미 재구조화에 대하여」,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김완진 선생 회갑기념논총)』, 민음사, 238-251.
- 최명옥(2008a), 『(제2판) 국어 음운론』, 태학사.
- 최명옥(2008b), 『현대 한국어의 공시 형태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최명옥(2015), 『한국어의 방언』, 세창출판사.
- 최소연(2020), 「황해도 안악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은영(2013), 「자음군 단순화와 관련된 몇 문제」, 『어문연구』 73, 어문연구학회, 109-138.

- 최창원(2006), 「용인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창원(2015), 「경기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신영(2010), 「전남 곡성 지역어와 경남 창녕 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성우(2003), 「의주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성우(2009), 「방언 음운론의 현황과 과제」, 『국어학』 54, 국어학회, 353-381.
- 현평효(1964a), 「제주도 방언의 단모음 설정」, 『한국언어문학』 2, 한국언어문학회, 43-52.
- 현평효(1964b), 「제주도 방언 ‘ㅙ’음에 대하여」, 『국문학보』 2,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 3-34.
- 현평효(1970), 「제주도 방언의 모음 체계」, 『국문학보』 3,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 9-19.
- 현평효(1982), 「방언」, 『제주도지』(下), 제주도.
- 현평효(1987), 「제주도 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도연구』 4-1, 3-10.
- 홍성해(1987), 「제주 지역어의 자음 음운 현상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小倉進平(1913), 「濟州島方言」, 『朝鮮及滿洲』 68, 朝鮮雜誌社, 20-25.
- 小倉進平(1931), 「濟州島方言」, 『靑丘學叢』 5, 靑丘學會, 26-70[재수록: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下)』, 岩波書店(1973, 아세아문화사)].
-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 岩波書店.[이진호 역주(2009), 『한국어 방언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2. 자료

- 국립국어원(2004-2013),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2020),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VII(남원을 편)』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2014-2016), 『제주어 구술 채록 조사 보고서』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한국방언자료집 IX:제주도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현평효 외(2009), 『개정 증보 제주어 사전』, 제주특별자치도.

3. 누리집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웹(<https://stdict.korean.go.kr>)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http://seogwipo.grandculture.net/seogwipo>)

서귀포시 남원읍 사무소(<http://www.seogwipo.go.kr/local/namwon>)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

deletion, semi vowel addition in phonological phenomena related with vowel. Necessary phonological phenomena among them are non-plosive consonantalization, strong sound after non-plosive consonantalization, nasalization, consonant group simplification, liquid deletion, guttural sound deletion, aspirated, ‘ㅍ’ deletion, ‘ㄴ’ deletion and ‘ㄷ’ deletion, and others are all optional phonological phenomena.

〈부록〉 용언 활용표

- 가-[去]: 가곡, 가주, 가당, 강, 가명, 가민, 가는
가끄-[剪]: 가끄곡, 가끄지, 가깡, 가끄명, 가끄는
가두-[囚]: 가두곡, 가두주, 가똥, 가두난, 가두민, 가두는
가르-[分]: 가르곡, 갈란, 갈라도, 가르민, 가르는다
가리-[隱]: 가리곡, 가령, 가리난, 가리민
가참-[近]: 가참곡, 가참찌, 가차왕, 가차우난
가푸-[返]: 가푸곡, 가푸지, 가팡, 가파사, 가푸민, 가푸는
갈-[耕]: 갈곡, 갈지, 가랑, 가난, 갈민, 가는
감-[捲]: 감곡~감곡, 가망, 가무민, 감는
개-[霽, 彙]: 개곡, 개주, 개영, 개난, 개민, 개는
거끄-[切]: 거끄곡, 거끄지, 거깡, 거끄난, 거끄민, 거끄는
거두-[收]: 거두곡, 거두지, 거똥, 거두민, 거두는
거듭-[收]: 거듭곡, 거듭쭙, 거두왕, 거듭는
거리-[抒]: 거리곡, 거리지, 거려도, 거리민, 거리는
거볍-[輕]: 거볍고, 거볍찌, 거벼왕, 거벼우난
거피-[脫]: 거피곡, 거피주, 거평(~거피영), 거피난, 거피민, 거피는
건지-[撈]: 건지곡, 건지지, 건정, 건지명, 건지나
걷-[步]: 걷곡, 거령, 거르명, 거르민, 걷는
걷-[收]: 걷곡~걱곡~거곡, 거찌, 거더도, 거드명, 건나
걸-[掛]: 걸곡, 걸지, 거령, 거난, 걸민, 거나
게볍-[輕]: 게볍게, 게볍찌, 게벼완, 게벼우민
고르-[選]: 고르곡, 고르지, 골랑, 고르민, 고르는
고리-[糞]: 고리고, 고리지, 고령, 고려도
고지-[全]: 고지곡, 고지주, 고전, 고지난
고치-[改]: 고치곡, 고치단, 고칭, 고쳐사, 고치민
고푸-[餓]: 고푸곡, 고푸지, 고팡, 고푸난, 고푸민, 고푸는
곧-[直]: 곧곡~곡곡~고곡, 고당, 고드난, 곧나

골-[𪗇]: 골곡, 골주, 고라도, 고난, 골민, 고는디
 곱-[膿]: 곱꼭, 곱찌, 곱망, 곱무민, 곱는디
 곱-[麗]: 곱꼭, 곱쭈, 곱왕, 곱우난, 곱우민
 곱-[隱]: 곱꼭, 곱찌, 곱방, 곱부난, 곱부민, 곱는
 곱-[凍傷]: 곱꼭~고꼭, 곱쭈, 곱상, 곱시난, 곱나
 괭-[大聲]: 괭곡, 괭주, 괭랑, 괭난, 괭민
 굳-[固]: 굳꼭~국꼭, 굳쭈~구쭈, 구덩, 구드난, 구드민
 굶-[飢]: 굶꼭, 굶찌, 굶명, 굶무난, 굶무민, 굶는
 굶-[曲]: 굶꼭, 구병, 구부난, 구부민, 굶는
 굶-[炙]: 굶꼭, 구왕~구영, 구우난, 구우민, 굶는
 굶-[荒]: 굶꼭~국꼭, 굶찌, 구정, 구지난, 구지민, 굶나
 궤-[釘, 醜]: 궤곡, 궤지, 궤영, 궤민, 궤는
 그리-[慕, 畫]: 그리곡, 그리당, 그령, 그리난, 그리는디
 근-[刮]: 근곡(~근꼭), 근쭈~근쭈, 근녕, 근느민, 근는디
 굶-[刮]: 굶꼭, 굶찌, 굶경, 굶그민, 굶그난, 굶는~굶그는
 굶-[劃]: 굶꼭, 굶찌~그찌, 그성, 그스난~그시난, 그스민~그시민, 굶나
 기-[匍]: 기곡, 기지, 기영, 기난, 기민, 기는
 기다리-[待]: 기다리지, 기다리당, 기다령, 기다리민
 기렵-[戀]: 기렵꼭, 기려왕, 기려우민
 기리-[慕, 畫]: 기리곡, 기령, 기리난, 기리는
 기시리-[燋]: 기시리곡, 기시리지, 기시령, 기시리민
 마꾸-[畜]: 마꾸곡, 마꾸주, 마짱, 마꾸난, 마꾸민, 마꾸는
 마늘-[細]: 마늘곡, 마느라도, 마느라사, 마느난, 마늘민
 마뜨-[如]: 마뜨곡, 마뜨지, 마따, 마뜨민
 마롭-[癢]: 마롭찌, 마료왕, 마료우난, 마료우민
 마리치-[教]: 마리치곡, 마리치주, 마리쳐사, 마리치명, 마리치민, 마리치나
 마물-[旱]: 마물곡, 마무라도, 마무랑, 마무난, 마물민
 마추-[備]: 마추곡, 마추지, 마촬, 마추와서, 마추민, 마추는
 마트-[如]: 마트곡, 마트지, 마타도, 마트난, 마트민

곤-[臼]: 곤곡, 곤쥬, ㄹ랑, ㄹ르난, ㄹ르민, 곤는
 곶-[磨]: 곶곡, 곶지, ㄹ랑, ㄹ난, 곶명, ㄹ는
 곶류-[使均]: 곶류곡, 곶황, 곶류난, 곶류민
 곶-[洗髮, 髻]: 곶꼭~곶곡, 곶쥬~곶쥬, ㄹ망, ㄹ무난, 곶는
 까-[敲, 剝]: 까곡, 까쥬, ㄲ, ㄲ난, ㄲ민, ㄲ는디
 까끄-[剪]: 까끄곡, 까끄지, ㄲ, ㄲ난, ㄲ민
 깨-[破]: 깨곡, 깨쥬, 깨영, 깨난, 깨민, 깨나, 깨는디
 꺼끄-[切]: 꺼끄곡, 꺼끄지, ㄲ, ㄲ민, ㄲ는
 꺾리-[闡]: 꺾리곡, 꺾리쥬, 꺾령, 꺾려도, 꺾리민, 꺾리는디
 꼬-[索]: 꼬곡, 꼬지, 꼬양~꼬왕, 꼬난, 꼬민, 꼬는
 꼽-[插]: 꼽꼬~꼭꼬, 꼽찌, 꼬바사, 꼬부난, 꼬부민, 꼽는
 꾸-[借]: 꾸곡, 꾸지, ㄲ, ㄲ난, ㄲ민, ㄲ나
 풀리-[跪]: 풀리곡, 풀리지, 풀령, 풀리민, 풀리는디
 꿰-[貫, 沸]: 꿰곡, 꿰지, 꿰영, 꿰여사, 꿰난, 꿰민, 꿰는
 꿰우-[湯]: 꿰우곡, 꿰우지, 꿰왕, 꿰우명, 꿰우민, 꿰우는
 꺾-[屁, 搜]: 꺾곡, 꺾지, 꺾영, 꺾난, 꺾명, 꺾민, 꺾는
 끄-[消]: 끄곡, 끄지, ㄲ, ㄲ난, ㄲ민, ㄲ는
 끈-[切]: 끈곡~끈꼭, 끈찌, ㄲ, ㄲ민, ㄲ는
 끌-[引]: 끌곡, 끌지, ㄲ, ㄲ난, ㄲ민, ㄲ는디
 끌리-[湯]: 끌리곡, 끌리당, 끌령, 끌려사, 끌리난, 끌리민
 꺾-[引]: 꺾꼭~꼭꼭~ㄲ, ㄲ쥬, ㄲ서도, ㄲ시민~ㄲ스민, 꺾는
 꺾-[藉]: 꺾곡, 꺾쥬, ㄲ, ㄲ난, 꺾민, ㄲ는디
 나-[産]: 나곡, 나지, ㄲ, ㄲ난, ㄲ민, ㄲ는
 나-[出]: 나곡, 나쥬, ㄲ, ㄲ난, ㄲ명, ㄲ는
 나끄-[釣]: 나끄곡, 나끄쥬, 나깡, 나끄명, 나끄민, 나끄는디
 나르-[搬]: 나르곡, 나르지, ㄲ, ㄲ명, ㄲ는
 나오-[出]: 나오곡, ㄲ, ㄲ난, ㄲ는
 날르-[搬]: 날르곡, 날르지, ㄲ, ㄲ는
 남-[餘]: 남꼭, 남쥬, ㄲ, ㄲ난(~ㄲ), 남는

낮-[愈]: 낮꼭~나꼭, 나찌, 나사도, 나시민~나스민, 난나
 낭-[産]: 나꼭, 나치, 나양, 나으난~나난, 나으민~나민, 난는
 내-[出]: 내꼭, 내주, 내영, 내난, 내민, 내는디
 내우-[搯]: 내우꼭, 내우지, 내와사, 내우민, 내우는
 널-[鋪]: 널꼭, 널지, 너령, 널명, 너는
 널르-[廣]: 널르꼭, 널르주, 널령, 널르난, 널르민
 넘-[越]: 넘꼭, 넘주, 너명, 너므난~너무난, 넘는
 냉기-[餘]: 냉기꼭, 냉기주, 냉경, 냉기민, 냉기는
 노-[放]: 노꼭, 노지, 놌도, 노난, 노명, 노나
 노래-[驚]: 노래꼭, 노래지, 노래영, 노래는디
 노푸-[高]: 노푸꼭, 노푸지, 노판, 노푸난, 노푸민
 녹-[解]: 녹꼭, 녹찌, 노강, 노그민, 놓는디
 놀-[遊]: 놀꼭, 놀지, 노라도, 노랑, 노난, 놀명, 노는
 놀래-[驚]: 놀래꼭, 놀래영~놀랭, 놀래민
 놓-[放]: 노꼭, 노치, 노양~놏, 노으명~노명, 노으민~노민, 논는
 누-[尿]: 누지, 누영, 누민
 누르-[壓]: 누르꼭, 누르주, 늘령, 누르난, 누르는
 녹찌-[匱]: 녹찌꼭, 녹찌주, 녹찌사, 녹찌명, 녹찌민, 녹찌나
 늘-[補]: 늘꼭, 늘주, 누러도, 누난, 늘명
 눅-[臥]: 눅꼭, 누윙, 누우난, 누우민
 늘-[增]: 늘꼭, 늘지, 느린, 느난, 늘민
 늘류-[使增]: 늘류지, 늘황, 늘류난
 늑-[老]: 늑꼭, 늑찌, 늘거도, 늘그난, 늘그민, 능는
 늦-[晚]: 늘꼭~늑꼭, 느정, 느지명(~느즈명), 느지민(~느즈민), 능는
 느누-[分]: 느누꼭, 느누지, 느냥, 느누난, 느누민, 느누는
 느류-[使降]: 느류꼭, 느황~느류왕, 느류민, 느류는
 느리-[降]: 느리꼭, 느리지, 느령, 느리난, 느리민, 느리는디
 늘-[飛]: 늘꼭, 늘주, 느라도, 느난, 늘명, 느는디
 늦-[底]: 늘꼭~늑꼭, 늘주~늑주, 느자, 느지민

다끄-[修, 煮]: 다끄곡, 다끄주, 다까도, 다끄민, 다끄는
 다듬-[整]: 다듬꼭, 다듬찌, 다드망, 다드무민, 다듬는
 다우-[築]: 다우고, 다우지, 다왕, 다우민, 다우는
 다올리-[糲]: 다올리곡, 다올리지, 다올령, 다올리난, 다올리민
 다이-[扞]: 다이곡, 다이지, 다영, 다이민, 다이는
 다치-[傷]: 다치곡, 다처도, 다청, 다치민
 달-[閉]: 달꼭~다꼭, 달찌, 다당, 다드난, 다드민, 달는
 달무-[似]: 달무곡, 달망, 달무난, 달무민
 님-[似]: 님꼭~달므곡, 님찌, 달망, 달무민(~달므민), 님는다
 님-[如]: 님꼭, 님찌, 님쭈다, 달만
 담-[込]: 님꼭~담곡, 다망, 다무난, 다무민, 님는
 답찌-[餉]: 답찌고, 답찌지, 답쩐, 답찌민
 대-[接]: 대곡, 대지, 대영, 대민
 더끄-[蓋, 閉]: 더끄곡, 더끄지, 더껑, 더끄난, 더끄민, 더끄는다
 더듬-[摸]: 더듬꼬, 더듬땅, 더드무난, 더드면, 더듬는
 더럽-[汚]: 더럽꼬, 더럽찌, 더러왕, 더러우난, 더러우민
 더푸-[蓋]: 더푸곡, 더푸주, 더평, 더푸난, 더푸민, 더푸는
 덩-[晷]: 덩꼭, 덩찌, 더워도, 더우난, 더우민
 데끼-[投]: 데끼곡, 데끼주, 데껑, 데끼난, 데끼민, 데끼는
 데미-[積]: 데미곡, 데미주, 데명, 데미난, 데미민, 데미는
 데우치-[爍]: 데우치곡, 데우청, 데우치난, 데우치민
 텅기-[行]: 텅기곡, 텅기주, 텅경, 텅기민, 텅기는다
 텅이-[行]: 텅이곡, 텅이주, 텅영, 텅이명, 텅이민
 도치-[煨]: 도치난, 도치곡, 도청, 도치난, 도치는
 돈-[發芽]: 돈꼭~독꼭~도꼭, 돈찌~도찌, 도당, 도드난, 도드민, 돈는다
 돌-[回]: 돌곡, 돌주, 도라사, 도난, 돌민
 돕-[助]: 돕꼭, 돕찌, 도왕, 도우난, 도우민, 돕는
 두-[置]: 두곡, 두지, 두엥(~똥), 두민, 두는
 두두리-[打]: 두두리곡, 두두리지, 두두령, 두두리명, 두두리민, 두두리는다

두리-[幼]: 두리곡, 두리주, 두령, 두리난, 두리민
 뉘-[化]: 뉘곡, 뉘지, 뉘영, 뉘난, 뉘민, 뉘는다
 드물-[稀]: 드물곡, 드물주, 드무런, 드무난
 들-[走]: 들꼭, 들찌, 드랑, 드르난, 드르민, 들는
 들-[甘]: 들곡, 들주, 드라도, 드난, 들민
 들-[懸]: 들곡, 들주, 드랑, 드난, 들민, 드는
 돛-[濶]: 돛꼭~드꼭, 돛쭈~드쭈, 드산, 드시난~드스난, 드시민~드스민, 돛는다
 동그-[沈]: 동그곡, 동그지, 동가사, 동그난, 동그민, 동그는다
 동기-[引]: 동기곡, 동기지, 동경, 동기명, 동기는다
 따끄-[修]: 따끄고, 따끄지, 따깡, 따끄명, 따끄민, 따끄는
 따르-[酌]: 따르곡, 따르지, 따란, 따르명, 따르민, 따르는
 떼-[隔]: 떼곡, 떼지, 떼영, 떼난, 떼민, 떼는
 풀르-[穿]: 풀르곡, 풀르지, 풀란, 풀르명, 풀르는
 풀르-[穿]: 풀르고, 풀령, 풀르는다
 뜨나-[異]: 뜨나고, 뜨나주, 뜨나도, 뜨나난, 뜨나는다
 뜨리-[撻]: 뜨리곡, 뜨리주, 뜨령, 뜨리민, 뜨리나
 뜨리-[撻]: 뜨리곡, 뜨리지, 뜨령, 뜨리민, 뜨리명, 뜨리는
 마시-[飲]: 마시곡, 마시주, 마셔사, 마시난, 마시명, 마시나
 마트-[任]: 마트곡, 마트주, 마탄, 마트난, 마트민, 마트는
 막-[防]: 막꼭, 막찌, 마강, 마그민, 망는
 만나-[遇]: 만나고, 만난, 만나민, 만나는
 만들-[造]: 만들곡, 만들주, 만드랑, 만들민, 만드는
 만들-[造]: 만들지, 만들당, 만드랑, 만들명
 맞-[適]: 맞꼭~막꼭~마꼭, 맞쭈~마쭈, 마장, 마지난(~마즈난), 마지민(~마즈민), 만나
 먹-[食]: 먹꼭~머꼭, 먹쭈, 먹땅, 머경, 머그민, 멩나
 멀-[遠]: 멀지, 머령, 머난, 멀민
 멩-[際, 止]: 멩꼭~머꼭, 멩쭈~머쭈, 머저, 머지민, 멩나
 메-[繫, 媿]: 메곡, 메주, 메영, 메난, 메민, 메는
 메우-[填, 使擔]: 메우곡, 메우지, 메왕, 메우민, 메우는

멘들-[造]: 멘들곡, 멘들주, 멘드랑, 멘드난, 멘들민, 멘드나
 멜르-[窻]: 멜르곡, 멜르주, 멜라도, 멜르난, 멜르민, 멜르는
 맵-[辛]: 맵꼭, 맵찌, 맵왕, 맵우난, 맵우민
 모두-[蓄]: 모두곡, 모두주, 모두왕, 모두민, 모두는
 모듬-[蓄]: 모듬찌, 모두왕, 모듬는
 모시-[侍]: 모시곡, 모시주, 모성, 모시명, 모시민, 모시는
 몰르-[無知]: 몰르곡, 몰르주, 몰랑, 몰르난, 몰르는
 무끄-[束]: 무끄곡, 무끄주, 무꺼도, 무끄민, 무끄는
 무르-[燻]: 무르지, 물령, 무르난
 무치-[鑿]: 무치곡, 무치사, 무치난, 무치명, 무치는
 문-[埋]: 문꼭~무꼭, 문쭈~무쭈, 무더도, 무드난, 무드민, 문는
 문-[問]: 문꼭, 문쭈~무쭈, 무령, 무르난, 무르민, 문는
 물-[嚙, 賠]: 물곡, 물주, 무려도, 무난, 물민, 무는디
 물르-[燻]: 물르곡, 물령, 물르난, 물르는디
 물리-[嬪]: 물리곡, 물리주, 물령, 물리난, 물리민
 믿-[信]: 믿꼭(~미꼭), 믿찌~미찌, 미덩, 미드난, 미드민, 믿는
 밍-[憎]: 밍꼭, 밍찌, 미왕, 미우난, 미우민
 무렵-[마렵다]: 무렵꼭, 무렵찌, 무려왕, 무려우민, 무렵는디
 무습-[疹]: 무습꼭, 무습찌, 무스왕, 무스우난, 무스우민
 무치-[終]: 무치곡, 무청, 무치난, 무치민, 무치는
 문직-[抄]: 문직꼭~문지꼭, 문직찌, 문지강, 문지그난, 문지그명
 물-[捲]: 물곡, 물주, 무랑, 무난, 물민, 무는
 물류-[使乾]: 물류곡, 물류지, 물황~물류왕, 물류민
 물르-[乾, 裁]: 물르곡, 물르지, 물랑, 물르명, 물르민, 물르는
 물리-[使乾]: 물리곡, 물련, 물리난, 물리명, 물리민, 물리는
 몹-[淸]: 몹꼭, 몹찌, 몹강, 몹그난, 몹그민, 몹나
 뭇-[碎]: 뭇꼭~몹꼭~몹꼭, 뭇쭈~몹쭈, 몹상, 몹스민, 뭇는디
 바꾸-[換]: 바꾸곡, 바꾸주, 바짱, 바꾸난, 바꾸민, 바꾸는
 바레-[見]: 바레곡, 바레주, 바레영, 바레도, 바레난, 바레명, 바레는

바찌-[賁]: 바찌곡, 바찌, 바찌명, 바찌는
 바트-[唾]: 바트곡, 바탕, 바트민, 바트는
 박-[釘]: 박곡, 박찌, 바가도, 바그난, 바그민, 방는다
 반갑-[歡]: 반갑곡, 반가왕, 반가우난
 받-[受]: 받곡~박곡~바곡, 받찌~바찌, 바단, 바드난, 바드민, 받는
 배-[孕]: 배곡, 배연, 배난, 배민
 배우-[學]: 배우곡, 배우지, 배왕, 배우명, 배우나
 버치-(힘에 부치다): 버치곡, 버치주, 버천, 버치난, 버치민, 버치는다
 변-[筵]: 변곡~버곡, 변찌~버찌, 버덩, 버드명, 버드민, 변는
 벌-[羸]: 벌곡, 벌주, 버러사, 버난, 벌민, 버는다
 벗-[脫]: 벗곡~버곡, 벗찌~버찌, 버션, 버시난~버스난, 버시민~버스민, 변는
 베-[枕, 重]: 베곡, 베지, 베영, 베난, 베민, 베는
 베리-[察]: 베리곡, 베리지, 베령, 베리명, 베리는
 보-[見]: 보곡, 보지, 보양~뿡(~방), 보난, 보명, 보민, 보는
 보끄-[炒]: 보끄곡, 보끄지, 보끄당, 보깡, 보끄난, 보끄나
 부끄-[湔, 臍]: 부끄곡, 부끄지, 부짱, 부끄난, 부끄명, 부끄는다
 부뜨-[着]: 부뜨곡, 부뜨지, 부명, 부뜨난, 부뜨는
 부르-[呼]: 부르곡, 부르지, 불령, 부르난, 부르는다
 부리-[役, 卸]: 부리곡, 부리주, 부령, 부리난, 부리민, 부리는
 부비-[刮]: 부비곡, 부비주, 부병, 부비난, 부비민, 부비는
 부수-[碎]: 부수곡, 부수지, 부수왕, 부수난, 부수민, 부수는
 부찌-[使着]: 부찌곡, 부찌지, 부짱, 부찌난, 부찌민, 부찌는
 부치럽-[恥]: 부치럽찌, 부치러왕, 부치러우난
 부트-[着]: 부트곡, 부트지, 부텅, 부트민, 부트는
 불-[風, 吹]: 불곡, 불주, 부런, 불명, 불민, 부는다
 불르-[呼]: 불르곡, 불르지, 불령, 불르난, 불르는다
 붓-[腫]: 붓곡~복곡~부곡, 붓찌~부찌, 부성, 부스민, 분는
 붕물-[瘡]: 붕물고, 붕물주, 붕무리도, 붕물민
 비-[割, 空]: 비곡, 비주, 비영, 비난, 비명, 비는다

비비-[刮]: 비비곡, 비비주, 비병, 비비민, 비비는
 비우-[注]: 비우곡, 비우지, 비왕, 비우난, 비우민, 비우는
 빌-[祈]: 빌곡, 빌당, 비령, 비난, 빌민, 비는
 빗-[梳]: 빗곡, 빗찌~비찌, 비성, 비스민~비시민, 빗는
 브디-[近]: 브디고, 브디지, 브던, 브디난, 브디민
 브뜨-[短]: 브뜨곡, 브뜨주, 브땅, 브뜨난, 브뜨민, 브뜨는
 브르-[塗]: 브르곡, 브르주, 브랑, 브르명, 브르민, 브르는
 ब्ल류-[使踏]: ब्ल류곡, ब्ल황~블류왕, ब्ल류민
 ब्ल르-[塗] ब्ल르곡, ब्ल르주, ब्ल랑, ब्ल르명, ब्ल르민, ब्ल르는
 ब्ल리-[使踏]: ब्ल리곡, ब्ल리주, ब्ल령, ब्ल리난, ब्ल리명, ब्ल리민, ब्ल리는디
 붓-[明]: 붓곡, 붓찌, 붓포록, 붓강, 붓그난, 붓그민, 붓는
 붓-[踏]: 붓곡, 붓찌, 붓방, 붓반, 붓부난, 붓나, 붓는~붓브는
 빠-[拔]: 빠곡, 빠지, 빠단, 빵, 빠난, 빠민
 빼-[拔]: 빼곡, 빼주, 빼영, 빼난, 빼는
 뽑-[選]: 뽑곡~뽑곡, 뽑찌, 뽑방, 뽑부민, 뽑는
 빠-[散]: 빠곡, 빠주, 빠영, 빠난, 빠민, 빠는
 백뜨-[短]: 백뜨곡, 백뜨지, 백판, 백뜨난, 백뜨민
 빨-[浣]: 빨곡, 빨주, 빨라도, 빨난, 빨민, 빨는
 뽏-[粉]: 뽏곡~뽏곡~뽏곡, 뽏주~뽏주, 뽏상, 뽏시민~뽏스민, 뽏는다
 사-[立, 賈]: 사곡, 사주, 사도, 사난, 사민, 사는
 삭-[消]: 삭곡~삭곡, 삭주, 사가도, 사그난, 사그민, 상나
 살-[住]: 살곡, 살당, 사라사, 사난, 살민, 사는
 삼-[紉]: 삼곡~삼곡, 삼찌, 사망, 사무난, 사무민, 삼는
 새-[曙]: 새곡, 새여, 새민, 새는다
 셸-[漏]: 셸곡, 새라, 셸민
 서끄-[雜]: 서끄곡, 서끄지, 서경, 서끄난, 서끄민, 서끄는다
 서트-[雜]: 서트곡, 서트지, 서턴, 서트난
 설르-[止]: 설르고, 설르지, 설런, 설르난
 세-[算]: 세곡, 세주, 세영, 세난, 세민, 세는

셸-[立]: 셸꼭, 셸찌, 세왕, 세우난, 세우민, 셸는다
 소꾸-[均]: 소꾸곡, 소꾸짱, 소꾸난, 소꾸민
 속-[苦, 斯]: 속꼭, 속찌, 소간, 소그명, 송는
 솟-[湧]: 솟꼭~소꼭, 솟찌~소찌, 소사도, 소스민, 솟는
 수눌-(품앗이): 수눌곡, 수눌지, 수누령, 수눌명, 수누는다
 숨비-[沒]: 숨비곡, 숨병, 숨비명, 숨비민, 숨비는
 쉬-[休, 息]: 쉬곡, 쉬주, 쉬영, 쉬민, 쉬는
 쉽-[易]: 쉽꼭, 쉽쥬, 쉬왕, 쉬우난, 쉬우민, 쉽는다~쉬운다
 시기-[使]: 시기곡, 시기쥬, 시겨사, 시기난, 시기민, 시기는다
 시꾸-[夢]: 시꾸곡, 시꾸지, 시판(~시꾸완), 시꾸민
 시끄-[載]: 시끄곡, 시끄쥬, 시뀐, 시끄난, 시끄민, 시끄나
 시치-[洗]: 시치곡, 시치지, 시천, 시치민
 식-[冷]: 식꼭, 식찌, 시경, 시그난, 시그민, 싱는
 신-[履]: 신꼭~신곡, 신쥬, 시너도, 시느난, 시느민, 신나
 실렵-[斷]: 실렵꼬, 실렵찌, 실려왕, 실려우난
 실르-[載]: 실르곡, 실르지, 실령, 실르난, 실르민, 실르는
 실푸-[厭]: 실푸곡, 실푸지, 실편, 실푸민
 심-[植, 執]: 심꼭, 심찌, 시면, 시무난, 시무민, 심나
 싯-[洗]: 싯꼭, 싯찌, 시성, 시스민, 싯는다
 싯-[有]: 싯꼭, 싯쥬, 셔도, 시난, 시민, 싯는다
 싱겁-[淡]: 싱겁꼭, 싱겁찌, 싱겨왕, 싱겨와도, 싱겨우난, 싱겨우민
 싱그-[植]: 싱그곡, 싱그지, 싱경, 싱그난, 싱그민, 싱그는
 슬-[燒]: 슬곡, 슬쥬, 스랑, 슬민, 스는
 슬지-[肥]: 슬지고, 슬지지, 슬저도, 슬지민, 슬지는다
 슬피-[察]: 슬피곡, 슬피쥬, 슬평, 슬피명, 슬피는
 슴-[炊]: 슴꼭~스꼭, 슴쥬~스쥬, 슴땅(~스당), 스망, 스무민, 슴나
 짜-[點燈, 沓, 低]: 짜곡, 짜쥬, 짱, 짜난, 짜민, 짜명, 짜는
 짜납-[暴]: 짜납꼭, 짜나왕, 짜나우민
 싸우-[鬪]: 싸우곡, 싸우쥬, 싸왕, 싸우난, 싸우민, 싸우는

째- [鬪]: 째꼭, 째찌, 째왕, 째는
 썩- [腐]: 썩꼭, 썩주, 썩경, 썩그난, 썩그민, 썩는
 썰- [切]: 썰꼭, 썰주, 썰러사, 썰난, 썰민, 썰는디
 쎄- [强]: 쎄꼭, 쎄지, 쎄영, 쎄난, 쎄민, 쎄나
 쏘- [射]: 쏘꼭, 쏘양~쏘왕, 쏘난, 쏘민, 쏘는
 쏴- [瀉]: 쏴꼭~쏘꼭, 쏴찌~쏘찌, 쏴당, 쏴드난, 쏴드민, 쏴는
 쏸- [射]: 쏸꼭, 쏸찌, 쏸왕, 쏸찌, 쏸우민, 쏸는
 쑤- [粥]: 쑤꼭, 쑤지, 쑤영(~쑤), 쑤명, 쑤민, 쑤나
 쓰- [苦, 用]: 쓰꼭, 쓰주, 썩, 쓰난, 쓰민, 쓰는
 쓸- [掃]: 쓸꼭, 쓸주, 쓰렁, 쓰난, 쓸민, 쓰는디
 씨- [强]: 씨꼭, 씨지, 씨영, 씨민
 썰- [掃]: 썰꼭, 썰주, 썰렁, 썰난, 썰민, 썰는디
 씹- [咀]: 씹꼭, 씹주, 씹병, 씹부난, 씹부민, 씹는
 씻- [洗]: 씻꼭, 씻찌, 씻성, 씻스민, 씻는
 찹- [烹]: 찹꼭, 찹찌, 찹망, 찹무난, 찹무민, 찹는디
 아깝- [惜]: 아깝꼬, 아깝주, 아깝왕, 아깝우난, 아깝우민
 아녀- [否]: 아녀꼭, 아녀지, 아녀, 아녀난, 아녀민, 아녀는디
 아니- [否]: 아니고, 아니지, 아니난, 아니민
 아프- [痛]: 아프꼭, 아프지, 아판, 아프난, 아프민
 안- [抱]: 안꼭~안꼭~앙꼭, 안찌, 안냥, 안느명, 안느민, 안는디
 알- [知]: 알꼭, 알주, 아랑, 아난, 알민, 아는
 앓- [奪]: 앓꼭~악꼭~아꼭, 앓주, 앓상, 앓스난~아시난, 앓스민~아시민, 앓는
 앓- [坐]: 앓꼭~악꼭~아꼭, 앓주~아주, 앓장, 앓지난~(아지난), 앓지민(~아지민), 앓는
 야트- [淺]: 야트꼭, 야트지, 야탕, 야트난, 야트민
 야푸- [淺]: 야푸꼭, 야푸지, 야팡, 야푸난, 야푸민, 야푸는
 얇부- [薄]: 얇부주, 얇바도, 얇부민
 어둑- [暗]: 어둑꼬~어두꼬, 어둑찌, 어둑경(~어둑강), 어둑구난, 어둑구민
 어둑- [暗]: 어둑꼭, 어둑찌, 어둑원, 어둑와사, 어둑우난, 어둑우민
 어렵- [難]: 어렵꼭, 어렵찌, 어려왕, 어려우난, 어려우민

어푸-[泛]: 어푸곡, 어푸지, 어평, 어푸난, 어푸민, 어푸는
 얻-[得]: 얻꼭~얻꼭~어꼭, 얻쭈~어쭈, 어던, 어드난, 어드민, 얻는
 얼-[凍]: 얼곡, 얼쭈, 어러, 어난, 얼민
 얼류-[使氷]: 얼류고, 얼황, 얼류라, 얼류민
 엷-[構]: 엷꼭, 엷찌, 엷거사, 엷그명, 엷그민
 엷-[負]: 엷꼭, 엷쭈, 어병, 어부명, 어부민, 엷나
 엷-[無]: 얻꼭~얻꼭~어꼭, 어쭈, 어성, 어시난(~어스난), 어시민(~어스민), 얻는
 여끄-[編]: 여끄고, 여끄지, 여경, 여끄명, 여끄민, 여끄는
 오-[來]: 오곡, 오쭈, 왕, 오난, 오민, 오는
 오르-[登]: 오르곡, 오르지, 올랑, 오르민, 오르는
 오비-[掘]: 오비곡, 오비쭈, 오병, 오비난, 오비민, 오비는다
 올르-[登]: 올르곡, 올르지, 올란, 올르민, 올르는
 와리-[急]: 와리곡, 와리지, 와령, 와리난
 울-[泣]: 울곡, 울쭈, 울당, 우러도, 우난, 울민, 우는다
 웃-[笑]: 웃꼭~웃꼭, 웃쭈~웃쭈, 우서도, 우스민~우시민, 웃나
 웨-[吁]: 웨고, 웨지, 웨여, 웨난, 웨명, 웨는
 웨롭-[孤]: 웨롭찌, 웨로왕, 웨로우난
 웨우르-[警]: 웨우르지, 웨울런, 웨우르난
 웨울르-[警]: 웨울르곡, 웨우르지, 웨울런, 웨울르난, 웨울르는
 이-[載]: 이곡, 이지, 이영, 이난, 이민
 이기-[勝, 挺]: 이기곡, 이경, 이기난, 이기민, 이기는
 이끄-[牽]: 이끄곡, 이끄쭈, 이깁, 이끄난, 이끄명, 이끄는
 익-[讀, 熟]: 익꼭, 익쭈, 이경, 이그명, 잉는
 일-[起]: 일곡, 일쭈, 이령, 이난, 일민
 일르-[早]: 일르곡, 일르지, 일령, 일르민, 일르는
 입-[着]: 입꼭~익꼭, 입쭈, 입땅, 이병, 이부난, 이부민, 입나
 잇-[連, 有]: 이꼭, 이쭈, 이땅, 이성, 이시난~이스난, 이시민~이스민
 옥-∞역-[成熟]: 옥꼭, 옥찌~역찌, 으간~여간, 으그난, 응는~영는
 을-∞열-[開]: 을곡~열곡, 을쭈, 열당, 으라도~여라도, 을명, 을민, 으나~여나

음-[稔]: 음곡(~음곡), 음찌, 으망, 으무난, 으무민, 음는
 자-[眠]: 자곡, 자주, 자도, 자명, 자민, 자나
 잡-[執]: 잡곡, 잡꾸, 자방, 자부민, 잡나
 재-[測, 攸, 速]: 재곡, 재지, 재영, 재난, 재민, 재는
 저들-[患]: 저들곡, 저들지, 저드라, 저들민, 저드는다
 전디-[耐]: 전디곡, 전디주, 전명, 전디난, 전디는
 짚-[靑]: 짚곡, 짚찌, 짚쭈다, 짚머사, 짚명, 짚무난, 짚는
 접-[摺]: 접곡, 접꾸, 저방(~저병), 저부민, 접는
 젓-[搖]: 젓곡, 젓찌~저찌, 저성, 저시민, 저시난, 전는다
 젓-[濶]: 젓곡~적곡, 저꾸, 저정, 저지난, 저지민~저즈민, 전나
 조-[好]: 조곡, 조양, 조민, 조는~존
 족-[少]: 족곡~조곡, 족꾸, 조강, 조그난, 조그민, 종나
 좃-[啄]: 좃곡~족곡~조곡, 좃찌~조찌, 조상, 조시난~조스난, 조시민~조스민, 존는
 좃-[追]: 조곡~족곡, 조추민, 조꾸, 좃땅, 존나
 좃-[好]: 조곡, 조추, 조양~조왕, 조으난, 조으민, 존는~조은
 주-[與]: 주곡, 주지, 주영~쥬, 주명, 주난, 주는
 죽-[死]: 죽곡, 죽꾸, 주경, 주그난, 주그민, 중는다
 줄-[縮]: 줄곡, 줄지, 주러, 줄민
 좁-[縫]: 좁곡, 좁찌, 주왕~주영, 주우민, 좁는
 좃-[拾]: 좃곡~죽곡, 좃찌~주찌, 주선, 주시난, 주시민, 준나
 쥐-[握]: 쥐곡, 쥐지, 쥐영, 쥐난, 쥐민, 쥐는
 지-[負]: 지곡, 지주, 지영~정, 지난, 지는
 지내(E)-[送]: 지내곡, 지내지, 지내영, 지내난, 지내민, 지내는
 지뿌-[喜]: 지뿌곡, 지뿌, 지뿌명
 지우-[使負]: 지우곡, 지우지, 지왕, 지우민, 지우는다
 지지-[嚙]: 지지곡, 지지주, 지정, 지지난, 지지민, 지지나
 지치-[疲, 扮]: 지치곡, 지칭, 지치민, 지치는
 지푸-[深]: 지푸곡, 지평, 지푸난, 지푸민, 지푸는다
 진-[燃]: 진곡~지곡, 지찌, 지덩, 지드난, 지드민, 진는

질-[汲]: 질곡, 질당, 지렁, 지난, 질민, 지는
 질-[長]: 질곡, 질주, 지렁, 지난, 질민
 질루-[飼]: 질루곡, 질루지, 질탕, 질루난, 질루민, 질루는
 짓-[造]: 진꼭~지꼭, 지쭈, 지성, 지스난~지시난, 지스민~지시민, 진는다
 징-[搗]: 지꼭(~진꼭), 지찌, 지영~정, 지으민(~지민), 진는
 즈들-[患]: 즈들곡, 즈들지, 즈드랑, 즈드난, 즈들민, 즈드는다
 즈물-[採]: 즈물곡, 즈물주, 즈무랑, 즈무난, 즈물민, 즈무는다
 즐-[小]: 즐곡, 즐지, 즐라, 즐난, 즐민
 즈질-[細小]: 즈질곡, 즈질주, 즈지라도, 즈지난, 즈질민
 줍-[拈]: 줍꼭, 줍쭈, 즈방, 즈부명, 즈부민, 줍는
 좇-[紡]: 준꼭, 준찌~즈찌, 즈산, 즈시난~즈스난, 즈시민~즈스민, 즈나
 중그-[閉]: 중그곡, 중그주, 중간, 중그난, 중그민
 좇-[頻]: 준꼭, 준찌~즈찌, 즈자, 즈지난, 즈지민
 짜-[績, 治棺]: 짜곡, 짜주, 짱, 짜민, 짜난, 짜는
 쫓-[逐]: 쫓찌~쫓찌, 쫓차도, 쫓치명, 쫓는
 찌-[插]: 찌곡, 찌주, 찌영~찡, 찌사(~찌여사), 찌난, 찌민, 찌는다
 찌르-[刺]: 찌르곡, 찌르지, 찢렁, 찢르명, 찢르민, 찢르는
 찢르-[刺]: 찢르곡, 찢르주, 찢렁, 찢르난, 찢르민, 찢르는
 찢르-[短]: 찢르곡, 찢랑, 찢르난
 찢르-[短]: 찢르곡, 찢르지, 찢랑, 찢르난, 찢르민
 찢-[短]: 찢꼭, 찢찌, 찢반, 찢부난
 차-[績, 蹴, 滿, 佩]: 차곡, 차주, 창, 차난, 차민, 차는
 초-[煬]: 초곡, 초왕, 초민, 초는다
 초랍-[澁]: 초랍꼬, 초랍쭈, 초라왕, 초라우난, 초라우민
 추-[舞]: 추곡, 추지, 추영(~춥), 추난, 추민, 추는
 춥-[寒]: 춥꼭, 춥찌, 추윙, 추우난
 치-[蒸]: 치곡, 치주, 치영~칭, 치난, 치명, 치는
 칩-[除]: 칩꼭, 칩완, 칩우민, 칩는
 찰리-[扮, 饌]: 찰리곡, 찰리주, 찰명, 찰리난, 찰리민, 찰리는

춤-[忍]: 춤꼭, 춤쭈, 춤망, 춤무명, 춤는
 좇-[探]: 좇꼭~좇꼭, 좇찌, 좇장, 좇지난, 좇지민, 좇는
 카-[燒, 混]: 카꼭, 캡, 카명, 카민, 카는
 쿨-[抱]: 쿨꼭, 쿨쭈, 쿨명, 쿨는
 크-[大]: 크꼭, 크쭈, 킨, 크난, 크민
 클르-[解]: 클르꼭, 클르쭈, 클렁, 클르단, 클르민, 클르는다
 키우-: 키우꼭, 키우쭈, 키왕, 키우난, 키우민, 키우는
 타-[摘, 乘]: 타꼭, 타지, 탕, 타명, 타민, 타는
 털-[振]: 털꼭, 털쭈, 터렁, 털민, 터난, 터는
 튀-[走]: 튀꼭, 튀여도, 튀난, 튀민, 튀는
 트-[浮]: 트꼭, 트쭈, 터도, 트난, 트민, 트는
 튼내-[想出]: 튼내꼭, 튼내지, 튼내영, 튼내명
 튼-[摘]: 튼꼭~툽꼭~툽꼭, 튼쭈, 튼덩, 튼드난, 튼드민, 튼는
 툽나-[異]: 툽나꼭, 툽나쭈, 툽나, 툽나난
 툷-[摘]: 툷꼭~툽꼭~툽꼭, 툷찌, 툷당, 툷드난, 툷드민, 툷는
 파-[掘]: 파꼭, 파쭈, 팡, 파난, 파민, 파는
 페우-[布, 使布]: 페우꼭, 페우단, 페왕, 페우난, 페우민
 푸-[汲]: 푸꼭, 푸지, 평, 푸난, 푸민, 푸는
 푸끄-[吹]: 푸끄꼭, 푸끄지, 푸경, 푸끄명, 푸끄민, 부끄는
 품-[抱]: 품꼭, 품쭈, 품면, 품무난, 품무민, 품는
 피-[開]: 피꼭, 피쭈, 피영, 피여도, 피난, 피는다
 피우-[吸煙]: 피우꼭, 피우지, 피왕, 피우난, 피우민, 피우는
 풀-[賣]: 풀꼭, 풀쭈, 프라사, 풀명, 풀민, 프나
 하-[多]: 하꼭, 하쭈, 하, 하난, 하민
 할트-[舐]: 할트꼭, 할트지, 할트민, 할탕
 허-[爲]: 허꼭, 허쭈, 허영~헝, 허난, 허명, 허민, 허는
 허끄-[散]: 허끄꼭, 허끄지, 허경, 허끄난, 허끄민, 허끄는
 허트-[散]: 허트꼭, 허트지, 허텅, 허트난, 허트민, 허트는
 호-[絳]: 호꼭, 호쭈, 호왕, 호난, 호민, 호는

홀트-[擻]: 홀트곡, 홀트지, 홀탕, 홀트민, 홀트나, 홀트는

홉-[絳]: 홉꼭, 호왕, 호우민, 홉는

홉-[絳]: 홉꼭, 홉쭈, 호왕, 호우민, 호우명, 홉는~호우는

후리-[毆]: 후리곡, 후령, 후리명, 후리는

홀트-[擻]: 홀트곡, 홀트주, 홀텅, 홀트명, 홀트나, 홀트는

홀-[麓]: 홀꼭, 홀쭈, 홀경, 홀그난, 홀그민

휘-[曲, 泳]: 휘곡, 휘주, 휘영~히영, 휘난~히난, 휘민, 휘는

흘르-[流]: 흘르곡, 흘르주, 흘령, 흘르난, 흘르민, 흘르는

흘치-[沍]: 흘치곡, 흘치주, 흘천, 흘치난, 흘치민, 흘치는

흥글-[搖]: 흥글곡, 흥글당, 흥그령, 흥그난, 흥글명, 흥그는디

헉-[爲]: 헉곡, 헉주, 헉영, 헉난, 헉명, 헉민, 헉는